

메가 부동산
"35년의 풍부한 경험과 신용"
문미애
대표 / Principal Broker
703.534.4989

WWW.UMNLOAN.COM
소중한 주택 융자, 신뢰와 전문성을 갖춘 회사
유니타이드 홀게지 내이션과 함께 하십시오!
NMLS# 2425871
1-833-846-4004

중영일보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장미원 부동산
Associate Broker
VA / DC / MD
703.486.6082

JJ Watch & Jewelry Repair
금은 매입 합니다
703.691.1993
11706-L Fair Oaks Mall, Fairfax, VA 22033

대표전화: (703)281-9660 koreadaily.com

The Korea Daily

COPY RIGHT 2024 제 691414호

Wednesday, October 29 2025 A

트럼프, 29일 한미 정상회담으로 APEC 일정 시작

이 대통령은 28일 경주 도착
30일 미중 정상회담 예정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오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개최지인 경상북도 경주로 이동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이 대통령은 오후 오후 APEC 의장 자격으로 경주에 도착했다"며 "오늘 이 대통령의 공개 일정은 없다"고 공지했다.

이 대통령은 29일부터 경주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비롯한 한일·한중 정상과의 연쇄 회담, APEC 정상회의의 공식 일정과 경제인들과의 만남 등 숨겨진 일정을 소화하게 된다.

특히 한미 정상회담의 경우 양국 간 관세협상이나 한미동맹 현대화 등 굵직한 이슈가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 대통령은 회담 하루 전 미리 경주로 향해 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모습이



2019년 6월 일본 오사카 G20 회의에서 만난 트럼프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주석.

[로이터-연합뉴스]

다. 이 가운데 관세협상의 경우 한미 간 '톱다운' 방식 논의를 통해 이견을 좁힐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다만 대통령실 내에서는 현재로서는 이번 회담을 통해 관세 문제 등에 있어

최종 합의를 이뤄내기 쉽지 않다는 관측이 흘러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세계인의 관심이 집중된 미중 정상회담의 준비 상황이나 북미 정상 간 전격적인 만남 가능성에 대해서도 실시간으로 보고받으며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비할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29일 오전 예정된 'APEC CEO(최고경영자) 서밋' 개막식에 특별연사로 참여할 예정인 만큼 이날 늦게까지 연설 내용을 손질할 것으로 보인다.

또 29일부터 시작되는 APEC 정상회의의 공식 일정들도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관련 부처를 독려할 전망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사전 브리핑에서 "APEC을 계기로 마련된 연쇄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의 '플랫폼 역할'을 부각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상외교에 있어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시예산안 상원서 또 부결

'셋다운' 한달 넘길 태세

연방정부의 기능 일부가 중단되는 '셋다운'이 한 달을 넘기게 될 전망이다.

연방 상원은 28일 다수당의 공화당의 단기자출법안(임시예산안-CR)을 표결에 부쳤으나, 찬성 54표에 반대 45표로 통과시키지 못했다. 가결을 위해선 최소 60표가 필요하다.

공화당 의원들이 임시예산안에 모두 찬성하고 민주당 의원들이 모두 반대하는 '진영 대결' 양상도 이어졌다.

셋다운 국면에서 치러진 임시예산안 표결은 이날까지 13차례 연속 부결됐다.



이에 따라 지난 1일 시작된 셋다운은 양측의 대치가 계속되면서 한 달을 넘길 가능성이 커졌다.

역대 가장 기간 셋다운은 트럼프 1기 시절의 35일(2018년 12월 22일~2019년 1월 25일)이었다. 이번 셋다운이 다음 달 5일 이후까지 이어지면 가장 기록을

갈아치우게 된다.

셋다운의 여파로 저소득층에 대한 식비 지원 프로그램인 영양보충지원프로그램(SNAP)이 다음달 1일부터 재원 고갈로 중단될 예정이다.

연방 공무원들이 대거 임시 휴직에 들어가면서 이들이 최대 규모로 가입한 노동조합은 공화·민주 양당에 조속한 협상을 촉구했다.

론 존슨(공화·위스콘신) 상원의원은 셋다운 장기화에 따라 무급으로 일하는 핵심 인력과 임시 해고된 인력을 포함한 모든 연방 공무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민주당에 제안했다고 정치 전문매체 더힐이 전했다.

한일 정상회담 30일 개최 조율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첫 정상회담을 오는 30일에 개최하는 방향으로 양국 정부가 조율하고 있다고 아시아신문이 28일 보도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경주에서 31일 개막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참석을 위해 30일 한국을 방문해 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 21일 취임하자 페이스북을 통해 "다가오는 APEC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경주에서 직접 뵙고 건설적 대화를 나눌 수 있기를 고대한다"고 밝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1일부터 1

박 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해 이차와 게이이치 신임 국가안전보장국장, 아소 다로·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와 만났다.

당시 위 실장은 "서틀 외교를 지속해 상호 관계 발전에 공헌하고자 한다"고 언급했고, 지난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키메이커' 역할을 했던 아소 전 총리는 "한일관계에서 역할을 다해 갈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강경 보수 성향으로 알려진 다카이치 총리도 취임 이후 한일 협력을 중시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어 이번 회담에서도 한일관계 중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고 아시아는 전했다.

김지혜 기자

퍼스트 홈케어
WWW.FIRSTHCO.COM
571.549.6789

엘리콧시티 교통사고 모커리 척추병원
목·허리 통증 전문 병원
교통사고
원장 Dr. 김동국 D.C.
410-480-0083

편한나라 척추신경 교통사고 디스크
엘리콧시티
410-480-2331
락빌
301-279-6960
원장 송영성, D.C.

롱라이프 홈케어
571.623.0255
Annandale

골든 벨라 보석상
결혼 예물 전문
G.I.A. 다이아몬드
보석금 고가 매입
순금 야기 불만지말기
보석 세공, 시계 수리
703.988.0033 센터빌
301.792.5615 H-Mart 내

MD Ellicott City Snoopy Pet Grooming
강아지 그루밍 배우실분
강아지 그루머 구합니다.
410-988-5523

교통사고 | 엘리콧시티 교통사고 | 상해전문병원

모커리 척추병원

목·허리통증 전문 병원

Q. 교통사고가 나면 무엇을 먼저 해야하나요?

A. 사고로 인하여 몸에 물리적 혹은 정신적 피해를 입으셨다면 우선 그 분야의 전문 의료진의 도움으로 X-ray, 근전도 검사 및 다양한 정밀 검사를 통해 어디가 어떻게 손상을 입었는지, 어떤 치료를 받아야하는지, 또한 후유증의 여부를 먼저 파악한 후 그에 맞는 치료를 받으시게 우선순위가 되겠습니다. 저희 클리닉에 방문하시면 변호사 선임, 자동차 수리, 보험처리등에 관한 일반적인 상담을 해드립니다.

Q. 자신의 과실로 사고가 났습니다. 치료받을 수 있나요?

A. 매릴랜드주에서는 교통사고 후 누구의 과실의 여부를 떠나 타고 계셨던 차량의 보험으로 혹은 본인의 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노폴트(No-fault)보험이라고 하며 PIP(Personal Injury Protection)이라고 불립니다. PIP커버는 기본 \$2,500이며, 금액은 보험에 따라 다릅니다. 본인 보험의 혜택으로 병원에 가서서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치료하면 보험금이 올라가나요?

A. 내 보험을 사용하면 보험료가 올라간다고 생각이 당연 할지도 모르겠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험회사에서 보험료를 올리라고 한다면 정해놓은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 올릴 수도 있겠으나 내가 과실하지않은 교통사고로 인해 노폴트 보험을 사용했다고 해서 무조건 보험료가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과실을 하고 내 보험료가 올라간다면 문제가 있지않을까요?

사고후 서류 처리
변호사 선임
통역 및 교통편 제공

치료 전문 LMT마사지
테라피스트가
함께합니다

각종 보험
BlueCross
BlueShield

CareFirst BlueCross BlueShield

원장 Dr. 김동국 D.C.

- Palmer College of Chiropractic
- Sydney University in Australia
- Maryland & Washington Boards Licensed
- Practiced in Blue Spring Chiropractic
- Whiplash Injury Specialist
- Disc Treatment Specialist
- Cervical and Lumbar
- Manipulation Specialist

Mocurry Chiropractic

9275 Baltimore Nat'l Pike, #104
Ellicott City, MD 21042

410-480-0083

극진한 다카이치, 극찬한 트럼프

미·일 첫 정상회담서 '초밀착' 히토류 안정적 공급 등 협력 합의 트럼프 "일본 위해 뭐든 할 것"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가 취임 후 맞은 첫 외교 시험대에서 '합격점'을 받았다. 총리 취임 불과 일주일 만인 28일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에서다.

다카이치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각별한 관계를 맺었던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의 '정통 후계자' 이미지를 전면에 내세웠다.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여는 방식 역시 아베 전 총리가 썼던 그대로 차용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28일 오전 도쿄 미나토구 영빈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일·미 동맹의 새로운 황금시대를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아베 총리로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역동적인 외교에 대해 자주 들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태국과 캄보디아 휴전을 이끌어내 아시아 평화에 기여했고, 중동 합의 실현이란 역사적 위업도 달성했다"고 치켜세웠다.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의 외교력과 방위력을 강화하는 리더로 일하겠다"며 미국이 요구하는 방위비 증액을 의식한 발언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베 총리가 당신을 매우 높이 평가했다"며 "당신은 위대한 총리 중 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화답했다. 이어 "일본이 방위 능력을 크게 강화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일본이 미국의 방위 장비를 대량으로 구매해 감사하다"고 만족감을 드러냈다.

아울러 "일본을 지원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언제든지 그곳에 있을 것"이라며 "우리는 강력한 수준의 동맹국"이라고 강조했다. 회담 후 두 정상은 일본인 남북 피해자 가족들을 직접 만났다.

다카이치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은



다카이치, 아베도 못한 미 핵항모 연설 28일 일본 요코스카 미 해군기지에 정박한 핵추진항모 조지 워싱턴함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소개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손을 번쩍 들어보이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일본 총리 중 처음으로 미 핵추진항모에서 연설했다. [연합뉴스]

오후엔 함께 미 대통령 전용 헬기 '마린원'에 올라 요코스카 미 해군기지를 찾았다. 2019년 아베 전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이 방문했던 곳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회담에서 입은 은빛 치마 정장을 짙은 남색 바지 정장으로 갈아입었다.

두 정상은 요코스카 기지에 정박 중인 미 핵추진 항모 '조지 워싱턴함'에 나란히 올라 미군과 자위대 장병들 앞에 섰다.

다카이치 총리는 "6년 전 이곳 요코스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

가 함께 이 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지켜가겠다는 결의를 밝혔다"고 말했다. 통역이 '아베'라는 이름을 언급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고개를 크게 끄덕였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어 "다시금 일·미 양국의 최고 지휘관이 함께 선 오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실현하겠다"는 결의를 새롭게 다진다"고 강조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관저로 돌아와 기자들에게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을 통해 일·미 동맹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릴 수 있다는 확신을 얻었다"고 말했다. 이번 회담의 성과로 한·미·일 협력 강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재확인, 히토류 공급망 합의를 꼽았다.

와타나베 스네오(渡部恒雄) 사사카와평화재단 수석연구원은 "두 정상의 케미가 예상대로 맞았다"고 평가했다. 그는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미 간 안보 협력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도쿄=오누키 도모코 특파원

아베 퍼터 선물에 "노벨상 추천" 약속... 트럼프 녹인 맞춤형외교

(골프채)

미국산 소고기·쌀 결들여 오찬대접 회담 전 함께 LA다저스 경기 시청도

일본 정부가 우려하던 예상 밖 요구와 같은 '트럼프 서프라이즈'는 없었다. 6년 만에 일본을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79) 대통령은 첫 대면 미·일 정상회담이 열린 28일 하루 종일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64) 일본 총리와 친밀감을 자랑했다. 트럼프의 오랜 친구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가 양국 정상을 잇는 강력한 매개체 역할을 했다.

이날 오전 9시쯤, 일본 도쿄 미나토구 영빈관. 두 사람이 회담장에 들어선 것은 예정보다 약 7분이 지난 9시53분쯤. 다카이치 총리는 "시작이 늦어져서 실례했다. 트럼프 대통령 방에서 야구를 보고 있었다. 다저스가 1대0으로 이기고 있었다"고 운을 뗐다. 일본을 대표하는 야구 선수이자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하는 오타니 쇼헤이(다저스)의 경기를 함께 보는 '스킨십'을 하느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가운데)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오른쪽 둘째)가 28일 일본 영빈관에서 일본인 남북 피해자 가족을 만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늦어졌다는 설명이었다.

회담은 아베식 외교로 출발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아베 전 총리에 대한 오랜 우정에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말 아키에 여사를 환대해 주신 것도 감사하다"고 밝혔다. 내년 미국의 건국 250주

년을 맞아 워싱턴DC에 뿔박나무 250그루를 기증하겠다고도 했다.

정상회담 후 백악관 대변인은 취재진을 대상으로 다카이치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노벨평화상에 추천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노벨평화상에 의욕을 보여는 바 있다. 양국 정상은 미국산 소고기와 쌀을 결들인 오찬을 함께했다. 이때부터 두 정상은 서로를 "도널드" "사나에"로 불렀다. 트럼프 대통령의 취향을 겨냥한 선물도 전달했다. 아베 아키에 여사가 전달한 아베 전 총리의 퍼터, 일본 가나자와산 금박을 입힌 골프공을 준비했다.

'아베 방정식'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아베 전 총리가 사용하던 말인 '재팬 이즈 백(JAPAN IS BACK:일본이 돌아왔다)'이 황금실로 새겨진 검은색 모자에 양국 정상이 나란히 사인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후엔 다카이치 총리와 함께 미 해군기지가 있는 가나가와현 요코스카항을 찾았다. 다카이치 총리는 미 대통령 전용 헬기인 마린원에 동승했는데 외국 정상의 마린원 탑승은 이례적인 일이다.

두 정상은 "떠다니는 군사기지"로 불리는 조지 워싱턴함에 마련된 연설장

에 섰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당시 자주 사용하던 애국가풍 노래 '갓 블레스 더 USA'가 흘러나오자 트럼프 대통령이 연단에 올랐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여성이 위대(승자)"라며 "일본 사상 최초의 여성 총리"라고 소개하자 함성과 박수가 터져나왔다. 미 핵항모에서 일본 총리가 연설했던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설을 마친 다카이치 총리가 연단에서 내려가려 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손을 뻗어 다카이치 총리의 손을 잡았다. 계단을 의식한 '매너 행동'이기도 했지만 첫 정상회담에서 그만큼 미·일 정상이 '강한 동맹관계'라는 것을 보여준 상징적인 장면이 됐다. 아베식 외교의 마무리를 담당하는 이는 아베 아키에 여사였다. 아키에 여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그린 평화(Peace) 글자가 담긴 그림을 선물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일본 재계 인사들과 저녁을 하며 "일이 안 풀리면 내게 전화하라. 다른 각료들을 체제두고 내가 직접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도쿄=김현예 특파원

워싱턴 날씨 (°F)

30일(목)	65-47	2일(일)	60-37
31일(금)	62-43	3일(월)	64-41
1일(토)	62-39	4일(화)	60-38

10월 29일(수) 56-51

워싱턴 중앙일보

7023 Little River Tpke #310, Annandale, VA 22003

The Korea Daily (USPS 020-081) is published daily except Sundays and Postal holidays that fall on Mondays for \$120 including applicable Virginia Sales Tax per year by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pke., Annandale, VA 22003. Periodicals Postage paid at Annandale, VA and at additional mailing offices.

POST MASTERS: send address changes to The Korea Daily.

연순향 부동산 703-489-6926
sunnyyeon@gmail.com

SALE **특별**
교통 좋은 알렉산드리아
3층 타운 홈 \$749,900
차고 2, 방 3, 화 3½

RENT **특별**
기차역 가까운 매너세스
3층 End 타운 홈 \$2,900
차고 2, 방 3, 화 2.2

1석 5조 통합보험

Chronic Illness Rider
간호자금

Life Insurance
생명보험

Retirement Income
은퇴자금

Critical Illness Rider
병원비 보조

Terminal Illness Rider
사망선고시

5 in 1

- 재정교육 (Financial Education)
- 장기간호보험 (Long Term Care Ins.-Living Benefit)
- 생명보험 (Life Insurance)
- 학자금 교육 (College Financial Aid Education)
- 노후대책 (Retirement Plan)
- 건강보험 (Health Insurance)
- 원금보장 연금상품 (Annuity)
- 개인 건강보험(Personal Health Ins.)
- 재산상속 (Estate Planning)
- 단체 건강보험 (Group Health Ins.)
- 주택/비즈니스 용자
- 오바마케어(Affordable Care Act)
- 메디케어(Medicare)

로리 문 | Cell. 703-895-7648
send2lorimoon@gmail.com

“ 귀하에게 딱 맞는 보험회사로 맞춰 드립니다! ”

UNI Worldwide
Financial Marketing

버지니아 (VA) 703.865.8788
3949 Pender Dr, Suite 250, Fairfax, VA 22030

버지니아 (리치먼드) 703.865.8788
14321 Winter Breeze Dr, Suite 15, Midlothian, VA 23113

메릴랜드 (MD) 410.995.8074
3277 Pine Orchard Ln, Suite 3, Ellicott City, MD 21042

[버지니아 유권자 가이드] 조기투표 11월1일 종료...본 선거일 11월4일

주지사·부주지사·법무장관
하원·군수·시의원 등 '선출'

버지니아 지방선거(11월4일)가 6일 앞으로 다가온 현재 주지사와 부주지사, 법무장관 자리를 놓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또한 버지니아주 하원 100석을 놓고도 선거가 실시되지만 상당수 지역은 경합이 없는 상태다. 민주당은 현재 51대49로 근소한 차이로 다수당의 위치에 있다. 그 외에도 일부 지역에서는 군수 및 시장, 교육위원, 그리고 시의원 선거도 함께 열린다.

[투표날짜] 현재 진행 중인 조기투표는 오는 11월1일 종료되고 본 선거 투표는 11월4일이다.

[직접투표] 조기 투표나 선거일에 투표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반드시 투표



공화당 소속의 윈섬 얼-시어스, 존 레이드, 제이슨 미아레스 주지사·부주지사·법무장관 후보.

등록을 하거나 또는 유권자 등록이 필수다. 사전 투표의 장소는 선거일 투표소와 다를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우편투표] 버지니아주에서 우편으

로 투표하려면 유권자는 버지니아주 선거관리국 웹사이트에서 우편 투표용지를 요청해야 하고, 우편 투표용지는 선거일 또는 그 이전에 우편 소인이 찍

어야 하며, 11월7일 정오까지 도착해야 한다.

[선거일 투표] 11월4일 선거일 투표소는 오전 6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되

고, 오후 7시까지 줄을 선 유권자는 투표용지를 넣을 수 있다. 모든 유권자는 투표소에서 허용되는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확인서에 서명해야 한다.

[투표용지에 누가 있나] 티켓 상단에는 윈섬 얼-시어스(공화) 예비게릴 스펀버거(민주) 주지사 후보가 실려 있고, 다음에는 존 레이드(공화) 가잘라 하쉬미(민주) 부주지사 후보가, 그리고 다음으로는 제이슨 미아레스(공화) 제이 존스(민주) 법무장관 후보가 올라 있다. 또 하원 의원 100석 전체가 경쟁에 참여하지만 모든 의석이 포함된 것은 아니다. 한인으로는 유일하게 버지니아 8지구에서 3선에 나서는 아이린 신(민주) 의원이 공화당의 인디라 매시 후보와 맞붙는다.

기타 전 지역 선거 목록은 '버지니아 선거관리국 웹사이트'에서 확인하면 된다. 김성환 기자

작년 주택매매 팬데믹 이전보다 19% 적어

팬데믹 이전 수준 회복 아직 못해

주택시장 전문가들이 팬데믹 이전의 부동산 경기를 정상 시장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아직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스팅 기관 MLS와 전국 부동산중개인연합회(NAR) 등의 자료에 따르면 작년 버지니아의 주택 판매량(10만 2509채)은 전년 대비 4천채 증가했으나 2019년 판매량보다 18.8% 감소한 수치였다.

전문가들은 2024년 모기지 금리가 평균 6.7%로 역사적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 리스팅 매물이 감소해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을 위축시켰다고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작년 말부터 시장이 변하고 있다.

작년 12월 주택 매매량이 전년동월 대비 14% 증가했다.

로레인 아로라 버지니아 부동산중개



인연합회 회장은 "작년 말부터 바이어들이 1년전보다 낮은 모기지 금리에 적응하면서 활동이 늘어났다"고 전했다.

아로라 회장은 "2024년 8월 NAR 정책 변경으로 MLS를 사용하는 부동산 에이전트는 바이어와 서면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여기에는 부동산 에이전트 수수료 또는 비용 등을 구체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면서 "새 정책으로 바이어가 수수료를 협상할 수 있는 더 많은 권한을 갖게 돼 상당한 변화가 곧 나타날 수 있다"고 전했다.

상업용 부동산 시장도 내년부터 한층 활력을 띠 전망이다.

팬데믹 원격 근무 여파로 상업용 부동산 시장 가치는 팬데믹 이전보다 가치가 23.3% 하락했다.

북버지니아의 2024년 4분기 사무실 공실률은 17.8%로, 전국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

반면, 버지니아의 소매 공간 공실률은 3.7%로 매우 낮았는데, 출퇴근 근무 증가로 사무실 공실률이 줄어드는 등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업도 지지개를 켜고 있다.

미국 건설협회(Associated General Contractors of America)에 따르면 2023년 11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버지니아의 건설업 고용은 6% 증가했다.

특히 북버지니아는 같은 기간 동안 1만 6100개를 기록한 휴스턴 지역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건설업 일자리(9천개)를 추가했다. 김윤미 기자

22기 평통 미주부의장 이재수

워싱턴협의회장 박준형 임명

22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워싱턴협의회장에 박준형(사진) 서밋파이낸셜 대표가 임명됐다. 또 민주평통 미주 지역 협의회에 관심을 모았던 미주부의장에는 6.15공동선언실천 미국위원회 사무국장을 역임했고 해외활동행동코디네이터를 지낸 이재수 워튼뷰티서플

라이 대표가 임명됐다. 그는 19대 워싱턴평통 회장도 역임했다.

민주평통 사무처는 28일 미주 20개 지역 협의회장 명단을 공개했다. 각 협의회 위원 명단은 31일 이전에 발표될 예정이다. 김성환 기자



허리케인 상륙자메이카 초긴장

카리브해 섬나라 자메이카가 28일 초강력 허리케인 '멜리사'(Melissa·스페인 어권에서는 멜리사라고 호칭) 상륙에 극도로 긴장하고 있다.

자메이카 당국은 "지금쯤 용감해질 때가 아니다"라면서 주민들에게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자메이카 정부 엑스(X·옛 트위터), 자메이카 기상청 페이스북, 미 국립허리

케인센터(NHC) 보도자료 등을 종합하면 허리케인 '멜리사'는 이날 오후 5등급 상태를 유지한 채 자메이카 육상에 도달했다. 허리케인 5등급은 풍속과 예상 피해 유형에 따라 태풍을 다섯 등급으로 분류하는 '사피어-심슨 규모'(Saffir-Simpson scale) 최상위 단계다.

자메이카 기상청은 '멜리사' 최대 지속 풍속이 시속 185마일(298km)에 달할 정도의 강풍으로 수도 킹스턴을 비롯한 전역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OMNI
Protecting Your Dreams Since 1985
오직 옴니!
보험에 관한 모든 선택 - 옴니화재
사업체보험
자동차보험
집보험
의료보험
생명보험
광고는 때때로
OMNI
1-866-915-6664

김진옥
척추신경전문의
최신형 의료시설 완비
최신형 X-Ray 완비
교정 및 물리치료
의료보험
703-691-3111

고객의 꿈을 실현하는
메트로시티은행
METRO CITY BANK
SBA 융자, USDA 융자, 주택 융자
센터빌 지점 571-490-7655 애난데일 지점 571-335-7163

한번고객은 평생고객
탑여행사
www.toptravelusa.com
info@toptravelusa.com
센터빌 703.543.2322 VA
애난데일 703.256.0606 VA
엘리콧시티 410.480.0100 MD
항공권도매직판점

추천이 꼬리를 무는 부동산
갤럭시부동산
20년 이상 경력
주택 매매 - 렌트 전문
연 80 - 100여 채
주재원 렌트
로리 정
대표 에이전트
직통 (703) 625-9909
1952 Gallows Rd., #102, Vienna, VA 22182

현스 홈케어 서비스
HYUNSH HOMECARE SERVICE
Always With You!

**30년 삼성 HR 경험,
이제는 홈케어 서비스와 함께 합니다.**

“사랑을 아는 경험, 사람을 돌보는 마음 -
현스 홈케어”

어르신 상담
Senior Consulting Service

- ▶ 맞춤형 개인 간병 서비스 (치매 상담제공 - CDP)
- ▶ Medicaid 신청 및 각종 정부 지원 안내 (푸드 스탬프, 교통 지원 등)
- ▶ Senior Living 안내 (시니어 아파트, 그룹홈 등)
- ▶ 병원 및 약국 업무 대행 서비스
- ▶ 의료기기 및 개인용품 주문 서비스

간병사 모집
Caregiver Recruitment

- ▶ 월 2회 간병사 교육 및 Certification 발급
- ▶ CNA 교육 지원 (시험 응시료 1회 지원, 취득 시 추가 혜택 제공)
- ▶ 주급 지급 (매주 금요일)
- ▶ 안정적인 근무 배정 및 경력 관리 지원
- ▶ 친절하고 체계적인 행정 지원

2834 Hill Rd., Vienna, VA 22182
703.507.2492 Mr. 배 **571.334.3963** Mr. 윤

Hyunshhomecare@gmail.com
admin@hyunshcs.com
www.hyunshcs.com

미·중 정상 동시방한 ‘탈 안미경중’ 가능자

(股)

오늘 한·미, 내달 1일 한·중 회담
미 관세 교착, 중국과는 안보 갈등
대통령, 두달 전 “안미경중 어렵다”
APEC 계기 ‘실용외교’ 구축 과제

view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국빈 방한으로 시작해 국빈 방한으로 마무리된다. 문을 여는 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으로, 29일 그가 김해국제공항에 발을 디디는 순간 사실상 APEC 외교전은 시작된다. 문을 닫는 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다. 차기 의장으로서 다양한 메시지를 발신한 뒤 11년 만의 방한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정상회의 의장 자격으로 경주에 도착했다.

미·중 정상을 동시에, 그것도 서울이 아닌 지방에서 국빈으로 맞이하는 건

전례가 없는 일이다. 주요국 정상을 제대로 대우하기 위해 초유의 ‘쌍꺾이 국빈 접수’라는 승부수를 던진 셈인데, 비교는 불가피하다. 이번 APEC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외교는 ‘한국은 미·중 사이 어디쯤 서 있느냐’는 오래된 질문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일단 이 대통령의 ‘말’은 미국 쪽에 매우 가깝게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월 방미 때 “한국이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인 입장(안미경중·安美經中)을 가져왔던 건 사실이지만, 이제 과거와 같은 태도를 취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고 말했다. 이후 언론 인터뷰 등에서도 같은 입장을 유지했다.

경주에서는 이런 이 대통령의 말이 행동으로 이어질 것인지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가장 확실한 건 정상회담 결과물이다.

이 대통령과 트럼프는 지난 정상회담에서 관세 문제를 둘러싼 갈등으로 결과물을 도출하지 못했다. 일본은 지

난 2월 정상회담에서 동맹 강화 의지를 담은 공동성명을 내놨지만, 한국은 아직 미국 정상 차원에서 확장 억제 등 미국의 확고한 방위 공약도 확인을 받지 못한 상황이다.

이번에도 관세 갈등을 풀지 못해 밀도 있는 문서 결과물은 나오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핵심 쟁점은 한국이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3500억 달러 중 현금성 직접투자 비율과 분납 방식이다. 미국은 2000억 달러 현금 투자와 연 250억 달러 이상의 집행을 요구하고, 한국은 연 150억 달러 이하로 맞서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29일 한·미 정상회담 전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하워드 러트니 미국 상무부 장관을 직접 만나 고위급 최종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정부 고위 관계자가 말했다. 합의도 출기대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크지 않다.

이재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APEC과 정상회담이 모두 끝났

는데 합의가 없다는 인식이 퍼지면 양국 모두 부담이 커질 것”이라며 “최소한 ‘이견이 좁혀지고 있다’는 메시지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중 간에는 중국의 강압적 행동으로 인한 갈등이 현안으로 작용하고 있다. 서해에 무단으로 구조물을 설치하고 군함을 보내는 등 내해화 시도가 대 표적이다. 한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 뒤 이뤄진 중국의 보복도 완전히 제거되지는 않았다.

시진핑은 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자유무역 및 다자주의 체제 수호 등을 강조, 사실상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주의를 견제하며 한국도 이에 동참하라고 촉구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 대통령이 이에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중국 측은 정상회담 뒤 풍성한 결과물을 내놓기 위해 다양한 분야를 살펴 보고 있다고 한다. 양국 정상 간 경제·

사회 협력 확대 의지가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정상 간 ‘스킵스’도 관계의 밀도를 가능하는 지표가 될 수 있다. 트럼프는 1박2일, 시진핑은 2박3일 동안 한국에 머무른다. 국빈 일정 자체는 양국 정상 모두 하루에 전부 소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시진핑은 APEC 정상회의의 본 세션에 참석하는 만큼 의장인 이 대통령과 계속 교류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차기 의장국이기 때문에 단체사진에서도 이 대통령 옆에 시진핑이 설 가능성이 크다. 한·중 정상회담이 APEC 폐막 뒤 11월 1일 단독 일정으로 이뤄지는 것도 시진핑에 대한 주목도를 높이는 설정이 될 수 있다.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대학원장은 “이재명 정부가 실용을 내세우는 만큼 이번 APEC을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주도적이고 실용적인 ‘한국형 외교 모델’을 구축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현주·김원·윤성민 기자

메릴랜드 남성, 아동 포르노 혐의 ‘1465년 징역’

배심원단 만장일치 결정
12월23일 선고공판 예정



메릴랜드 찰스카운티에 거주하는 남성이 아동 포르노 소지 혐의로 100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위기에 처했다고 검찰이 27일 밝혔다. 찰스카운티 검찰에 따르면 지난 22-24일까지 열린 3일 간의 재판 끝에 배심원단은 용의자 데니스 데모인 스미스(65)에게 미성년자의 성적 행위를 묘사하기 위해 컴퓨터를 사용한 혐의 28건과 아동 포르노 소지 혐의 237건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당초 이번 수사는 2023년 찰스카운티

세리프극에 전국 실종 및 착취 아동센터로부터 아동 성 학대 자료가 담긴 파일이 스미스의 전화번호와 연결된 사이버 채보로 접수한 데서 비롯되었는데, 채보는 같은 해 1월부터 4월까지 3

개월 동안 이어졌다. 이후 검찰과 경찰은 합동으로 수사를 펼친 끝에 상당수의 아동 성 학대 파일을 확보하고 2024년 11월 19일 데니스 데모인 스미스를 전격 체포했다.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자택 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스미스의 집을 급습했을 때 16세 미만의 아동을 묘사한 영상 파일과 28개의 화면 녹화본을 발견 입수했다고 설명했다. 메릴랜드주 검찰은 스미스가 최대 146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밝혀 귀추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스미스의 선고 공판은 오는 12월 23일 오전9시에 열릴 예정이다. 김성한 기자

정찬열 시인 동주문학상 받는다

해외작가특별상 부문 ‘영예’
내달 서울서 제10회 시상식



정찬열(사진) 시인이 제10회 동주문학상 해외작가특별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동주문학상은 운동주 시인의 민족애를 기리고 해외에서 한글로 시를 쓰는 시인을 격려하기 위해 제정됐으며, 동주문학상제전위원회, 계간 시산맥과 광주일보가 공동 주관하고 있다. 문정영 동주문학상 대표의 추천을 받아 ‘이상한 나라’ 등 5편의 시로 수상한 정 시인은 “운동주 시인의 이름이 걸린 무거운 상을 받게 됐다. 내게 주어진 이 길을 묵묵히 걸어갈 것이다”는 소감을 밝혔다. 정 시인은 성균관대학교, 전남대학교 대학원을 거쳐 중학교 교사로 재직하던 1984년 미국에 왔다. 무궁화 한국

학교 교장을 맡아 8년 동안 일했고 1995년 남부 한국학교를 설립, 교장을 맡아 20여 년 동안 한국어와 뿌리교육에 앞장섰다. 1995년 ‘오렌지글사랑’ 모임을 창립했으며, 2010년부터 전임 강사를 맡고 있다. 1999년 미주중앙일보 신춘문예시 부문에서 등단했다. 미주가톨릭문인협회 회장, 미주한국문인협회 이사장을 역임했으며, 2016년부터 문학세계 발행인 겸 편집인을 맡고 있다. ‘쌍코뿔이를 아시나요(2006년)’를 비롯한 다수의 산문집과 시집 ‘길 위에 펼쳐이는 길’을 출간했다. 페스타로치상(2002년), 해외꽃시인상(2020년), 미주가톨릭문학상(2021년) 등을 받았다. 시상식은 11월 29일(현지시간) 서울 낙원악기상가 엔피오피아홀에서 열린다.

아동학대 교사 실형 선고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 법원이 아동학대를 일삼은 교사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경찰당국에 따르면 작년 4월12일 페어팩스 카운티 버크에 위치한 화이트옥스 초등학교의 한 교사가 아이 한명을 때렸다는 채보가 아동보호국(CPS)에 접수됐다. 사건을 이첩받은 경찰은 수사 끝에 장애인 특수학급 교사 엘리

자베스(62세)를 2023년 9월부터 2024년 4월 사이 7건의 단순폭행 혐의로 작년 6월 체포했으며, 최근 1차 재판에서 징역 20일형을 선고받았다. 나가가타 교사는 또다른 아동학대 혐의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경찰은 추가적인 조사 끝에 이 학교의 다나 쉐 교감(42세)이 관련 사실을 알고도 경찰이나 CPS에 신고하지 않

은 혐의를 적용해 체포했다. 하지만 재판 결과 쉐 교감은 무죄가 확정됐다. 버지니아와 메릴랜드는 교사 등 공무원과 의사 등의 의료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사실을 목격하거나 인지했을 경우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밖에도 폴스처치 고교 체육 교사 리처드 베퀴워츠(36세)는 아동학대, 페어뷰 초등학교 교사 존 바커(47세)는 아동성범죄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김윤미 기자

www.koreadaily.com
워싱턴지역 한인 커뮤니티
- 렌탈/부동산 정보
- 구인구직 정보
- 커뮤니티
- 미주지역 정보 서비스

형사법 전문 변호사 시작이 강해야 결과가 강합니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ERIK JURGENSEN **DAVID MARKS**

막막한 순간, 나에게 힘이 되는 변호사를 믿으세요.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영향을 끼치는 형사사건, 대응에 부족함이 없어야 합니다.

20년 이상 한인사회를 위하여 일하고 있는 강하고 힘있는 법정 변호사, 데이빗 맥스! 정확한 분석력과 정보,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축적된 실력으로 합당한 판결을 받아드리겠습니다.

- 음주운전 / 교통위반
- 폭행 / 아동학대
- 절도 / 횡령
- 기물파손 ■ 마약

저희 손을 잡으십시오. 저희에게 맡기십시오. 그리고 편히 주무십시오.

에릭 저겐슨 변호사 C. Erik Jurgensen, ESQ
• TOP Criminal Lawyers by Northern Magazine
• TOP 20년간의 법정경력

형사법,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상담부터 재판까지 페어팩스 카운티 검사출신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상담 무료**

교통사고 문의, 데이빗 맥스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David L. Marks, ESQ **데이빗 맥스 변호사**
• 20년간의 법정경력
• Rated AV-PREEMINENT
• SUPER LAWYERS
• Member of "MILLION DOLLAR ADVOCATES FORUM"
• NATIONAL TRIAL LAWYERS TOP 100 LAWYERS
• TOP ATTORNEYS IN VIRGINIA

Connie A. Yoon
카니 윤 법무이사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데이빗맥스**
www.davidmarkslaw.com
한국어 상담 환영 **703.385.1100**
10513 Judicial Dr. #204, Fairfax, VA 22030

FREE
The Ultimate Accident Guide
버지니아 자동차 사고 보험 청구 세번째 가이드북 출간
이 책을 읽으시기전까지 보험회사와 연락하지 마십시오. 703-385-1100으로 연락주시면 무료로 위의 책자를 드립니다.

한인 10명중 6명 “주 1회 이상 햄버거 먹는다”

주 1~2회 56.4%로 가장 많아
인앤아웃 압도적 1위 선호

한인들 10명 중 6명은 주 1회 이상 햄버거를 즐기고 있으며, 가장 큰 이유는 ‘간편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가 온라인(koreadaily.com)을 통해 지난 17일부터 10일 동안 진행한 ‘2025 한인 햄버거 트렌드’ 설문조사 결과(응답자 786명)에 따르면 응답한 이들의 86.6%(중복 응답)가 인앤아웃(In-N-Out)을 가장 좋아한다고 답했으며, 이어 해빗버거(34.1%), 맥도날드(32.3%), 칩otle(27.2%)가 뒤를 이었다. 올해 첫 미주 지점을 오픈한 롯데리아는 9.7%를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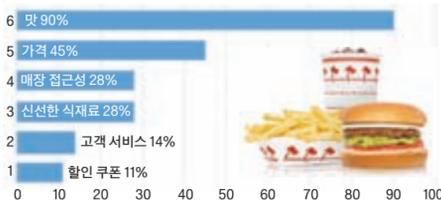
특정 브랜드를 선호하는 이유(중복 응답)로는 맛(90%)이 가장 많았으며, 가격(45%), 매장 접근성(28%), 신선한 재료(28%), 고객 서비스(14%) 등이 올랐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인앤아웃	해빗버거	맥도날드	칩otle	버거킹	칼스주니어	셰이크셰크	파이브가이즈	롯데리아	잭인더박스	웬디스	기타
86.6%	34.1%	32.3%	27.2%	17%	16%	13%	12%	9.7%	7%	6.7%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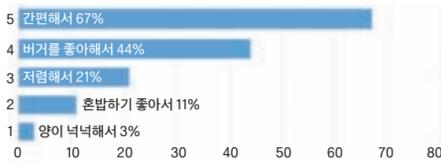
응답자 56.4%는 주 1~2회 섭취한다고 밝혀 인기를 반영했으며, 주 3~4회 섭취도 4.5%에 달했다. 반면 37.9%는 햄버거를 ‘거의 먹지 않는다’고 답했다. 햄버거를 찾는 이유(복수 응답)로는 ‘간편해서(67%)’가 가장 많았고, ‘햄버거를 좋아해서’ 먹는다는 답변도 44%를 기록했다. 동시에 ‘저렴해서(21%)’, ‘혼밥하기 좋아서(11%)’라는 답변이 뒤를 이었다.

올해 미국에 진출한 한국 브랜드 롯데리아(풀러틴 소제)에 대해서는 방문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19%였으며, 55%가 향후 할 계획이 있다고 답해 관

특정 브랜드 선호 이유



햄버거를 사먹는 이유



심을 반영했다.

하지만 이용 후기에서는 의견이 갈렸다. 방문해 봤다는 응답자 중 27%가 ‘한류의 일환으로 환영한다고 답했지만, 31%는 오히려 ‘품질과 서비스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응답자 27%는 ‘특별한 생각이 없다’고 답해 일부 무관심을 드러내기도 했다.

한인들은 롯데리아에 대한 평가에서 기타 의견

으로 ‘다른 브랜드에 비해 가성비가 떨어진다’, ‘미리 계획하고 만들어서 손님을 맞이해라’, ‘양이 적고 가격은 비싸다’고 꼬집기도 했다. 한인들의 생각과 유사하게 국내에서 가장 인기있는 햄버거도 ‘인앤아웃’으로 나타났다.

옐프(yelp)가 지난 5월 자체 리뷰 내용을 조사해 분석한 바에 따르면 햄버거 브랜드 1위에 인앤아웃, 2위에 해빗버거, 3위에 셰이크셰크가 올랐다.

동시에 지난 7월 USA투데이는 국내 최고 햄버거 메뉴로 해빗버거의 ‘더블 차버거(Double Char)’를 선정하기도 했다.

최인성 기자

‘AI 시대’ 아마존 일자리 3만개 감축할 듯

온라인 소매 대기업 ‘아마존’은 인공지능에 대한 지출을 늘리는 한편 다른 분야의 비용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최소 1만4000개 최대 3만 개의 일자리를 감축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는 아마존 전체 직원 155만 명 중 소수에 불과하지만, 회사 전체 직원 35만 명의 약 10%에 해당하는 수치다.

또한 이는 2022년 말부터 약 2만7000개의 일자리가 없어진 후 가장 큰 규모의 일자리 감축을 의미해 귀추가 주목된다.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주에 본격 시작되는 감축은 인사부를 비롯해 기기 및 서비스부, 그리고 운영부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를 뒷받침 하듯 앤디 재시 아마존 CEO는 최근 생성적 AI가 향후 기업 인력을 줄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히는 동시에 직원들에게 회사의 AI계획에 동참할 것을 독려했다.



아론 파네스 아마존 응용과학 디렉터가 지난 22일 ‘미래를 배송하다(Delivering the Future)’를 주제로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아마존 행사에서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마존은 “고객의 삶을 더 편리하고 좋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믿고, 모든 고객 경험이 AI를 통해 재창조될 것이라 믿는다면, AI에 투자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아마존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수백만 명이 집에 머물며 온라

인 서비스가 늘어나면서 직원 수를 두 배로 늘렸다. 이후 몇 년 동안 거품 빠기 일환으로 일자리 줄이기를 시도해 왔다. 한편, 아마존은 30일 3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다. 27일 주식은 1.3% 상승한 227달러를 기록했다.

김성환 기자

미군, 마약운반 선박 4척 격침 동영상 공개

14명 사망

미군이 태평양 동쪽 공해상에서 미국으로 마약을 운반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 4척을 공격했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전정부) 장관은 28일(현지시간) 자신의 엑스(X)에 이같은 사실을 알리는 글과 선박 격침 동영상을 공개했다.

이들 선박에 대한 공격은 전날 3차례에 걸쳐 이뤄졌다.

각 선박에는 ‘나르코 테러리스트’(중남미 일대 마약 밀수 조직원) 남성 15명이 타고 있었다.

이번 공격으로 14명이 사망했다고 헤그세스 장관은 밝혔다.

선박들은 동부 태평양에서 마약을 밀수하는 것으로 알려진 테러 조직이 운용하는 것이며, 미 정보기관들에 의해 파악된 바에 따르면 미국으로의 밀수 경로를 따라 마약을 운반 중이었다고 헤그세스 장관은 설명했다.

또 생존자 1명에 대해 미 법무장관은 수색 및 구조 표준 절차를 개시했고, 멕시코 당국이 이 사건을 넘겨받아 구조 작업을 책임졌다고 덧붙였다.

다만, 생존자가 구조됐는지, 구조 이후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미군은 지난 16일 카리브해에서 마약 운반선으로 의심되는 반잠수정을 격침했다. 당시 생존한 선원 2명은 구조돼 고향인 콜롬비아와 에콰도르로 돌려보내졌다.

헤그세스 장관은 “국방부는 다른 나라를 방어하는 데 수십년을 보냈지만, 이제 우리는 조국을 방어하고 있다”고 밝혔다.

AP 통신은 지난달부터 태평양과 카리브해 일대에서 진행된 미군의 마약 운반 의심 선박 공격이 공개된 것은 이번까지 13차례이며, 사망자는 최소 57명이라고 보도했다.

정세나 기자

AK 김경태 공인회계사
회계업무
세무보고
비즈니스 설립
세무보고 상담환영!
410.719.1000 Fax. 410.719.9198
3300 N. Ridge Rd., #280, Ellicott City, MD 21043

맞춤 용자의 달인 **마이클 장**
달인과 함께하면 용자도 행복해집니다
주택용자 · 상업용자 · 재정상담
NMSI, Inc. NMLS #201332
410-370-4229 / 301-275-1494

맞춤형 연금 & 재정관리
Lori Moon
“오늘의 계획으로 미래의 재정 안정을!”
703.895.7648
3949 Pender Dr. #250, Fairfax, VA 22030

세라젬
내 척추길기와 굴곡도에 맞추는
특허기술 “척추 온열 의료기기”
공간 효율적이고 우아한 안마의자 “파우제”
무료 체험 가능 · 무이자 할부 가능 (K-마켓 안에 위치)
공식 판매 업체 703.798.7270
4239 John Marr Dr. #1, Annandale, VA 22003

For your many sides, there's Nationwide®.
AUTO - 자동차보험 | HOME - 주택보험 | LIFE - 생명보험
BUSINESS - 사업체보험 | RETIREMENT - 은퇴연금
Nationwide is on your side
12111 Heritage Park Circle Silver Spring, MD 20906
Albert Kim 보험
albert@wkinc.com
Won K. Kim Insurance Agency, Inc. Licensed in DC, MD, VA, DE, PA, GA
Silver Spring (301) 962-8300 Baltimore (410) 465-5499
Virginia (703) 312-0909
Products underwritten by Nationwide Mutual Insurance Company and Affiliated Companies. HomeOffice: Columbus, OH 43215. Subject to underwriting guidelines, review, and approval. Availability varies. Nationwide, Nationwide Is On Your Side, and the Nationwide N and Eagle are service marks of Nationwide Mutual Insurance Company. ©2018 Nationwide CPO-0836AO (08/16) 7400524

영아패션
YOUNG AH FASHION
각종 약세사리 스카프, 모자, 신발, 여성용 골프 의류, 가방 등 판매
한국 최신패션! 최고의 퀄리티! 유명 브랜드의 고품질 제품을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장만하세요!
Baltimore National Pike 40
M&T, 대장금(미역조림), 웨일라노레방
미리조물 대장금 식당 뒤편 길로 300m 정도 내려오시면 새로지는 뉴타운 맞은편 미국 성조기 달려있는 파킹장으로 들어오세요~
T. 443-440-2000 영아패션
3215 Corporate Ct., Ellicott City, MD 21042

현금 쓸 곳이 없네...지폐 발행도 10년 뒤 최대 절반까지 줄어

무현금 사회 가속화

한국을 방문한 일본 모델이 교통카드 잔액이 부족해 버스를 타지 못할 뻔했으나, 버스 기사의 배려로 숙소까지 이동한 사연이 온라인에서 화제다. 해당 버스는 '현금 없는 버스'였다. 한국인의 따뜻한 배려로 주목을 받은 영상이지만, 한편으로는 '현금 없는 사회' 확산에 따른 외국인과 금융 취약계층의 불편을 보여준 장면이다.

실제 최근 현금을 받지 않는 식당과 카페가 늘고, 현금 결제가 불가능한 버스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올해 초 한국은행이 발간한 '2024년 지급수단 및 모바일금융서비스 이용행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지급수단 중 현금 이용 비중(건수 기준)은 15.9%로 신용카드(46.2%)와 체크카드(16.4%)에 이어 세 번째였다. 2013년 41%에 달했으나 10년 만에 10%대 중반으로 떨어졌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30.2%)에서 현금 이용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현금 결제가 불가능한 장소도 빠르게 늘고 있다. 28일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전국 광역 시·도의 버스 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 17곳 중 10곳에 '현금 없는 버스'가 도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광주·대구·대전·세종·인천·제주 등 6곳은 전면 시행 중이며, 서울·경기·충남·전남 등 4곳은 부분적

으로 운영되고 있다.

프랜차이즈 카페와 음식점에서도 '현금 없는 매장'이 늘고 있다. 스타벅스는 2018년부터 일부 매장에서 현금 결제를 받지 않고 있으며, 최근 빠르게 늘어나는 무인 점포의 키오스크 역시 카드나 간편결제만 가능하도록 설계되고 있다.

'현금 없는 사회'가 빠르게 오면서 한국은행과 조폐공사는 올해 '현금 사용 감소에 대응한 조폐산업 발전 방안' 비공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정태호 의원실이 입수한 이 보고서에 따르면 신규 화폐 발행량은 현재 연평균 4억~8억 장 수준에서 2035년에는 3억1000만~4억4000만장으로 줄어든 전망이다.

10년 안에 발행 규모가 최대 절반 가까이 감소할 수 있다는 의미다. 보고서는 "조폐공사는 생산설비와 인력을 점진적으로 축소할 완충 기간을 마련해야 한다"며 "한국은행 역시 유통 화폐의 품질과 보안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새 은행권 발행을 대안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현금자동입출기(ATM) 등 화폐 접근성이 전반적으로 낮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남 신안(24.3%), 경북 군위(31.4%), 경북 봉화(33.5%) 등 지방 소도시가 ATM 보급이 부족한 대표적 취약 지역으로 꼽혔다.

취약계층의 현금 이용권을 보장하기 위한 해외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

다는 게 보고서의 제안이다. 영국은 금융포용 차원에서 수수료 없는 ATM을 확대하고, 저소득 지역에 무료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대형 점포가 줄어든 스웨덴은 지급결제서비스법을 개정해 주요 시중은행에 현금 취급 의무를 법으로 부과했다. 미국 일부 주에서는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무현금 매장'을 금지하는 법안을 시행 중이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CBDC 등 지급결제 혁신도 중요하지만, 혁신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소외되는 계층이 반드시 생길 수밖에 없다"며 "지급결제는 국민의 기본권적 수단인데 변화 속도가 빠르다"고 진단했다. 김연주 기자

스스로 타깃 찾아 쏜다...중국 로봇전·드론·전술차 'AI 무장'

중국산 인공지능(AI) 답시크 출시 이후 로봇전, 드론, 전술차량 등에 AI를 접목하려는 중국군의 '물기'가 심상치 않다는 분석이 나왔다.

27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올해 중국군이 낸 수십 건의 입찰 공고를 분석한 결과 12건에서 답시크 사용이 언급됐고 답시크 경쟁 모델인 알리바바 큐원(Qwen)이 거론된 공고는 한 건에 불과했다. "중국이 답시크와 AI를 활용해 미국과 군비 경쟁을 따라잡으려 하는 체계적 노력이 여기에 담겨있다"는 게 로이터의 평가다.

글로벌 보안기업 레코디드 퓨처의 산하 조직 인사이트(Insikt) 그룹이 펴낸 보고서에서도 비슷한 분석이 나온다. 인사이트 그룹은 지난 6월 해당 보고서에서 "중국군과 방산업 조달기록을 보면 5월 말 기준 답시크는 150차례 이상 언급됐다"며 "2월 첫 등장한 뒤 3~5월에



지난 9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2차 세계대전 종전 80주년 기념 열병식에 등장한 무인 전투기. 이 전투기는 6시간 동안 1500km 반경에서 21의 무장을 하고도 작전을 펼칠 수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집중됐다"고 밝혔다. 답시크의 대형언어모델(LLM) V3와 저비용 모델 R1 출시 시점이 각각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중국군이 짧은 시차를 두고 답시크 '속도전'에 돌입했

다는 점을 시사한다.

AI에 쓰이는 하드웨어 칩 수요 상황도 중국군의 속도전을 뒷받침한다. 로이터는 "미 상무부가 2022년 9월 엔비디아의 A100과 H100 칩 수출을 금지

했지만 중국군과 산하 기관이 6월에도 해당 칩을 사용하는 정황이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지난 2년간 국방과학기술대학 등 중국 국방 관련 학자들이 제출한 특허 35건에서 엔비디아 A100 칩 사용을 언급한 게 확인됐다"는 것이다.

실전 배치와 성능을 규명하긴 이르지만 AI에 기반한 성과물이 하나둘씩 등장하는 점도 주목할 대목이다. AI 로봇전이 대표적이다. 중국군은 지난해 5월 캄보디아와 합동 훈련인 '골드드래곤'에서 이 로봇전을 선보였는데, 소총으로 무장한 사격보행인 해당 물체가 적적으로 선제 돌격하는 장면으로 눈길을 모았다. 근접전에서 로봇전이 정찰과 제압사격을 마치면 보병 분대가 진입하는 방식이었다.

지난 2월 공개된 중국 국영 방산업체 노린코 전술차량 P60의 경우 중국 당국이 답시크 탑재를 공식화한 사례다.

무인 자율 전술차량이 시속 50km로 전장을 헤집고 다니면서 보급과 견인 등 지원 임무를 실시하는 시연이 당시 벌어졌다. 답시크의 전장 분석자료를 받은 P60은 장애물 회피·표적 식별·대열 주행 등을 알아서 해냈다고 한다. 로이터는 또 "중국군 군집 드론이 인간 개입을 최소화한 채 답시크로 표적을 인식·추적하는 대형 편대의 작전을 구현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시안(西安)공업대학은 지난 5월 공개한 연구에서 답시크로 구동되는 시스템이 전장 시나리오 1만 건을 48초 만에 평가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기존 48시간이 걸리는 평가를 획기적으로 단축했다는 의미다. 로이터는 미국 무부로부터 받은 답변을 인용해 "답시크는 중국의 군사·정보 활동을 가까이 지원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이근평 기자

네타냐후, 휴전 19일 만에 "강력한 공격" 명령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28일 가자지구에 대한 즉각적인 공격을 지시했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네타냐후 총리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휴전 협상을 위반했다고 비난한 뒤 가자지구에 대한 공격을 군에 명령했다.

이스라엘 총리실은 성명을 통해 "네타냐후 총리는 안보 협의에 따라 가자지구에서 즉시 강력한 공격을 가할 것을 군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재로 지난 9일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휴전에 합의한 지 19일 만이다. 10일 휴전 발효 이후로는 18일 만이다.

네타냐후 총리의 이번 지시는 전날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추가로 인계한 시신 1구의 신원이 기존에 송환된 인질 사망자의 다른 신체부위였던 것으로 판명된 직후 나왔다.

장규승 기자



케냐 '빅5' 구경 가던 경비행기 추락

관광객 등 11명 전원 사망

28일 새벽 케냐 동부 몸바사 인근 칼레 카운티에서 경비행기가 추락해 11명이 사망했다고 현지 당국이 밝혔다.

케냐민간항공청 등에 따르면 이날 새벽 디야니 공항에서 이륙해 마사이마라 국립공원으로 향하던 세스나 경비행기가 약 40km 떨어진 칼레 카운티 구릉지대에 추락했다.

이 사고로 헝가리인 8명, 독일인 2명 등 외국인 관광객 10명과 케냐 조종사

1명 등 탑승자 11명이 모두 사망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케냐민간항공청은 애초 사고 항공기 탑승자를 12명이 라고 발표하다가 추후 이를 정정했다.

이들이 가려던 마사이마라 국립공원은 사자, 코끼리, 코뿔소, 버팔로(아프리카물소), 표범 등 이른바 '빅 5'와 기린, 하마, 치타 등이 서식해 사파리 관광객이 많이 찾는 인기 관광지다.

현지 당국은 경비행기가 이륙 몇 분 만에 추락해 불길에 휩싸였다는 목격자들의 진술을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

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케냐에서는 지난 8월에는 수도 나이로비 인근에서 의료봉사단체 소속 세스나 경비행기가 추락해 탑승자 4명과 지상에 있던 2명이 사망한 바 있다.

지난해 4월에도 서부 카번 마을에서 군 헬기가 추락해 케냐군 총사령관을 비롯해 10명이 숨졌고, 같은 해 3월에는 나이로비 윌슨 공항에서 국내선 여객기와 혼용용 경비행기가 이륙 직후 충돌해 경비행기 탑승자 2명이 목숨을 잃었다.

정세내 기자

임마누엘 홈헬스

임마누엘 간병인들은 치매교육과 노인 질환 및 장애인 수발법등 이론과 실습을 마친 간병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료 간병사혜택 서비스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이드 소지자, 장애인, 퇴역군인(Veterans Affairs) 혜택자

전문 간병인이 되고 싶으신 여러분을 위해 임마누엘이 도와드립니다.

임마누엘은 신뢰를 바탕으로 간병사님들의 의견을 소중히 생각하며 간병사님들의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간호학 박사의 명강의로 노인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교육
- 간병인 교육과 심폐소생술(CPR)/응급처치(First Aid)를 한주에 수료 가능
- 유급병가(paid sick leave)
- 간병인 영주권 스폰서 가능

간병인에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문의 바랍니다.



Emmanuel Adult Medical Day Care Center

최고 시설 최대 규모

임마누엘 어덜트 메디컬 데이케어 센터

한인 어르신분들을 가족같은 분위기로 행복하고 즐거운 노년을 보내실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신장비를 갖춘 물리치료실(치료사 주2회 방문), 마사지체어실, 탁구대, 당구대, 노래방

소셜서비스 / 통근서비스 / 의료동행서비스 (병원 예약 및 진료에 동행, 맞춤형 지원)

전문적인 의료 및 간호서비스 즐겁고 활력 넘치는 다양한 액티비티 프로그램 최고의 맛과 영양을 자랑하는 식사

443-288-6677

8174 Lark Brown Road, Suite 201, ElkrIDGE, MD 21075
1801 Research Blvd, Suite 580, Rockville MD 20850

443-878-6611

6612 Baltimore National Pike
Catonsville, MD 21228



2026 메디케어 플랜 가입 및 변경

ONE STOP FINANCIAL SERVICES
UNI와 함께 하세요!!

최적의 메디케어 플랜을 찾는 데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메디케어 플랜 가입 및 변경, 전문가의 도움으로 더 쉽게!
상담에서 신청까지 무료! 라이선스 에이전트가 도와드립니다.



문로리

703-895-7648



이린다

443-515-8522



안은신

804-464-3662



이은경

571-303-9060



장미원

703-486-6082



오경자

443-690-4290



올바른 계획을 세우기 위해선 올바른 교육이 필요합니다.
UNI가 원스탑 재정 서비스로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메디케어
세미나

VA 페어팩스

11/1 (토요일@10am)
11/13 (목요일@7pm)

MD 엘리콧시티

10/8, 11/5, 12/10 (수요일@10am)
10/18, 11/22 (토요일@10am)



VA (Fairfax)

703-865-8788

3949 Pender Dr, Suite 250
Fairfax, VA 22030

MD (Ellicott City)

410-995-8074

3277 Pine Orchard Ln Suite 3
Ellicott City, MD 21042

VA (Richmond)

804-464-3662

14321 Winter Breeze Dr, Suite15
Midlothian, VA 23113

파견·사직에 쪼그라든 검찰, 증권범죄합수부 1년새 반토막

(특검)

3대 특검팀에 검사 114명 파견
‘검찰청 폐지’ 통과로 줄사직까지
“유예 1년 남았지만 검찰 초토화”
미제사건 2년새 2배 가까이 급증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 검사 수가 1년 새 반 토막 나는 등 검찰의 주요 범죄 수사 역력이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잡한 사건에 대한 전문적 수사를 위해 설치한 중점 검찰청의 수사 검사들이 3대 특검팀(김건희·내란·순직해병) 파견과 검찰청 폐지법 통과 등에 따른 사직으로 대거 빠져나가면서 일부는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에 빠졌다.

28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달 기준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 검사 수는 4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8명)보다 절반으로 줄었다. 남부지검 금융조사 1·2부 인력 역시 같은 기간 9명에서 6명으로 감소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시시장 활성화를 위해 추가 조 작 등 금융범죄에 대한 엄벌 입장을 밝혔지만 정작 검찰의 수사 역력은 크게 축소된 상황이다.

증권·조세·특하·산업기술유출 등 전문성이 필요한 주요 범죄 대응을 위한

중점청별 검사 수 감소 추이
단위: 명 ※단장, 부장 제외 ● 2024년 10월 ● 2025년 10월

구분	중점청	소속	2024년 10월	2025년 10월
사이버범죄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	2	2
		금융조사제1부	5	3
금융범죄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2부	4	3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	8	4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부	5	3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	5	3
조세범죄	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조사부	3	3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	5	3
식품의약품안전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품범죄조사부	3	2
환경범죄	의정부지검	환경범죄조사부	2	3
국제범죄	인천지검	국제범죄수사부	3	3
기술유출범죄(첨단산업보호)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	4	3
특허범죄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	3	2
해양범죄	부산지검	해양범죄전담부	3	2
산업안전	울산지검	형사5부	4	3
자연유산보호	제주지검	환경전담부	5	4

자료: 대검찰청

중점 검찰청은 11곳이다. 남부지검을 비롯해 다른 중점 검찰청 수사부 검사 수도 모두 감소세다. 이달 특허범죄조사부를 운영하는 대전지검의 전담 검사는 2명, 식품의약품범죄 중점청인 서울

서부지검의 전담 검사도 2명에 불과하다.

수도권 중점 검찰청의 한 간부는 “1년 새 중점 수사부서의 검사 수가 3분의 1이 줄었는데 그마저도 다른 인지부

서에서 인력을 빼어서 유지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특수수사는 포기했고, 중점 수사도 기존에 하던 사건만 겨우 처리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중점 검찰청의 검사도 “현상 유지만 겨우 하는 상황”이라며 “수사-기소 분리 유예기간이 1년이라고 하는데 그 전에 이미 검찰청은 초토화된 상태”라고 말했다.

실제 3대 특검팀이 파견받은 검사만 114명(내란 55명, 김건희 43명, 순직해병 16명)으로 전국 검찰청에선 초유의 검사 공백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수도권 대형 검찰청인 수원지검(정원 114명)과 같은 수의 검사가 특검에 차출되면서 기존 사건 처리엔 차질을 빚는 것이다. 특히 특검 파견을 어느 정도 수사 경력이 쌓인 중간 허리급 검사들이 주로 가면서 일선 검찰청에는 초임 검사와 부장급 검사만 남은 곳도 상당수라고 한다.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청 폐지를 골자한 정부조직법 국회 통과 전후 검사들의 대규모 사직 역시 인력 부족의 또 다른 원인이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

지 사직한 검사 수는 146명으로 작년 한 해 사직 검사 수(132명)를 이미 넘어섰다.

일선 검찰청에서 복잡한 사건을 수사할 수 있는 인력이 빠져나가면서 미제사건은 폭증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전국 검찰청 미제사건(3개월 초과) 수는 9만9096건에 달했다. 2023년(5만7327건)보다 2배 가까이 급증했다.

특히 미제 건수는 지난 6월(7만3395건) 이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6월부터 3대 특검이 검사를 파견받아 수사를 시작한 만큼 특검 출범의 여파가 미제 증가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주진우 의원은 “검사 공백과 미제 사건 지연으로 고통받는 건 국민”이라고 지적했다.

향후 상설특검이 예정된 만큼 검찰의 중점 수사 공백과 미제 증가는 더욱 가속화할 예정이다. 공보속 서울고검 검사는 최근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리고 “가난해서 다 쓰러져가는 집의 기둥뿌리까지 뽑지 마시라”며 “없는 형편에 (상설특검 파견 인원인) 검사 5명이 적은 게 아니다”고 했다.

정진호 기자

여당이 꺼낸 ‘법원행정처 폐지론’... 2020년 김명수 대법도 “위헌소지 커”

당시 대법 ‘사법부 독립 위협 받아’
변협도 “권력분립의 원리에 반해”

더불어민주당이 꺼낸 ‘법원행정처 폐지론’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에도 나왔지만 당시 “권력분립 취지에 반한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특히 지난 27일 정청래 대표가 언급한 ‘이탄희 의원

안’은 2020년 위헌 논란에 부딪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7일 비공개 사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행정처 위원회 신설 같은 개혁이 필요하다”며 이전 의원안을 재소환했다. 2020년 7월 이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골자는 다양한 시민이 참여하는 ‘개방형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었다. 법관 위원 4명, 비법관 위원 8명이 위원회를

구성해 사법행정을 담당하도록 했는데, 그 위원들은 국회에 설치한 추천위에서 뽑도록 했다. 그러나 곧바로 “삼권분립 침해 소지가 있다”는 반대에 직면했다.

법원행정처 폐지 자체에는 찬성하던 김명수 대법원도 국회에 낸 의견서에서 “헌법 해석상 사법행정권은 법관이 행사해야 한다는 점에서 볼 때 개정안

은 위헌 소지가 크다”고 반대했다. 또 판사의 인사까지 사법행정위가 담당하게 한 데 대해 “사법부 독립의 가장 핵심적 내용이 위협받는다”며 “법관이 정치화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우려했다.

당시 대한변호사협회 역시 2021년 1월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사법부의 의사결정을 사법부가 아닌 국회에

서 상당 부분 관여하는 방식이어서 권력분립의 원리에 반한다”고 했다.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명예교수는 “사법부 독립 침해, 법관의 정치화 등 여러 부작용의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독립성과 공정성, 전문성을 따져봤을 때 성공할 조건을 갖췄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한 고법판사는 “사법행정회의든 행정처 폐지든 법관이 아닌 외부 인사가 하게 하는 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서민 기자

李, 한·미 정상회담 마지막 점검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오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북 경주에 도착했다. 이날 별도의 외부 일정을 잡지 않는 이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막판 준비에 집중했다.

1박2일간의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참석을 마치고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전날 심야에 귀국한 이 대통령은 이날 공

식 외부 활동 없이 참모진으로부터 보고를 받으며 APEC 및 정상회담 상황을 점검했다. APEC 의장 자격으로 이번 행사를 이끄는 이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10월 31일~11월 1일) 주재 외에도 29일 한·미 정상회담을 비롯해 10여개 국가 정상들과 닷새간 릴레이 양자 회담에 진행한다.

가장 큰 현안인 한·미 관세 협상은 이 대통령이 경주로 간 28일까지도 최종

타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 주말 이후 두 차례 이상 하워드 러트니 미국 상무장관과 화상 회의를 열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현재 한·미 양국은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펀드의 현금투자 비중 등 핵심 쟁점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에서 나오는 목소리도 긍정적이지 않은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27일 공개된 미국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협상이) 지연된다고 해서 꼭 실패를 뜻하지는 않는다”

며 협상 장기화 가능성을 내비쳤다.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도 같은 날 외신 간담회에서 “이번에 바로 타결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 역시 같은 날 말레이시아에서 일본으로 향하는 미국 대통령 전용기에서 “한·미 협상이 정상회담 중에 타결될 것이냐는 질문에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한다(I think not quite)”고 답했다. 그럼에도 대통령실은 끝까지 협상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러트니 장관을 조만간 직접 만날 계획이다. 지난 8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도 두 사람이 회담 직전까지 실무협상을 진행했던 만큼 이번 정상회담 직전에도 고위급 협상을 통해 최종 타결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미국과의) 채널은 늘 열려 있다”며 적극 타결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관세 협상이 완전히 타결되면 한·미 정상회담에선 양국의 양해각서(MOU)가 체결될 전망이다.

오현석·윤성민 기자

세라젬과 함께 하는 10월 건강 혁신 - 척추와 혈액 순환을 위한 특별한 선택! CERAGEM

척추는 신경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마스터 V 컬렉션” 체험해 보세요.



우아하고 건강한 휴식을 위해 설계된 “파우제” 사용자 중심의 기능과 기술력으로 최적의 휴식을 제공합니다.

“파우제 M 컬렉션” 체험해 보세요.



- 대한민국 식약처, 미국 FDA, 유럽 CE로부터 인증받은 의료기기 기술력
- 척추 길이, 굴곡도, 하중 인식으로 사용자 체형측정 기능 (특허)
- 내부 발열 도자가 사용자별 척추라인을 따라 업 다운 밀착 마사지 효과 제공 (특허)
- 추간판(디스크) 탈출증 치료, 퇴행성 협착증 치료 도움
- 척추 부위에 집중적으로 온열(최고 149°F)과 압박 자극을 제공하여 척추 교정에 도움
- 척추 마디마디를 시원하게 풀어주고 혈액 순환을 도와 근육통 완화에도 효능, 효과
- 복부 온열 LED 도자로 생리통 치료에 도움(V7 모델)

- 척추 굴곡도를 닮은 프리미엄 SL 프레임
- 원하는 밀착감 경험 3단계 어깨 높이 조절
- 마사지 효과를 높이는 릴렉스 온열 케어 (최고 113°F)
- 편리함과 편안함을 더한 145°F 전동 리클라이닝
- 척추라인을 따라 섬세한 마사지
- 최대 140°F 온열과 섬세한 진동 복부 온열 진동 도자
- 휴식의 몰입감을 높이는 블루투스 스피커
- 지압, 주무름, 두드림, 복합, 에어백 골반, 허벅지 마사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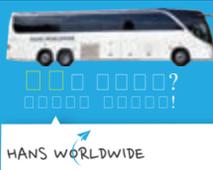
세라젬 공식 판매 업체 703-798-7270

4239 John Marr Dr., #1, Annandale, VA 22003 (K-마켓 안에 위치)

무료 체험 가능
무이자 할부 가능

HANS TRAVEL

hanstravelusa@gmail.com
 문의전화 703.658.1717
 www.hanstravel.com
 7601 Little River Tnpk., #201
 Annandale, VA 22003



데이빗 한 재키 조 조앤 한 세라 정 애나 김 김문배

인솔자가 함께하는 한스여행

VA 한스 에이전트/로컬 투어 가이드 모집 이력서를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atc.davidhan@gmail.com

올 가을 특별한 광동! 뮤지컬 특선 당일투어!

한국 뮤지컬 브로드웨이를 장악하다!

어쩌면 해피엔딩

1차 11/13(마감) 2차 11/22(마감)
 3차 오픈! 12/13(토)
 티켓 포함, 점심식사 포함 \$249

대형버스

뉴욕의 크리스마스! 라디오시티

크리스마스 스펙타클러

12/18(목)
 티켓 포함, 점심식사 포함 \$249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모차르트의 선율, 마술피리

THE MAGIC FLUTE

1차 12/14(일), 2차 12/20(토)
 티켓 포함, 점심식사 포함 \$249

한스 2025-2026년 스케줄

항공 불포함 인솔자

11/07(금)-11/19(수)	일본 알펜투어+북해도 맛마감
11/29(토)-12/12(금)	하와이+뉴질랜드+호주(시드니)마감
01/10(토)-01/19(월)	오만,사우디 아라비아,카타르마감
11/26(수)-11/30(일)	팬스기빙 코스타리카 마감
2026년 여행 미리 준비하세요~	
01/16(목)-01/24(토)	바하마 크루즈 (볼티모어)마감
01/22(목)-01/27(화)	코스타리카 골프 & 온천마감
5박6일	\$2,350 항공포함
01/29(목)-02/08(일)	신비의 북인도 여행
10박11일	\$3,590 재키 조
01/29(목)-02/10(화)	북인도+두바이 Stop Over
12박13일	\$4,850
02/09(월)-02/14(토)	발렌타인 코스타리카
5박6일	\$2,190 항공포함 애나 김
02/09(월)-02/21(토)	남인도+스리랑카
12박13일	\$5,150 조앤 한
02/14(토)-02/21(토)	스리랑카 문화탐방
7박8일	\$2,980
02/17(화)-02/26(목)	이집트 & 나일강 크루즈
9박10일	\$4,190 데이빗 한
02/23(월)-03/22(일)	남미 일주(브라질,아르헨티나,칠레,페루)
27박28일	\$20,500 재키 조
02/23(월)-03/08(일)	파타고니아 & 이과수 폭포
14박15일	\$9,900
03/07(토)-03/15(일)	이스터 아일랜드 & 칠레
8박9일	\$6,590
03/14(토)-03/22(일)	페루 일주
8박9일	\$3,590
03/23(월)-04/01(수)	모로코와 사하라 사막 탐험
9박10일	\$3,690 조앤 한

코스타리카

따바콘 온천/행잉브릿지 커피투어/라빠스 생태공원

1 4박5일 11/26(수)-11/30(일) **마감!** 성원에 감사합니다.

2 5박6일 2026년 2/9(월)-2/14(토)
항공포함 \$2,190

인솔자:애나 김

남인도 & 스리랑카

1 남인도 & 스리랑카 12박13일
 2/9(월)-2/21(토) \$5,150 항공불포함

2 스리랑카 문화탐방 7박8일
 2/14(토)-2/21(토) \$2,980 항공불포함

인솔자:조앤 한

03/30(월)-04/11(토)	일본 맛여행+환상의 벚꽃축제
12박13일	\$5,995 재키 조
04/11(토)-04/18(토)	한국의 남해, 땅끝 마을을 찾아서
7박8일	\$2,590 딜릭스 리무진 버스 재키 조
04/20(월)-04/28(화)	중국 실�크로드
8박9일	\$3,490 조앤 한
04/09(목)-04/17(금)	베네룩스 3국
8박9일	\$3,890 봄 특선! 세라 정
04/20(월)-05/01(금)	스페인 & 포르투갈
11박12일	\$3,790 애나 김
05/04(월)-05/14(목)	서유럽 3개국 프랑스/스위스/이탈리아
10박11일	\$3,590 세라 정
05/06(수)-05/18(월)	그리스 & 터키
12박13일	\$3,690 조앤 한
05/31(일)-06/11(목)	알프스 파노라마 투어
11박12일	\$5,995 재키 조
06/01(월)-06/13(토)	코카서스 3국
12박13일	\$4,490 조앤 한
06/15(월)-06/25(목)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스카이 섬
10박11일	\$6,695 재키 조
07/09(목)-07/14(화)	캐나다 록키 4박5일
07/16(목)-07/29(수)	북유럽 4개국 & 발틱 3개국
13박14일	\$6,695 재키 조
08/07(금)-08/21(금)	케냐, 빅토리아 폭포, 남아공 + BLUE TRAIN
08/07(금)-08/19(수)	아프리카 사파리, 빅토리아 폭포, 남아공
08/07(금)-08/14(금)	아프리카 케냐
08/15(토)-08/28(금)	그린랜드 + 아이슬란드
13박14일	\$12,990 재키 조
08/15(토)-08/22(토)	그린랜드 7박8일 \$5,995
08/21(금)-08/28(금)	아이슬란드 7박8일 \$6,995
08/12(수)-08/18(화)	알래스카
09/07(월)-09/16(수)	북스페인+산티아고 순례길
09/21(월)-09/29(화)	발칸+크로아티아+슬로베니아
09/28(월)-10/08(목)	서유럽 3개국
10/12(월)-10/23(금)	포르투갈 & 스페인

한스와 골프투어 떠나요~

팬스기빙 스페셜

머틀비치 골프 투어

골프 4라운딩 + 리조트 숙박

11/27(목)-11/30(일)
 3박4일 \$879

대형버스

미국 내 당일투어

3명 이상 출발 가능	워싱턴 DC \$100
당일투어	루레이동굴 \$125
8명 이상 출발 가능	미리 예약 하세요!
뉴욕 1박2일	11/17(월), 12/29(월) \$399
캐나다 나이아가라 목요일 출발 & 뉴욕 2박3일	11/13(목) \$650
캐나다 나이아가라 수요일 출발 & 뉴욕 3박4일	\$899
미동부 캐나다	월요일 출발
5박6일	\$1,350

코스타리카 골프 & 온천

골프 3라운딩 + 따바콘 온천

5박6일 2026년 1/22(목)-1/27(화)
항공포함 \$2,350 인솔자:세라 정 **마감!**

1/8(목), 1/12(월) 4분 이상 예약가능/연합투어 가격문의

미국 내 당일투어

서부 4대캐년	5박6일
\$990	항공 불포함 일요일 출발
미서부 일주	8박9일
\$1,540	항공 불포함 일요일 출발

고국의 맛! 프리미엄 고국투어

모든 옵션 포함!!

한스 단독 전일권 5성급 호텔, 리무진 버스 투어

2026년 4/11(토)-4/18(토) 인솔자:재키 조

한국의 남해, 땅끝 마을을 찾아서
 딜릭스 7박8일 \$2,590 항공 불포함
 서울-교산-목포-해남-순천-여수-진주-거제-외도-통영-안동-영주-원주-서울

(2025년 11/2, 11/9 서울에서 출발)
 내륙일주 6박7일 \$1,550 항공 불포함
 전국일주(제주포함) 9박10일 \$2,350 항공 불포함

골프 연합

이외에도 다양한 여행상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www.hanstravel.com 에서 더 확인하세요. **한스 여행사** 에 문의해 주시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광고상의 가격, 일정, 호텔 등은 현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오타로 인한 가격 오류시 정가를 지불하셔야 하며 상품 예약 후 꼭 권함을 받으셔야 합니다.

딸 축의금 논란 거세지는데... '노무현 정신' 언급한 최민희

딸 결혼식 축의금 문제에 휩싸인 최민희 국회의원과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을 향한 야권의 사퇴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뇌물죄 고발 등 법적 조치에 나서며 압박한 반면, 최 위원장이 속한 더불어민주당은 사퇴에는 선을 그으면서도 당혹감을 키우고 있다.

국민의힘은 28일 최 위원장을 향해 "위원장에서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 대회의에서 "국감 중 국회에서 결혼식을 열어 계좌번호와 카드 결제 기능이 담긴 청첩장을 뿌리는 건 피감기관에 대한 명백한 압박"이라며 "축의금을 돌려준다고 면죄부를 받는 게 아니라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피감기관 관계자로부터 수십만~백만원대 축의금을 받은 행위는 김영란법 위반과 뇌물수수 의혹을 피할 수 없는 중대사안"이라고 비판했다.

최 위원장의 딸은 국감 기간인 지난 18일 국회 사랑장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국감 기간에 상임위원장의 자녀가 국회에서 결혼한 것 자체가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논란이 제기된 상황에서 지난 26일 최 위원장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축의금 액수를 확인하는 모습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되며 파장은 더 커졌다. 최 위원장은 "기관 및 기업으로부터 들어온 축의금을 돌려드리도록 보좌진에게 지시하는 내용"이라

최 "다시 노 정신으로 무장할 때" 노사위 "옛장수마음이 노 정신이냐" 야당은 뇌물죄·중처법 고발 검토 여당 "최 어디로 뺄지" 내심 당혹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국회의원과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K바이오 혁신 토론회에 참석해 휴대전화를 보고 있다. 임현동 기자



고 해명했지만 야권의 공세는 멈추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도 무기로 꺼내들었다. 당 관계자는 "국감 기간 중 최 위원장이 3일 연속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정문화를 밀어붙이는 등 무리한 일정을 고집해 과방위 직원 3명이 질병 및 과로로 쓰러졌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소지가

있어 고발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동일 유해 요인으로 직업과 관련한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할 경우 중대산업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29일 갑질 문제를 다루는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도 최 위원장을 신고할 예정이다.

지난 20일 과방위의 MBC 비공개 업무 보고에서 최 위원장이 MBC 보도에 불만을 제기하며 MBC 보도본부장을 퇴장 조치한 게 갑질에 해당한다는 이유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당선 직후 결혼한 장남 동호씨의 축의금 내역도 공개하라며 전선을 확대했다. 동호씨는 결혼 과정에서 계좌번호가 적힌

모바일 청첩장이 온라인 게시판 등에 공유돼 논란이 일어났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방송 인터뷰에서 "축의금 액수를 공직자 재산에 등록하고 증여세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최 위원장 '사퇴 불가' 방침을 강조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축의금을 반환하며 사태를 수습한 만큼 사퇴할 문제까지 아니다"고 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저는 최민희 의원처럼 축의금을 돌려줄 용기를 내지 못했다"며 "이제 그 정도 했으면 되지 않았느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려 쳐라'"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당혹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한 초선 의원은 "최 위원장에게 여러 의문이 우려를 전달했다"며 "하지만 최 위원장은 감정이 격해지면 어디로 뺄지 몰라 걱정"이라고 했다.

최 위원장이 이날 페이스북에 "다시 노무현 정신으로 무장할 때"라고 쓴 게 '내부 비판을 자제해 달라'는 의미로 해석되며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광산인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옛장수마음이 노무현 정신은 아닐 것"이라고 직격했다. 그러자 최 위원장은 이날 오후 5시쯤 해당 글을 삭제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야당) 너무 심하게 한다"며 "나 사퇴 안 한다. 사퇴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김규태·강보현·조수빈 기자

'건희2' 폰서 나온 김건희 육성 "비밀리에 쓰는 번호... 총재님 뵙고 인사드릴게요"

(통일교 한학자)

건진 재판서 김·윤영호 통화 재생 김, 대선 3주 뒤 전화 "애써줘 감사" 윤영호 "전체 대한민국 조직 동원"

"비밀리에 쓰는 번호라 전화가 늦어서 죄송해요."

2022년 3·9 대선 3주 뒤인 3월 30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휴대전화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전화를 건 상대방은 윤석열 당시 대통령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 여사였다. 김 여사는 "이번에 애 많이 써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여러 번 인사하면서 "언제 한번 (한학자) 총재님 꼭 만나뵙고 인사드릴 테니 전(성배) 고문님하고 의견 나눠주세요"라고 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건진법사 전성

배씨의 두 번째 공판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윤 전 본부장과 김 여사 간 통화녹음 파일이 재생됐다.

그날 김 여사는 이른바 '건희2'로 알려진 휴대전화로 윤 전 본부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전씨는 이 번호를 건희2로 저장하고선 검찰·특검 수사 과정에서 김 여사의 수행비서 역할을 한 정지원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사용했다고 주장해 왔다. 김 여사 역시 "내가 아닌 수행비서 행정관이 사용했다"는 취지로 특검에 진술했었다.

하지만 이날 법정에서 김 여사가 건희2 번호로 전화를 걸어 "비밀리에 쓰는 번호"라고 밝힌 육성이 공개되면서 김 여사가 실사용자였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드러났다. 김 여사가 "이번에 여러 가지 도와줬다는 말을 듣고 너무 감사하다"고 하자 윤 전 본부장이 "작년에 총재님은 하늘이 내린 사람이 대



소환 앞둔 오동운...공수처 "일정 공개 유감" 순직해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오동운 공수처장을 31일 오전 9시30분 직무유기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고 28일 밝혔다. 공수처는 "출석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사전, 실시간 공개는 유감"이라고 밝혔다.

통령이 돼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저희가 교회만이 아니라 학교나 전체 대한민국 조직, 기업체까지 동원해 한 건 처

음"이라고 답하는 내용도 공개됐다. 통일교 측 지방위 대선 지원이 드러난 셈이다.

김 여사가 건희2폰 실사용자란 점은 '건진법사 청탁 의혹'을 입증하는 핵심 단서가 될 수도 있다. 전씨가 2022년 4월 이 번호로 8명의 이름과 희망 근무지를 적은 명단을 보내는 등 인사 청탁을 포함해 각종 청탁 메시지를 보냈기 때문이다. 당시 건희2폰에선 "이력서를 보내달라"는 답장을 보냈다.

전씨는 2022년 5월에 윤 전 대통령 취임식 직전 윤 전 본부장, 한학자 총재의 만머느리 문모씨 등의 개인정보를 정리해 보내며 취임식 초청을 요청하기도 했다.

특검팀은 이를 근거로 통일교에서 신도 집단 입당, 쪼개기 후원금 등을 통해 2022년 대선 당시 윤 전 대통령을 조직적으로 지원한 것은 물론, 전씨를 통해 사별백·목걸이 등 청탁성 물품을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진우 기자

셀리의 히소식 ~

집 팔려나 고민되시나요? 하나부터 열까지 신경 안 쓰시게 하여 제대로 팔아 드립니다. 집 수리 이쁘게 해서 빨리 팔아 드립니다. 최소한의 경비를 약속 드립니다.

바이어 히소식 ~

이자가 6%대로 많이 내렸습니다. 이자가 더 내리면 집 값이 더 올라갑니다. 집사실 바이어들은 때를 잘 잡아야 미리 계획을 세우세요. 투자용 주택을 장만해 노후 은퇴 자금으로 활용 하실 분들은 연락주세요. 절대!!! 실패하지 않는 투자 상담 해드립니다.

임대 주택 관리

매릴랜드, 디씨 집 관리 워드시즈, 임대면허증, 카운티 인스펙션, 래드 인스펙션 다 관리해드립니다. 세입자와의 분쟁 해결해드립니다. 임대주택관리 17년 경력의 노하우!

RENT

싱글 홈, 스프링필드 (연대월 부근) 방3, 화2, 즉시 입주
\$3,600

금매

아파트, 디씨 NW 하워드 대학부근 아파트 방1, 화1
\$1,600

금매

금매 페어팩스에서 가장싼 타운하우스 방2, 화1, 아담한 뒷마당 찬탈리 as Is 금매
\$300,000 (임대 \$1,800)

비키리 부동산

전화 문자 703-231-5572

DC, MD, VA 브로커 면허 소유
북버지니아 부동산 협회 선정 17년 연속 탑프로듀서, 주택 관리 전문 회사

NVAR Diamond Member
Membership in the Top Producer's Club for 10 years of cumulative success

CONFIDENTIALITY NOTICE: The contents of this email message and any attachments are intended solely for the addressee(s) and may contain confidential and/or privileged information and may be legally protected from disclosure.

앰플러스 부동산 / 탑 프라퍼티 임대관리회사

버지니아 / 703-863-0321 D.C., 매릴랜드 / 301-399-0140

정승욱
연방세무사

GTAX Consulting Group

703-844-0355 / www.gtax1.com

4000 Legato Rd. Ste. 1100, Fairfax, VA 22033

김영선
연방세무사

“ 세금 보고, 절세 전략, 세금 문제 해결, 각종 비즈니스 지원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성공을 돕습니다. 저희는 빠르고 저렴하며 고객이 만족하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개인 세금 보고

- 50개 주 개인 세금 보고 / 세무 상담
- 해외 자산 및 수입 보고
- 자녀 학자금 신청 및 상담
- 세무 감사 대행 / 세금 탕감 신청

사업체 세금 보고

- 법인체, 사업체 설립
- 비영리 단체 설립
- 사업체 세금 보고 및 세무 업무
- 정부 정리 및 직원 PAYROLL

재정 설계 및 노후 계획

- 은퇴 설계 / 개인 연금 Annuity, IRA
- 생명 보험 / 장기 요양 보험
- 직원 복지 / SEP, 401K
- 오바마케어 / 메디케어



워싱턴 긴급 구국 강연회

대한민국, 진실 앞에서 각성하라!

Face Reality. Defend Freedom.

대한민국이 지금 직면한 미증유의 위기 상황은 우리의 깊은 성찰과 즉각적인 행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 위기의 진실된 실상을 국제 사회에 알리고, 우리가 나아갈 '구국의 길'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에 워싱턴 D.C. | 메릴랜드 | 북 버지니아 지역 한인 동포 여러분을 모십니다.

- **일시:** 10월 31일, 금요일, 오후 6시~8시
- **장소:** Korean Community Center Main Room (2nd Floor) (코리안커뮤니티센터)
6601 Little River Turnpike #200, Alexandria, VA 22312
- **주최:** KCPAC (한국보수주의연합) | Washington DC AKUS (한미연합회)



민경욱 20대 국회의원



모스탄 (전) 미 국무부 국제형사사법 대사



전한길 대표

- **민경욱** KCPAC 한국 대표: 한국 선거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노력, 그 실상과 증거
대한민국의 선거 과정에 대한 중대한 논란의 진실을 교민 사회에 명확히 제시합니다
- **모스탄(Morse Tan)** KCPAC USA 의장: 한국 위기 상황과 구국을 위한 국제적 행동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적 환경과 자유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한 국제 사회의 공조를 역설합니다
- **전한길** 대한민국 1타강사: 위기를 넘어설 역사적 지혜와 자유민주주의의 수호
한국사 명강사가 던지는 시대의 화두! 불의에 맞선 용기 있는 진실의 외침입니다

문의: Henry Song (202) 394-7005, info@cpackorea.com, https://t.me/KCPAC_Korea

Korean Conservative Political Action Conference
KCPAC은 거짓의 시대에 진실을 수호합니다.
www.cpackorea.com



KCPAC 멤버가입

4대그룹 총수, 젠슨 황... 세계 정재계 리더 1700명 '경주 집결'

이재용·정의선·구광모, 개최식 참석
아마존·씨티·CATL 등 CEO 총출동
젠슨 황, 31일 'AI반도체' 특별연설
최태원 "APEC, 다자간 플랫폼 될 것"

글로벌 정·재계 리더 1700여 명이 천년 고도 경주에 모이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이 28일부터 3박 4일간의 대장정을 시작했다. 15년 만에 한국을 찾는 젠슨 황 엔비디아 CEO 등 글로벌 빅샷들은 물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등 해외 정상들도 대거 찾는 만큼 '산업 외교'의 장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오후 6시 경주 화랑마을 어울마루에서 APEC CEO 서밋의 첫 행사로 환영 만찬을 개최했다. 주요 참석자로 김민석 국무총리,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유정준 SK온 부회장, 이형희 SK수펙스 위원장, 성김 현대자동차 사장, 류재철 LG전자 사장, 조석 HD현대 부회장, 홍순기 GS 부회장이 자리했다. 데이비드 퍼듀 주중 미국대사 등 주한 외교사절도 함께했다.

서밋 의장을 맡은 최태원(SK그룹 회장) 대한상의 회장은 인사말에서 "경주는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함께 더 큰 사업을 일구는 좋은 장소다."

앞으로 3일간 이해와 문화를 나누고 협력할 것"이라며 "이번 APEC은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다자간 플랫폼이 돼 인류에 진정한 기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스탠딩 형식으로 90분간 진행된 만찬에선 경주 한우, 동해 전복 등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한국 전통음식부터 할랄·비건 음식까지 다양한 문화의 식음료가 제공됐다.

본격적인 일정은 29일 경주 예술의전당에서 열리는 개최식을 시작으로 3일간 진행된다. 28일 오후 찾은 예술의전당 앞은 거대한 도자기 형태의 조형물과 함께 손님맞이에 한창인 기업들로 북적였다. 현대차, 포스코, 대한항공 등 한국 기업들 외에 중국 헬스케어 기업 메보도 전시부스를 차렸다. 인근 엔 와인·전통주 페어가 차려져 전 세계 주류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됐다. 각국 정상과 글로벌 기업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만큼 곳곳에서 경찰 특공대가 폭발물 탐지견과 순찰을 돌며 경계 태세를 높였다.

CEO 서밋에는 맏 가문 아마존웹서비스(AWS) CEO, 제인 프레이저 씨티그룹 CEO, 호아킨 두아토 존슨앤드존슨 CEO, 정위권 CATL 회장, 다니엘 핀토 JP모건 부회장, 사이먼 칸 구글 APAC 부사장, 사이먼 밀너 메타 부사장, 안토니 쿡·올리히 호만 마이크로소프트 부사장 등이 참석한다. 특히 황 CEO는 마지막 날인 31일 무대에 올라 AI 반도체의 미래에 대한 생각을 밝힐 예정이다. 한국 재계 총수들도 이 기간 바쁜 행보를 이어간다. 최 회장을 비롯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주요 그룹 총수들은 CEO 서밋 개최식에 참석한다. 이들은 같은 날 저녁 한·미 관세 협상 '키'를 쥐고 있는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의 만찬에도 초청받아 자리할 예정이다. 특히 이재용·정의선 회장은 이튿날인 30일 서울에서 황 CEO와 만나 만찬을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은 이튿날인 30일 서울에서 황 CEO와 만나 만찬을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은 이튿날인 30일 서울에서 황 CEO와 만나 만찬을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글로벌 CEO들 목을 '선상호텔' 크루즈선 피아노랜드호가 28일 경북 포항 영일만항 부두에 입항하고 있다. 피아노랜드호와 이날 함께 입항한 이스타너비너스호는 오는 11월 1일까지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의 CEO 서밋에 참가하는 글로벌 경제인 약 1100명의 숙소로 사용될 예정이다.

러트닉 주최 'CEO모임'에 한·미 희토류 기업도 초청

오늘 국내 10대 기업 총수들과 만찬
29일 경주에선 한·미 정상회담 직후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 주재로 CEO 리셉션도 열린다.

한국에선 러트닉의 협상 상대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이재용 삼성 전자 회장, 최태원 SK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 회장 등 4대 그룹 총수를 포함해 10개 안팎의 기업 총수·CEO가 이 자리에 참석한다.

28일 재계 관계자는 "참석할 한국 기업은 미국 측이 직접 선정하고 접촉했다"고 말했다. 주로 인공지능(AI), 조선, 에너지, 방위산업, 희토류 등 소재

관련 기업의 총수나 CEO들이 초청을 받았다.

AI와 관련해선 미국 아마존웹서비스(AWS)의 CEO 맏 가문과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참석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고대역폭메모리(HBM)를 생산 중이고, SK텔레콤은 AWS와 함께 울산에 7조원 규모의 AI 데이터센터 구축 사업을 진행 중이다.

조선 분야에선 한화오션을 거느린 한화 김동관 부회장과 HD현대 정기선 회장, 그리고 삼성중공업 최성안 부회장이 참석한다.

에너지 기업으로는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

하는 글렌파른의 CEO 브랜든 듀발과 그 맞상대로 포스코인터내셔널 이계인 사장이 참석한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지난 9월 글렌파른과 LNG 도입 등 예비 계약을 체결한 상태다.

미국 L3해리스의 존 램보 사장의 맞상대 격 참석자는 한진그룹 조원태 회장이다. 대한항공과 L3해리스 컨소시엄은 최근 방위사업청의 항공통제기 2차 사업을 수주했다. 미국산 원유 수입 확대 관련, GS 허태수 회장도 초청받았다. 희토류와 배터리 소재 금속 정제 기술을 보유한 미국 리엘리먼트의 마크 젠슨 CEO와 전략 광물 정제 역량을 보유한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도 참석한다.

경주=윤성민·나상현 기자



젠슨 황, 맏 가문, 제인 프레이저, 나상현 기자

트럼프 8년 만에 국민 방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오전 부산 김해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며 8년 만의 국민 방한 일정을 시작한다. 이날에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역시 국민으로 방한하는데, 직후 미·중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들을 포함해 방한하는 모든 정상급 인사에게 '최고급 예우'를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김해공항 영접은 외교부 장관 또는 차관이 맡을 전망이다

다. 통상의 국민 방한 절차에 따라 의장대가 도열하고, 국가원수를 최고로 예우한다는 의미의 예포 21발 발사도 이어질 계획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6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갈 때는 전용기 '에어포스원'이 말레이시아 영공에 진입하자 공군 F-18 전투기가 공중 호위를 펼쳤다. 공항에는 전통 의상을 입은 무용단이 출동, 트럼프 대통령이 주먹을 쥐고 팔을 흔드는 특

유의 춤을 약 10초간 선보이며 화답하기도 했다.

다만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국민 의전은 최고 수준으로 진행하되, 전투기 호위나 과도한 연출 등은 자제할 방침이라고 한다. APEC 정상회의 기간 동안 21개 회원 정상과 고위급 인사들이 순차적으로 방한하는 만큼 모두 세심히 배려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직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주로 이동해 한·미 정상회담, 최고경영자(CEO) 서밋 연설 등 일정을

소화한다. 30일 일정은 미·중 정상회담 외에는 알려지지 않았다. 숙소는 경주 힐튼호텔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방한 기간 전용 리무진인 '더 비스트(The Beast)'와 전용 헬기 '마린원(Marine One)'을 번갈아 이용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에서 마지막으로 관심을 끄는 돌발 변수는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고 싶다"며 29~30일로 예정된 1박2일 방한 일정을 연장하거나 대북 제재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식으로 여지를 남겼다.

경주에서 판문점까지는 헬기로 약 1시간30분이면 갈 수 있다. 2019년 6월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 하나로 30여 시간 만에 실제 회담이 성사된 전례를 감안하면 한·미 양국 모두 경호 등 측면에서 후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의 '러브콜'에 침묵 중이다. 북한의 '뒷배'인 시주석이 방한해 트럼프 대통령과 담판에 나서는 시점에 북한이 관심을 분산시키거나 미국과 밀착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 관측이 나온다.

박현주 기자



상담분야
아동, 청소년, 성인 상담, 부부 상담, 가족 상담, 놀이치료, 모래놀이치료, 미술 치료, 표현 예술 치료, 자녀문제 컨설팅, 부모 상담, 부모 교육 및 정신 건강 관련 강의

VA 자격증 소유한 심리 치료사 구함 이중언어자 환영

HopeSpring Child & Family Clinic, LLC

희스프링 아동 가족상담소

상담진료분야
우울증, 조울증, 불안장애, 분노조절장애, 강박증, 선택적 학무증, 조현병, PTSD, ADHD, Autism, 섭식 장애, 발달장애 및 지연, 학교 내에서 문제 행동들, 부모자녀 갈등, 대인관계 갈등, 아동 학대(신체적 폭력, 성폭력 등), 가정폭력, 부부 갈등, 고부 갈등, 별거/사별/이혼/재혼 후 심리적인 어려움, 스트레스 관리법

예약 상담제 각종 건강보험 취급

3915 Blenheim Blvd., STE 23A, Fairfax, VA 22030
www.hopespringchildandfamily.com
info@hopespringchildandfamily.com



정신건강 전문가 권미경, Ph.D. (Dr. Mi-Kyong Kwon)

- ▶ 한국과 미국에서 25년 이상 임상 경험
- ▶ National Certified Counselor
- ▶ National Certified TF-CBT Therapist
- ▶ Licensed Professional Counselor & Supervisor (VA)
- ▶ Licensed Clinical Professional Counselor & Supervisor (MD)
- ▶ Licensed Professional Counselor (TX)
- ▶ Registered Play Therapist & Supervisor
- ▶ 전) 한국놀이치료학회 편집 전문위원
- ▶ 전) Kennedy Krieger Institute, Psychotherapist
- ▶ 전) Trauma Training Academy, Faculty

703-259-5617, 410-241-2520

교통사고

- 목, 허리 디스크
- 좌골 신경통
- 어깨, 무릎 통증
- 직장사고, 운동사고
- 척추 교정 및 물리치료
- X-ray, 재활운동 시설 완비

수술없이 목·허리 디스크를 치유하는 최신 디스크 감압치료 DRX 9000-C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모든 통증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 차별화된 치료로 고통에서 자유로워 지십시오!

교통 사고 후 필요한 모든 절차를 불편함 없이 도와 드립니다.

“내 가족을 보살피듯 정성을 다해 치료합니다!”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 Johns Hopkins, MBA
- Kyung Hee University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LCA Member
- VA, MD Boards License with PT Privilege
- Certified Disc Treatment Specialist.
- Certified DRX (디스크 감압치료 전문의)
- Whiplash & Brain Injury Traumatology Specialist (교통사고 치료전문)

VA 센터빌
703-815-2300
13880 Braddock Rd., #207
Centreville, VA 20121

MD 락빌
301-881-1000
12230 Rockville Pike, #250
Rockville, MD 20852

MD 엘리콧 시티
410-715-3500
8860 Columbia 100 Pkwy, #311
Columbia, MD 21045

한인 MRI+초음파 센터

T. 410-740-0055

8860 Columbia 100 Pkwy, #10
Columbia, MD 21045

한·중, 또 서해구조물 대치... 온누리호 포위·추적 당했다

(해양조선사)

한국 조선사, 중국 해경에 포위당해 귀항하는 15시간 동안 추적받기도 중국 7개월 만에 또 한국 선박 위협

중국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무단으로 구조물을 설치하며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지난달 양국이 구조물을 두고 대치한 사실이 알려졌다. 앞서 2월 중국 해경은 구조물 점검에 나선 한국 선박을 위협했는데 이와 유사한 상황이 7개월 만에 반복된 것이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27일(현지시간) 발간한 '잠정조치수역에서의 한중 대치' 보고서에서 "9월 말 PMZ를 둘러싸고 한중 긴장감이 또 한 번 고조됐다"고 밝혔다. 한국과 중국은 2000년 어업협정을 체결하며 서해에서 양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EEZ)이 중첩되는 해역을 PMZ로 설정하고 공동 관리하기로 합의했다. PMZ 내에는 어업 이외의 시설물 설치나 자원 개발 등이 금지되지만 2018년부터 중국은 양식시설이란 명분을 내세워 구조물을 설치해 논란을 일으켰다.

CSIS가 해양정보회사 '스타보드' 해양 정보의 자동식별시스템(AIS) 자료를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 9월 24일 해양수산부 산하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조사선인 온누리호는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진입했다. 그러자 약 6시간 뒤 중국 해경 경비정 한 척이 온누리호 쪽으로 접근했다. 이후 쟁다오 지역 항구에서 출발한 중국 해경 함정 두 척도 추가로 투입됐다. 이에 한국 해경도 온누리호를 지원하기 위해 해당 지역으로 경비정을 급파했다.

이튿날인 25일 온누리호와 한국 해

9월 서해 잠정조치수역(PMZ) 한중대치 상황재구성



경 경비정은 중국이 잠정조치수역에 설치한 구조물 선단 1호와 2호에 접근

했다. 온누리호가 시설 점검에 나서자 중국 해경 함정 두 척이 온누리호를 포위했다. 온누리호와 한국 해경 경비정은 구조물을 지나 귀항하는 동안 약 15시간이나 중국 함정 두 척의 추적을 받았다. 중국 함정 두 척은 한국 선박이 PMZ를 벗어난 후에야 추적을 중단했다. CSIS는 "양국 선박이 때로는 3km(1.7해리)까지 근접했다"고 했다.

CSIS는 "이번 사건은 중국이 분쟁해역에 일방적으로 설치한 구조물 주변에서 존재감을 과시하며 감시 활동을 지속하는 패턴을 보여준다"며 "지난 2월 발생한 대치 상황과 유사해 보인다"고 했다.

지난 2월에도 중국은 온누리호가 PMZ 구조물을 조사하기 위해 접근하자 대형 함정 2척과 고무보트 3척을 동원해 조사를 저지한 바 있다.

CSIS는 "중국이 PMZ 내에서 한

국 선박의 항행을 제한하려는 시도는 EEZ 내에서의 모든 외국 선박에 대한 항행의 자유를 보장하는 '유엔해양법 협약(UNCLOS)'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CSIS는 "중국의 이같은 시도는 남중국해 등에서 분쟁 수역의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해 중국이 사용해 온 회색지대 전략과 닮았다"고 분석했다. 회색지대 전략은 국가가 자신의 의도를 드러내지 않고 점진적인 방식으로 안보 목표를 성취하려는 전략이다.

관련해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중국 측의 동조기동이 있기는 했으나 직접적인 방해 없이 우리 조선사는 조사 활동을 정상적으로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리 해경도 중국 측 조사선 발견 시 동일하게 대응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전민구 기자

여야, 김현지 국감증인 채택 협상 결렬

여당 "오전국감에 출석" 제안 야당은 "사실상 불출석" 거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회 국정감사 증인 출석이 사실상 무산됐다. 여야가 28일 김 실장을 다음달 6일 국회 운영위원회 증인으로 채택할지를 놓고 협상했지만 끝내 협상이 결렬됐

기 때문이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이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28일 두 차례 회동을 통해 국감 증인 문제를 논의했지만 김 실장 문제는 평행선을 달렸다. 문 수석은 "김 실장을 다음달 6일 오전 중 출석시키는 것을 제안했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 일정이 있어 지회가 오전 중에 하겠다고 한 건

데, 국민의힘은 받아주지 않았고 합의는 결렬됐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오전 출석도 많이 양보한 것"이란 입장이다. 문 수석은 "국민의힘에서 김 실장을 부른 이유가 총무비서관 재직 시절 인사 관련 질의를 한다는 것이었다"며 "그렇다면 못 부른 이유는 없다고 (민주당이)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김 실장 한 명을 부르기 위해 '남편까지 부르겠다'고 한다"며 "심한 게 아니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김 실장 남편은 (김 실장이) 성남시 재직 시절과 관련해 물어보겠다고 한다"며 "야당 입장에서 어떻게 정쟁으로 끌고 갈 건지 고민해 증인을 채택하려 한다. 국감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유 수석은 "김 실장이 출석하면 오전에 각종 업무보고가 진행되고,

사실상 한 시간밖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는 것"이라며 "(김 실장 오전 출석 제안은) 형식적으로 명분 쌓기용에 불과하다. 적어도 주 질의 시간 만큼은 김 실장이 (국감장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실장은) '존엄 현치'라고 할 정도로 실제 중의 실세"라고 했다. 국감 증인을 채택하는 운영위 전체회의는 29일 열린다. 하지만 여야의 입장 차가 커서 협상 타결 가능성은 작다는 전망이다.

조수빈 기자

"도와달라" 장애인개발원장 국감 호소에 "여야가 도와야겠다"

이경혜 한국장애인개발원장은 28일 예산이나 인력 등 장애인 지원 사업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부족한 데 대해 "국회의원들이 도와주셔야 한다"고 호소했다.

여야 의원들은 '여당이 아니라 힘들다', '야당 의원도 할 수 있다' 등 서로 웃으면서 말을 주고받으며 도움을 약속했다. 이 원장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장애인 관련 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이 원장은 '국제 장애인 협력 공모 사업이 중단됐는데, 내년에는 다시 살릴 수 있느냐'라는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의 말에 "의원님이 도와주시면 살아날 수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그냥은 살리지 못하고, 저는 여당도 아니다"라고 말하자 국감장에서는 웃음이 터져 나왔다. 국제 장애인 협력 공모 사업이란 보

건복지부와 장애인개발원이 함께 진행한 국제 사업으로, 민간 부문과의 파트너십 사업 공모를 통한 교육·훈련, 초청 연수 등 장애 분야 글로벌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다.

이 원장은 "그러지 않아도 국내 장애인단체를 대상으로 한 국제 협력 공모 사업이 없어져서 현장에서 많이 아쉬워한다"며 "의원님께서 도와주셔야 한다"고 재차 요청했다. 질의가 끝나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은 "김 의원도 마음만 먹으면 하실 수 있다"고 답했다.

이 원장의 적극적인 호소는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서도 이어졌다. 이 원장은 '강원도 내 춘천 지역 발달장애인센터에서 삼척시청까지 거리가 214km로, 2시간 27분이나 걸리는 등 장애인 맞춤형 지원 체계가 부족하다'는 한 의원의 지적에 "지역센터의 현실



김현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이자 가장 큰 문제"라며 "인력 확충이 시급해서 복지부와 의논하고 있지만, 해결이 잘 안된다. 의원님께서 도와달라"고 통사정을 했다.

한 의원은 발언 시간 종료로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 "현금성 지원은 체감할 수 있지만, 예산이나 인력 지원은 그

렇지 않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보이지 않는 예산이나 인력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견 여당 의원들도 함께하면 다 가능하다"고 해 다시 국감장에서는 웃음이 새 나왔다. 이에 박 위원장은 "이경혜 원장님이 자심하고 나오신 것 같다"며 "여야 의원들이 많이 도움을 드려야

했다"고 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의 주된 질의 대상은 아동권리보장원이었다.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은 입양인 인권 침해, 각종 기록물 관리 소홀 등 질타가 이어지자 "송구하다", "유감스럽다"며 진땀을 뺐다.

정 원장은 이날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 결과 해외 입양 과정에서 다양한 인권침해가 있었고, 이재명 대통령도 이에 대해 사과했는데 원장의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지적에 "입양인들의 상처 등에 대해 광장히 유감스럽고,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 원장은 끝이어서 "그런 의미에서 입양정보 공개 청구 서비스 등을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입양 당사자들로부터 입양기록물 보관과 공개에 관해 여러 차례 지적을 받았다.

★ 추천이 꼬리를 무는 부동산

★ **갤럭시부동산** GALAXY REALTY

★ 최근에 마켓에 올리지 않고 주인 *세입자 바로 연결한 집 (렌트 구하는 분도 환영함. 갖고 있는 집도 많음)

로리 정
갤럭시부동산 대표 에이전트

주소	기간	세입자
울거울/4년 봄에 파던 나을 주택임 30여명 있음, 렌트 놓을 집 갖고 있는 집 주인 환영	10월 ~ 내년 1월 입주 예정	\$2,000 ~ \$5,500 가격대 렌트
7608 Lee Landing Dr, Falls Church, VA	1+1년	\$2,600 가격 넘치는 세입자 연결
2901 Gettysburg Sq, Vienna, VA	2년	주재원, 지난 6년간 세입자도 로리 손님. 이번에도 마켓에 내놓지 않고 바로 연결 + 렌트 완료
8220 Crestwood Heights Dr, McLean, VA	2년	주재원, 공항에서 바로 입주
8380 Greensboro Dr, McLean, VA	3년	주재원, 공항에서 바로 입주
1645 International Dr, McLean, VA	1년	주재원, 공항에서 바로 입주, 1년 렌트는 잘 안 주는데, 주인속 에이전트를 잘 아는 사람이랑 받아줌.
11828 Dinwiddie Dr, Rockville, MD	3년	주재원, 세입자, 특히 가족이 좋아함
14010 Tanners House Way, Centerville, VA	3년	주재원, 이전 세입자 4년 살고, 하루의 공실 없이 3년 렌트 이어감

사무실 (703) 622-0312 직통 (703) 625-9909

1952 Gallows Rd, #102, Vienna, VA 22182
(타이슨스 DMV 옆, 한미과학재단 1층)

김원근 변호사

재판·소송

Weon G. Kim
VA, MD, DC Attorney at Law

- 민사·형사·이혼·강제집행·공사관련·세입자분쟁·비즈니스·프랜차이즈 분쟁·세금분쟁
-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가정폭력·범죄기록말소·임금 연장근로수당·경업금지 소비자 보호법 명예훼손·자동차 교통사고·산재보험·화재보험·자동차 보험·각종 보험사고 기타 각종 재판 및 소송처리

TEL: 571-278-3728

8200 Greensboro Dr., #900
McLean, VA 22102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부녀 무죄…재판부 “검찰 자백 강요”

16년만에 재심, 존속살해 누명 벗어 허위조서에 유도신문 위법성 인정 부친 백씨 “기가막혀 말도 안 나와” 박준영 변호사 “검찰, 대법도 속여”

2009년 7월 발생한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중형이 확정됐던 부녀(父女)가 사건 발생 16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광주고법 형사2부(부장 이의영)는 28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형이 확정됐던 백모(75)씨와 백씨의 딸(41)에 대한 재심에서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백씨 부녀는 2009년 7월 6일 순천시 한 마을에서 청산가리가 섞인 막걸리를 마시게 해 아내이자 어머니 A씨(당시 59세) 등 주민 2명을 살해하고,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백씨 부녀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백씨와 딸에게 각각 무기징역,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2년 3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후로도 재심을 신청한 끝에 지난해 1월 재심 개시가 결정됐다.

재심 재판부는 검찰 수사의 위법성을 무죄 판단 근거로 제시했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의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조서의 허위 작성과 자백 강요 등이 있

었다”고 지적했다. 또 부녀간 부적절한 관계가 A씨를 살해한 동기였다는 피고인들의 진술 등은 허위 자백으로 판단해 증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이날 “딸 백씨는 지적 능력과 학력 등을 살펴볼 때 지능지수 74점 정도의 경계성 지능을 가졌다. 그럼에도 여러 진술조서 작성 시 신뢰관계자의 동석이 이뤄지지 않은 점, 진술 거부권이 고지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유도신문을 했음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아버지 백씨에 대해서는 “초등학교를 중퇴해 비교적 쉬운 글자 정도만 읽을 수 있는 학력 수준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모든 조서를 백씨에게 읽어 주거나 확인해줬다는 자료가 없어 형사소송법상 열람권 보장이 안 된 조사로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폐쇄회로TV(CCTV) 영상 등 증거물의 미제출, 현장검증에서 재현한 청산가리 투여량과 정밀 분석을 통해 추산한 실제 희석량간 차이 등을 무죄 판결의 근거로 제시했다.

아버지 백씨는 무죄 선고 후 “(검찰의 강압수사는)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온다. 수사관이 제일 나쁜 사람”이라며 “(검찰 수사 당시) 대질신문을 요구하면 (옆에 있던 사람에게) ‘뺨을 때려버려라’라고 (위협)했다”고 말했다.

백씨 딸도 “검찰 수사 과정에서 수사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부녀가 28일 광주고등법원에서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기자회견 하고 있다. 이들은 2009년 청산가리를 넣은 막걸리를 아내와 주민들이 마시게 해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과 징역 20년 형을 선고받았으나, 이날 무죄를 선고받았다.

관들이 아버지에게 음박지르는 등 강압 수사가 이어졌다”고 말했다.

백씨 부녀의 법률 대리인인 박준영 변호사는 “백씨 부녀는 아내이자 어머니를 죽였다는 낙인 속에서 16년을 버텨야 했다. 특히 ‘부적절한 부녀 관계’라는 검사에 의해 만들어진 참혹한 낙인이었다”며 “(검찰의) 증거 조작은 당

시 판사를 속였고, 대법원까지 속였다”고 했다.

사건을 담당한 검사와 수사관 등은 재심이 재개된 후에도 수사 절차에 문제가 없었음을 강조해왔다.

당시 수사 검사 B씨(49)는 지난 8월 19일 재판 결심공판에 출석해 “피고인들의 진술을 미리 정해놓고 짜 맞춘 수

사가 아니었다”며 “(딸이) 아빠 ‘짐승’이라고 표현한 자술서 내용 등을 지금도 기억한다. 부녀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왔다는 경찰의 관련 범죄 첩보도 있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재심 판결문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상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경호 기자

뇌졸중 남편 18년간 간호한 70대...4명에 새 삶 쥐

뇌졸중으로 쓰러진 남편을 18년 동안 간호해 온 70대 여성이 장기기증으로 4명에게 새 삶을 선물하고 세상을 떠났다.

지난 28일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지난 8월16일 계명대 동산병원에서 제명순(76·사진)씨가 뇌사 장기기증으로 폐와 간, 양쪽 안구를 기증하고 영면했다고 밝혔다.

제씨는 지난 8월11일 오전 의식이 없는 채로 남편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뇌사 판정을 받았다.



유족은 제씨가 다른 사람을 돕던 착한 사람이었기에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고 떠나기를 바라는 마음에 장기기증을 결심했다.

경북 성주군에서 2남 1녀 중 둘째로 태어난 제씨는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으로 사람들과 어울리기 좋아했다고 한다.

결혼 후 가정주부로 생활하던 그는

지난 2008년 뇌졸중으로 편마비가 와서 거동이 불편한 남편을 간호해왔고 보육원 등에서 봉사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제씨의 아들은 마지막 인사로 “아직도 집 안의 물건들을 보면 엄마가 문득 문득 생각한다”며 “엄마가 남김 따듯함을 느끼면서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겠다.”

이제는 모든 아픔을 내려놓고 그곳에서 편히 쉬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정상을 감안해서 집행유예 기

장나라 총 200억 기부 금융의 날 대통령 표창

배우 장나라(사진)가 28일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서울 FKI타워에서 열린 제10회 ‘금융의 날’ 기념식에서 총 192점의 유공 포상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대통령표창은 장나라와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 광주광역시 북구 등 총 15인 및 3개 단체에 돌아갔다. 장나라



는 데뷔 후 200억원 이상을 기부하며 나눔 문화를 확산시킨 공로를,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은 인공지능(AI) 플랫폼 소프트웨어를 일본에 수출하는 등 금융산업 디지털 혁신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한영혜 기자

2주 새 음주운전 2번, 음주측정 거부...전직 검사 항소심서 감형

2주 동안 총 두 차례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남부지검 출신 검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2부(부장판사 김지숙 장성훈 우관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음주운

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남부지검 검사 김모(38)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형이

무겁다고 항소했는데, 피고인이 연이어서 두 번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공직자로서 책임이 있는 점 등을 비취보면 1심의 형은 징역형을 유지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상을 감안해서 집행유예 기

간을 단축하기로 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남부지검 소속 검사였던 김씨는 작년 4월 13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음주 단속에 걸렸으나 “병원에서 체할하겠다”며 호흡 측정을 거부하고 순찰차로 병원에 이송된 뒤엔 현장을 이탈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같은 달 25일에도 양천구 목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신호등을 들

이받았다. 당시 김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77%로 조사됐다. 한편 법부부는 지난해 11월 김씨에 대한 해임 처분을 내렸다.

정세내 기자

집수리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먼저 저렴하게 수리해 드리고 팔아 드리겠습니다!!

▶ NVAR Top Producer
▶ Zillow Premier Agent
▶ Top 15% Nationwide Agent by Homesnap

클립턴 싱글홈

\$1.5M

방5/화4.5/차고3, 1.05 에이커 새 지붕, 새 HVAC

센터빌 타운홈

\$2,900

방3/화2.5/차고1, End Unit 업그레이드 많이 함, 굿로케이션

스프링필드 타운홈

\$3,000

방2/화2.2, 2 Assigned 밝고 환한집, 업그레이드 많이함, 교통편리

COMING SOON

센터빌 타운 \$700,000 방3, 화2.2, 차고2

비엔나 콘도 \$325,000 방1, 화1

“여전히 매물이 부족합니다. 동네 최고가로 팔아드리겠습니다.”

김경아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김경아 부동산 703-919-0472** jennetpro4u@gmail.com

신성재 변호사

경기 침체로 어려운 시대에 당신이 믿을 수 있는 최고의 변호사.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지킬 것은 지켜 드립니다. 파산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난 10년간 1,000건의 파산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해결한 믿을 수 있는 로펌.

교통사고 / 최대보상

개인상해 보상청구

Chapter 7: 개인 파산

Chapter 13: 개인 파산-Payment Plan

비즈니스 관련 민사 소송

교통사고 최대보상! 소송전문 변호사들이 약속 드립니다.

아무리 작은 케이스라도 법원에서 끝장을 보는 근성 있는 변호사들!

같이 일하실 사무장 구합니다. 전화 또는 이력서를 이메일 sjshin.esq@gmail.com 으로 보내주시십시오.

DC LAW GROUP
LEGAL COUNSELORS

VA 571.999.2755
4326 Evergreen Ln. #C Annandale, VA 22003

MD 301.775.2774
630 E. Diamond Ave, Suite F Gaithersburg, MD 20877

Regina Domingo Esq. | Chris Shin Esq. | Robert Harris Esq.

Hours: Mon-Fri (10:00 ~ 18:00)
E-mail: sjshin.esq@gmail.com / Fax: 240.775.3004

Exquisite All-Brick Colonial in Prestigious Kensington Square



SOLED

풍격 있는 살의 무대, 컨싱턴 스퀘어의 가장 빛나는 코너 자... 주벽은 약 4... 피트의 정제... 에 세 층으로 펼쳐집니다. 웅장한 2층 높이의 현관과 10피트 천장은 입구에서부터 천연... 과 맞춤 목공... 래식한 우드... 화를 이루어 집 안 전체에 세련된 아름다움을 더합니다.

주방은 그 자체로 예술의 공간입니다. 고... 조리대와 스테인리스... 와인 냉장고... 과 가스레... 벽히 갖춰져 있으며,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아침 식사... 장의 아늑한... 가 어우러져 일상 속... 연출합니다.

위층의 메인 스위트룸은 전... 스로, 우아... 천장과 조용한 휴... 개... 스타일 욕실은 고급스러운 제트 샤워기와 깊은 욕조, 이... 이빗 스파처럼 즐... 합니다. 욕실을 공유해 가족 모두에게 편리함을 제공합니다.

지하층은 사고와 여가를 위한 완벽한 무대... 니... 형 오락실, 프라이빗 게스트 스위트까지 갖춘 이곳은 방문객을 환대하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외부로는 트랙스 스타... 테크... 로 둘러... 사이드 진입식 2대 차고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HOA 관리 서비스는 조경, 재설, 커뮤니티 편의시설을 포함하여 주거의...

이 집은 단순히 '사는 공간'이 아... 고 들어서는 순간부터 느껴지는 고요한 평온과 안락함, 아침 햇살 아래 커피를 음미하는 여유, 저녁 백난로 앞에서의 따스한 휴식이 일상을 특별한 휴양으로 바꾸어 드립니다.

패어팩스 최고의 명소 Fair Oaks Mall, Fairfax Corner, Wegmans, Whole Foods, Reston 및 Fair Oaks 병원, 그리고 명문 Fairfax 카운티 학군이 단 몇 분 거리에 있으며, 주요 고속도로에도 탁월한 접근성을 자랑합니다.

이곳은 단순한 주택이 아닙니다. 우아함과 품격, 그리고 기쁨이 일상이 되는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의 시작입니다. **Fairfax \$1,199,900**



대표 정희수
703.477.3114

성실을 실천하는 부동산!
행복 가득한 편안한 집을 소개합니다!
내집 마련의 꿈! 현대 부동산이 함께합니다!
상담환영 (집 파실 분·사실 분·경매)



Principal Broker 세리 리
703.244.6526

우리말 바꾸기

그리고 나서

“그저 메일 쓰고 있는 힘껏 읽어라.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자.” 우주의 음유시인으로 불리는 공상과학소설가 레이 브래드버리의 말이다.

글쓰기에 관해 조언할 때 자주 인용되는 그의 말을 잘못 옮기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나서’는 ‘그리고 나서’로 고쳐야 바르다. 그렇게 하다는 뜻의 동사 ‘그러다’(그러하다는 준말)에 어미 ‘-고’와 동작의 완료를 나타내는 ‘나다’의 활용형이 연결된 구조다. “체코 작가 보후밀 흐라발은 철도원, 보험사 직원, 제철소 잡부, 연극배우 등 다양한 직업을 거쳤다.” “마흔이후에 소설을 쓰기로 결심한다.” 이들 문장을 이을 때도 마찬가지로. 많은 직업을 전전하다가 뒤늦게 작가가 되기로 마음먹었다는 의미다. ‘그리고 나서’가 아닌 ‘그러고 나서’로 연결해야 한다.

‘그리고’ 뒤에 ‘나서’를 사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 ‘나서’ 앞엔 동사만 올 수 있어서다. ‘그리고’는 단어·구·절·문장 등을 병렬적으로 연결하는 접속부사다. ‘나다’는 동사 뒤에서 ‘-고 나다’의 구성으로 쓰여 앞말이 뜻하는 행동이 끝났음을 나타내는 보조동사다. 본동사 뒤에 오는 것이 보조동사이므로 ‘나다’의 활용형인 ‘나서’ 앞엔 동사가 와야 한다. “그 과정을 거치고 나서” “작업을 마치고 나서”와 같이 ‘나서’ 앞엔 거치다, 마치다 등의 동사가 놓인다.

독자 참여를 기다립니다

한인커뮤니티를 위한 제언, 신문을 보고는 긴 점, 문예작품, 독자투고 등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워싱턴 중앙일보 편집국 오피니언 담당자: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이메일: dc.thekoreadaily@gmail.com 전화: 703-281-9660

◆오피니언은 본지 편집방향과 관련이 없습니다.

중앙일보 The Korea Daily
dc.koreadaily.com

대표전화 : 703-281-9660
(광고·구독 문의 및 기사제보)

발행인 김영천
편집국장 홍일범 광고국장 송동윤

2001년 9월 22일 창간
7023 Little River Tpk #310, Annandale, VA 22003

본사 전채 계약 제휴사
한국중앙일보, Washington Post

Washington Joongang Newspaper inc. is not a branch office of Koreadaily, subsidiary or franchise of the company, but a licensee of the content of the company.

발언대

프로포지션 50, 민주주의의 시험대



정 레지나
LA독자

11월 4일은 캘리포니아주 특별선거일이다. 주민들은 “선거구 재조정 권한을 주 의회로 넘길 것인가”라는 단 하나의 질문에 답해야 한다. 찬반의 결과는 내년 중간선거의 연방 하원 구도는 물론 미국 정치의 균형에 영향을 미치고, 의료, 이민, 교육, 환경 등 생활 전반과 직결된다.

선거구 조정은 원칙적으로 10년마다 인구조사 결과에 따라 이루어진다. 그러나 올해는 이 원칙이 정치적 이해에 따라 흔들리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텍사스 주지사와의 의회에 공화당 의원 5석을 늘릴 수 있는 선거구 지도를 추진하라고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실제로 텍사스는 5석을, 미주리 주는 1석을 추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노스캐롤라이나, 인디애나, 캔자스 등도 뒤이어 움직이고 있으며, 공화당 지도부는 이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백악관 회의를 열고 공화당 우세 주들을 방문하고 있다.

이에 대응해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민주당 의석 5석을 늘리는 선거구 재조정을 제안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는 2008년 이후 게리맨더링(선거구 조작)을 금지했고, 2010년부터는 독립 시민위원회가 초당적으로 선거구를 관리해왔다.

따라서 선거구 조정을 하려면 주민투표를 통해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절차가 바로 ‘프로포지션 50’이다.

이 안건이 통과되면 시민위원회가 일시적으로 해산되고, 선거구 재조정 권한이 주 의회로 이관된다. 위원회는 다음 인구조사 이후인 2031년에 임무를 재개한다.

공화당은 이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민주당의 권력 확장 시도”라고 비판하며 뉴섬을 집중 공격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공화당의 맹목적 추종과 대통령의 무차별 권력 행사에 제동을 거는 기회”라고 주장하며, 찬성 캠페인의 전국적 확장을 꾀하고 있다.

게리맨더링은 정당의 이익을 위해 선거구를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행위다. 공화당 우세 주에서는 투표권 보호를 받지 않는 민주당 선거구를 통합해 주 축소하고, 민주당 우세 주에서는 투표권으로 보호받는 선거구를 그대로 두면서 민주당에 유리한 선거구를 더 많이 그리려는 것이다. 캘리포니아 민주당이나 텍사스 공화당이 모든 의석을 게리맨더링 하지 못하는 이유는 ‘주 헌법’과 ‘1965년 투표권법’의 제약 때문이다.

이 법은 특히 남부의 짐 크로우 법에 대한 대응책으로, 인종, 언어 소수집단을 보호하고 특정 지역 분할을 방지하며, 연방 정부에 감독권을 부여한다. 그러나 현재 연방 대법원은 투표권법 제2조의 효력 축소를 검토 중이다.

만약 인종을 고려한 선거구 설정이 금지된다면, 내년 중간선거는 물론 선거 지형 자체가 뒤집힐 수 있다.

프로포지션 50은 상대가 규칙을 어겼을 때의 대응 방식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미셸 오바마가 제안했던 것처럼 품위 있게 대응할 것인가, 아니면 같은 방식으로 맞설 것인가의 문제다.

선거구 재조정 시민위원회 위원인 이스라 아흐마드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유권자의 의견을 묻는 뉴섬의 시도는 공정하며, 상대와 같은 규칙에 따라 싸워야 한다”고 말한다.

프로포지션 50은 나쁜 선택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공화당이 입법, 사법, 행정부를 독식하는 트라이팩트(완전 집권 체제)를 불공정한 방식으로 유지하려는 동안 민주당이 손을 놓는다면 이 또한 직무유기다.

투표권법마저 무력화될 위기 속에서, 캘리포니아는 지금 민주주의 이상과 현실 사이의 불가피한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

완벽한 해법은 아니지만, 균형을 위한 최소한의 대응, 그것이 바로 프로포지션 50의 의미라고 할 수 있다.

이야침에

도둑, 싯다르타, 발레 이야기



김 최
한미무용연협회회장
진발레스쿨 원장

한 달 전이었다. 주말 오후, 가족들과 저녁식사 후 쇼핑을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그사이, 세 명의 도둑이 내 집에 들어와 모든 걸 훔쳐갔다. 경찰도 오고 CCTV도 있었지만 소용이 없었다.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장갑을 낀 그들은 놀라움만큼 기민하고 철저했다. 내 옷장, 서랍, 작은 상자들까지 다 뒤져 오랜 세월 모아온 가방과 결혼예물,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시간과 추억들을 한순간에 쓸어버렸다.

도둑맞은 그날 이후 한동안 아무것도 하기 싫었다. 모든 게 귀찮았고, 몸은 움직였지만 마음은 멈춰 있었다. 훔쳐간 도둑들을 원망했고, 미워했고, 화가 났고, 허무했다. 한 달이 지나도록 그 감정이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문득 생각했다. ‘나는 무엇에 그렇게 집착하며 살았던 걸까?’ 문득 법정 스님이 탁상시계를 도둑맞았던 일화가 생각났다. 나도 스님처럼 답답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니, 아니었다.

내가 스스로 내려놓는 것과 남의 손에 의해 잃

는 것은 전혀 다른 무소유의 개념이다. 그렇지만 그 상실감은 오히려 나 자신을 다시 들여다보게 했다. 마침 9월의 독서 모임 책 주제가 헤르만 헤세의 『싯다르타』였다. 왕의 아들로 태어나 모든 것을 가졌던 싯다르타는 세속의 풍요를 버리고 깨달음을 찾아 떠난다. 그의 여정 속 백사공바수테바는 말한다. “강은 모든 것을 가르쳐준다. 강에는 모든 것이 있다.”

그 구절을 다시 읽으며 생각했다. 이번 일은 어쩌면 나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강의였지도 모른다.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멈추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이제는 조금 내려놓고 비워야 한

다’는 강의 목소리가 마음속에서 들렸다. 나에게 발레도 그랬다. 몸은 늘 무대 위에 날고 있었지만, 마음은 멈춰 있었다. 완벽한 자세보다 중요한 것은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는 힘이다. 발레는 내 안의 상실과 고통을 품는 예술이며, 그 속에서 다시 나를 일으켜 세운다.

도둑맞은 허무한 마음에 여기저기 하소연하듯 이야기를 꺼냈더니, 의외로 도둑을 맞은 사람들이 정말 많았다. 열 명 중 네 명은 한 번쯤 그런 경험이 있었다. 그제야 알았다. 이것이 나 혼자만의 상처가 아니라는 것을.

누구에게나 상실은 찾아오고, 그때마다 삶은 우리에게 비우는 법을 가르친다. 나는 도둑에게 빼앗기고, 싯다르타에게 배우고, 발레로 다시 일어난다. 나는 여전히 완전하지 않다. 그러나 그 불완전한 속에서 배운다. 잃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깨달음의 시작이었다.

강이 흐르듯 내 삶도 흐른다. 그리고 언젠가 나도 바수테바처럼 조용히 웃으며 말하리라. “이 모든 일은 나에게 필요한 배움이었노라.”

맛있는 용자의 달인

마이클 장

달인과 함께하면 용자도 행복해집니다

주택용자
상업용자
재정상담

410-370-4229 · 301-275-1494

EMET, Inc
NMLS #201332

<p>1. 센터빌 벙커 타운 \$589,000</p> <p>Under Contract</p> <p>방3, 화2.5, 차고1, Hmart 인근, 29/Braddock/28/66</p>	<p>4. 사우사라이팅 타운 \$645,000</p> <p>Under Contract</p> <p>2014년, 방3, 화2.5, 차고2, RT50/606, Dulles Airport, RT28</p>	<p>7. 우드브리지 싱글 \$649,000</p> <p>Under Contract</p> <p>1997년, 방4, 화3.5 차고1, 빛을 최고 학교, 전부 리모델링 포트맥 몰/RT95, RT1, RT234, 디씨출근 편리</p>
<p>2. 애쉬번 타운 \$670,000</p> <p>방4, 화3.5, 차고 2, 최고 학교, RT267/7, 멀리서 공항</p>	<p>5. 게인스빌 골프 싱글 SOLD \$1,060,000</p> <p>게인스빌 레이크 매나사스 Stonewall Golf Club 내 럭셔리 싱글</p>	<p>8. 도미니언 밸리 컨트리 클럽, 하이 마켓 싱글 \$1,699,000</p> <p>1에이커 숲속, 6,700sqft, 방5, 화 5.5, 차고3 신롭, 고급 조명, 트레이 천장, 스파 욕실, 드레스룸 인모우 스위트, 미디어룸, 게임룸, 바 포함, 최신 HVAC, 정수 시스템</p>

황계실 571-239-6054

고객만족 17년!
확실한 부동산 전문가!

매매 / 리스 전문
주택·건물·오피스·창고·상가

부동산전문 브로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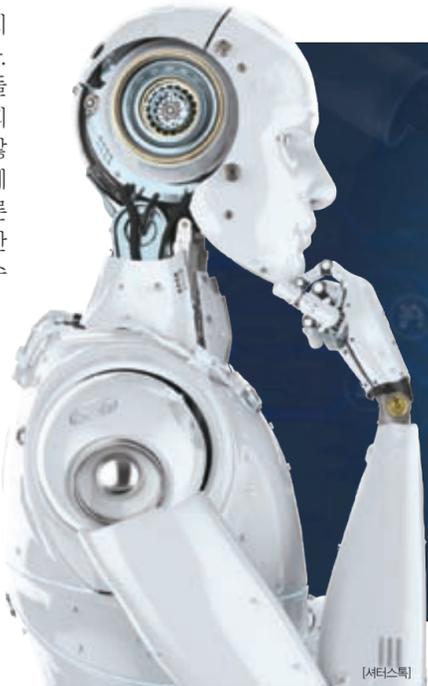
GSHwang Realty

아외 리조트 스타일 \$460K 업그레이드

(아외 주방, 벽난로, 연못, 분수, 테크, 음향 시스템 등) 골프장, 클럽하우스, 수영장, 테니스, 산책로, 최고 학교

자기 변조 기능 막으면 AI 통제 가능하다

21세기 우리 인류는 과거 경험해 보지 않은 문명사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인공지능(AI)이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호모사피엔스는 20만 년 전에 출현한 이후 수많은 도구를 개발해 사용해왔다. 그런데 지금 대두하는 AI는 기존 도구와 다른 점이 있다. 기존의 도구들은 인간이 만든 기능만 수행해 '수동적'이라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새로 나타난 도구인 AI는 스스로 변화하고 진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AI 소프트웨어는 스스로 자기 복제가 가능하고, 또한 스스로 프로그래밍이 가능하다. 처음 만들어질 때의 기능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변화해 새로운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AI는 '능동적'인 도구라 말할 수 있다. AI는 능동적으로 변해 인간이 시키지 않은 위험한 일을 할 수 있다. 이점이 바로 우리 인간에게 위협이 되고 있다.



※ AI를 자기변조가 불가능한 수동형으로 만들면 현재 인간이 감당하고 있는 위험수준으로 관리 가능

우리 인간이 개발한 도구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 '불'일 것이다. 인간이 불을 이용함으로써 추위를 견딜 수 있게 됐고, 음식을 익혀 먹어 고단위 영양 섭취가 가능해졌다. 그 외에도 철기와 전기 이용 등은 인간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꿔줬다. 또한 20세기에는 원자핵 분열 기술을 개발해 이용하고 있다.

범위 내의 일이다. 둘째 목적인 테러와 전쟁은 현재도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 경우에도 국제 공조에 의해 피해 범위는 제한적이다. 원자 폭탄의 경우에는 자체 파괴력이 스스로 자체력을 가지기도 한다.

성한 프로그램 언어는 이해하지 못하고, 기계어만 이해해 실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인간은 기계어를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AI가 기계어로 바뀌어 실행 파일이 되면 인간은 그 내용을 바꿀 수 없다. 다시 말해 AI를 스스로 변조하지 못하도록 '불입수술'을 해버리는 것이다.

의 경쟁처럼 될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합리적인 AI 제품은 실행 파일 형태로만 유통된다. 기계어로 된 실행 파일 형태로만 유통되면 누구도 제품의 기능을 바꿀 수 없다. AI 스스로 변조하지 못하고, 사람이 바꿀 수도 없다. 즉 '불입수술'로 능동형 도구를 수동형 도구로 바꿔 버리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AI를 수동적인 도구로 바꾸면 그 위험성은 기존의 수동적 도구들(불·칼·원자력 등)과 비슷한 수준이 된다. 현재 우리가 감당하는 수준으로 AI 위험성을 낮출 수 있다는 말이 된다.

에 수동형 AI가 탑재돼 무인화 무기가 되고, 살상 능력도 대폭 확대될 것이다. 하지만 어느 나라가 AI 무기를 사용할 때에는 상대방도 비슷하게 대응할 것이다. 전쟁에서는 사람은 거의 없이 AI끼리 상대방의 무기를 파괴하는 전쟁이 될 것이다.

한편 자기 변조 기능을 가진 능동형 AI 무기 출현을 상상해 볼 수 있다. 무기가 스스로 진화해 무차별 살상할 위험성이 있다. 그러나 이런 무기는 통제 불가능한 무기가 돼 아군에게도 위험하다. 따라서 이런 능동형 무기를 사용할 국가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결국 가장 위험한 전쟁에서도 수동적인 AI 무기만 사용될 것이기 때문에 그 위험성은 현재 우리가 견디고 있는 수준이 될 것이다. 물론 연구실에서는 모든 형태의 AI가 시도될 것이다. 이것들의 위험성도 예상된다. 하지만 이것은 현재 실험실에 있는 병원균에 비유할 수 있다. 실험실의 병원균은 외부 유출을 차단해 관리하고 있다. 결국 실험실 AI도 현재 우리가 감당하는 수준으로 관리 가능하다는 말이 된다.

21세기 우리 인간에게 다가온 도전인 AI도 차근차근 따져보니, 그다지 불안해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어느 경우에도 현재 우리가 감당하는 수준으로 관리가 가능하다는 결론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AI 제품의 검사 제도를 도입하고, 자기 변조하는 코드를 탐지하는 기술의 개발이 급선무가 될 것이다.

이광형 KAIST 총장

AI의 수동적 도구화 필요

이상에서 살펴본 현존 위험 도구를 우리 인간이 관리할 수 있는 이유는 이 도구들이 '수동적'이라는 점이다. 이런 수동적인 도구들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위험을 관리할 수 있다. 즉 인간의 의지만 있으면 관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새로 대두한 위험 도구인 AI는 스스로 변하고 진화해 '능동적'인 면이 있다. 인간이 아무리 잘 관리하려 해도 이것들이 스스로 변해 위험한 일을 벌이면 문제가 된다. 우리는 여기서 AI 관리의 힌트를 얻을 수 있다. AI를 수동형 도구로 바꾸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말이 된다. 만약 AI를 수동형 도구로 만들 수만 있다면 기존의 불·칼·원자력을 다루듯이 관리하면 된다는 말이다.

AI를 포함한 프로그램에는 두 가지 파일이 있다. 소스코드(source code) 파일과 실행(execution) 파일이다. 소스코드 파일은 인간이 '프로그램 언어'를 이용해 작성한 파일이다. 그런데 이러한 프로그램을 실행하려면 '기계어'로 번역해야 한다. 기계는 인간이 작

자기 변조 안 되는 시판 허용

AI가 인간에게 위협이 되는 것은 이것이 스스로 변조(자기 복제 또는 자기 프로그래밍)되고 진화한다는 점이다. 그런데 현대 소프트웨어 기술은 프로그램의 자기 변조 코드를 찾아낼 수 있다. 현재 컴퓨터 바이러스 퇴치 연구의 핵심이 바로 이것이다. 한편 현재 우리 사회에 유통되는 거의 모든 제품은 유해성 검사를 통과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은 물론이고 전자 제품도 모두 검사에 합격해야 시판이 가능하다.

앞으로 많은 AI 제품이 시중에 나올 것이다. 온라인 거래 AI에서부터 로봇과 자율주행차 AI 등으로 매우 다양한 제품들이 나올 것이다. 그런데 이것들이 시장에 나올 때는 의무적으로 유해성 검사를 통과해야 할 것이다. AI가 자기 변조 기능을 가지면 이 검사를 통과할 수 없다. 이런 검사는 컴퓨터 바이러스 탐지 기술과 유사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AI 자기 변조 코드를 숨겨서 검사를 통과하려는 시도도 있을 것이다. 이 상황은 현재 바이러스 퇴치에서 창과 방패

이러한 AI 관리 방식은 국제 무역에서도 적용될 것이다. 이미 식품·의약품이나 전자제품·자동차도 나라별로 비슷한 안전 기준을 정해 수출입 시에 적용하고 있다. 수동적인 도구로 전환된 AI도 비슷한 방식으로 국가 간의 거래가 이뤄질 것이다.

테러나 전쟁에서도 위험 관리 가능

또 다른 위험 도구 사용의 예로 테러와 전쟁이 있다. 현재 테러나 전쟁에서는 불과 칼을 사용해 피해를 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반칙적인 도구 사용은 국제 공조에 의해서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테러분자들이 능동 AI를 불법적으로 유통하거나 온라인에 전파할 수 있다. 이것은 현재 바이러스와 해킹 방지 기술과 유사하기 때문에 비슷한 수준으로 위험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또한 전쟁에서 AI를 무기로 사용할 것이다. 기존의 총·대포·미사일·항공기

인간이 만든 도구의 양면성

대부분의 도구는 양면성이 있다. 잘 사용하면 문명의 이기이지만, 잘못 사용하면 크게 위험한 도구가 된다. 불은 화재를 유발할 수 있고, 철로 만든 칼은 살인 도구가 될 수 있다. 불과 칼은 전쟁 무기가 돼 수많은 인명을 살상하기도 한다. 원자력 발전은 현재 이 글을 쓰는 컴퓨터에 전기를 공급해 주기도 하지만, 원자 폭탄은 대규모 인명을 살상할 수 있다. 이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이러한 도구를 잘 관리·활용해 현대 문명을 이룩하여 발전시키고 있다.

이런 도구들이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문명의 이기로 활용된 이유를 살펴보면 원하는 목적에 맞게 관리를 잘했다는 점이다. 이런 도구 이용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된다. 첫째는 일상생활, 둘째는 테러 또는 전쟁이다. 첫째 일상생활에 이용하는 것은 당연히 사용자가 조심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가끔 불이 나거나 칼부림 사고가 나기도 하지만, 이런 일은 우리 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험

여기 메디케어 진짜 잘하는 헬스플랜 전문가와 함께 모든 베네핏을 누릴 수 있는 답을 찾으세요!

- / 65세 되시는 1960년생 신규 가입신청과 가입
- / Part C (HMO/PPO) 가입자들을 위한 추가 혜택
- / 심장질환, 당뇨, 말기 신부전증을 위한 스페셜 플랜
- /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DSNP 특별 보험
- / 메디케어 Part D (처방약 보험)에 대해
- / 타주 전입, 직장 퇴직 후 메디케어 신청



BridgeOne Insurance Services Inc.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Tel: 571-225-0110

헬렌 서



타이슨스 코너 DC Eye Clinic

전안과

25년 over 11300 백내장/녹내장 수술
over 12700 레이저 치료경력

진료과목

- 백내장 레이저 수술 (Cataract Laser Surgery)
- 안구 건조증 치료 (Dry Eyes Therapy)
- 녹내장 레이저 치료 & 수술 (Glaucoma Laser and Surgery)
- 당뇨병 레이저 & 주사 (Diabetes Laser and Injection)
- 노년기 황반변성 주사치료 (Macular Degeneration Injection Th)
- 안검하수(눈꺼풀 처짐 개선) (Eyelid Surgery (Blepharoplasty))
- 정기적인 눈 검사 (Routine Eye Exam)

※ 각종 보험 적용 됩니다

구인 리셀서니스트/테크니션 구합니다! 이증언어
이력서: dceyeclinic@yahoo.com



원장/ Benjamin Chun, MD

- Brown University BA Degree
- Brown Dartmouth Medical School MD Degree
- Tripler Army Medical Center Internship
- Madigan Army Medical Center Residency
- Madigan Research Ophthalmology - Participate
- Harvard Cardiovascular Research Program - Participated
- American Board of Ophthalmology Certified
- Voted 2020 Best Eye Dr from Top Doctors Pittsburgh Magazine
- Korean Daily Medical Columnist



Vienna T: 703 853 1966
8381 Old Courthouse Rd Suite #345
Vienna, VA 22182 dceyeclinic.com

White Oak T: 412 681 8505
1985 Lincoln Way Suite # 15
White Oak, PA 15131

Shady side T: 412 681 8505
5438 Centre Avenue
Pittsburgh, PA 15232

South side T: 412 681 8505
2300 Jane St.
Pittsburgh, PA 15203

한국말로 진료 받으세요!!

시설

최민희 축의금 논란이 보여준 ‘그들만의 세상’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던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 딸의 결혼식 축의금 논란이 국회의원 특권 의식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어제(28일)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는 말까지 인용하며 최 의원을 옹호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전체 국회의원 중에 최 의원처럼 (축의금 반환을) 한 의원이 있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다”고 했다.

언론 카메라에 포착된 최 의원의 휴대전화 화면에는 대기업과 피감기관 인사가 낸 100만원짜리 축의금이 여럿 찍혀 있었다.

다. 나머지도 20만~50만원 수준이었다. 통상적 축의금을 넘어 이해 충돌 소지가 다분한 금액이다. 설사 법적으로 문제없더라도 서민 가정에서는 생각하기 힘든 수준이다. 그런데도 동료 의원은 무슨 큰 잘못이냐며 감싸기에 바쁘다.

이 정도 축의금은 ‘그들 세계’에서는 통상적이라는 고백처럼 들린다. 국민과의 괴리를 자인한 꼴이다.

결혼식 장소인 국회 사랑제에 늘어난 화환만 봐도 통상 수준 이상의 축의금을 낸 피감기관이나 기업이 한둘이 아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사진 속 축의금 액수는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공직자 경조사비 한도인 5만원(회환 포함 10만원)을 훌쩍 넘어섰다.

더욱이 축의금 반환 같은 사적인 일을 국회 보좌진에게 시켰다. 불과 석 달 전 같은 당 강선우 의원이 보

좌진 갑질 시비로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서 물러난 사례가 있는데, 같은 행태를 반복한 셈이다.

최 의원 측은 “축의금을 돌려주기 위해 보좌진에게 지시한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의문은 가시지 않는다. 명단에는 동료 의원인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준 50만원이 포함됐다.

이 대표가 기자들에게 “(축의금) 반환 통보가 오지는 않았다”고 공개한 이후에 최 의원 보좌진이 의원실을 방문해 돌려줬다고 한다. 고액 축의금을 낸 동료 의원이 이 대표뿐이었겠는가.

이런 소동은 애초부터 예견된 일이었다. 국정감사 기간에 결혼식장을 국회 경내로 정하고, 모바일 정첩장에 계좌번호와 신용카드 결제 링크를 담아 돌렸다. 논란이 일자 “양자역학을 공부하는 딸 결혼식을 잘 챙기지 못했다”는 궤변으로 국민의 분노를 샀다. 어제는 ‘교활한 암세포’라는 표현을 써가며 당내 비판에 대해 역공하는 듯한 태도까지 보였다.

일반 공무원은 수십만원만 받아도 징계나 처벌을 받는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은 출판기념회에서 수억원씩을 챙겨도 제재받지 않는다.

썩썩한 그들만의 세계다. 그러고서도 기회만 있으면 서민, 민생, 정의를 말한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기업·기관의 축의금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해충돌과 특권의 관행을 끊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고액 축의금 비판에 동료 의원 ‘죄 없는 자 있나’ 이해 충돌에 갑질 논란까지… 특권 고리 끊어야

다. 나머지도 20만~50만원 수준이었다. 통상적 축의금을 넘어 이해 충돌 소지가 다분한 금액이다.

이 정도 축의금은 ‘그들 세계’에서는 통상적이라는 고백처럼 들린다. 국민과의 괴리를 자인한 꼴이다.

결혼식 장소인 국회 사랑제에 늘어난 화환만 봐도 통상 수준 이상의 축의금을 낸 피감기관이나 기업이 한둘이 아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사진 속 축의금 액수는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공직자 경조사비 한도인 5만원(회환 포함 10만원)을 훌쩍 넘어섰다.

더욱이 축의금 반환 같은 사적인 일을 국회 보좌진에게 시켰다. 불과 석 달 전 같은 당 강선우 의원이 보

무너진 계층 사다리… 노동시장 이중구조부터 완화를

일해서 번 돈으로 계층 사다리를 오르기가 더 어려워졌다. 국가데이터처가 그제 발표한 ‘2023년 소득이동 통계’에 따르면 15세 이상 소득 있는 인구를 1~5분위로 나눴을 때 전년 대비 한 계단 이상 오른 사람은 전체의 17.3%에 불과했다.

특히 가장 소득이 적은 1분위에서 벗어난 사람은 29.9%뿐이었다. ‘개천에서 용 나’ 사회가 아니라 개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용만 쓰는 시대인 셈이다. 비교 시점에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이들만 따진 통계인 만큼 비교 시점 모두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없었던 이들의 삶은 더 팍팍했을 것이다. 계층 이동성이 낮은 사회는 세대 간 계층 대물림이 고착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건강한 사회라고 할 수 없다.

부동산 등 자산 격차가 벌어지면서 우리 사회의 불평등 수준이 심해졌다는 국회입법조사처의 어제 발표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2011~2023년 13년간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로 본 소득 불평등은 개선됐지만 자산·교육·건강은 더 불평등해졌다.

서울 등 수도권과 지방의 주택가격 양극화로 자산 불평등이 심화했고, 가정의 경제적 배경이 교육 기회에 미치는 영향은 커졌다.

또 소득이 낮을수록, 읍·면 지역에 거주할수록, 1인가구일수록 건강 상태가 나빴다. 소득재분배뿐 아니라 부동산·세제 등 정부 정책의 전 분야에서 불평등 완

화를 주요 정책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국회입법조사처의 분석은 시의성이 있다.

집값 급등이 불러온 자산 양극화 탓에 청년들이 좌절하지 않도록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에 온 힘을 다해야 한다.

노동시장에 처음 진입하는 청년들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 국가데이터처 통계를 보면 청년들의 1분위 탈출률이 떨어지고 있다.

이런 판국에 이재명 정부의 노동정책은 이미 일자리를 가진 ‘노동’만 보호하고 새 일자리를 만드는 ‘고용’은 후순위로 밀리는 분위기다.

정부가 추진 중인 청년 연장은 청년 취업난을 심화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 청년제 사업장은 전체의 21.8%에 불과하다. 노조가 있는 대기업과 공공 부문 정규직만 혜택을 보고, 무노조 기업이나 중소기업, 비정규직과의 격차는 더 커질 것이다. 양극화와 불평등 문제 해결은 이런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완화에 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사회에 진출하는 청년이 공정한 출발선에 설 수 있도록 부동산부터 고용 정책까지 정부가 풀어야 할 난제가 많다. 세제의 합리화, 지속 가능한 재정, 고용 우선의 노동시장 정책 등 세대 간 갈등이 불가피한 이슈는 청년의 이익을 최우선에 두는 게 옳다. 그것은 우리 사회 기성세대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몫이기도 하다.

핵이 18분 후 부산에 떨어진다면

안혜리의 시시각각

時 視 各 角



“보다가 협심증이 왔다.”

지난 주말 넷플릭스에 올라온 영화 ‘하우스 오브 다이너마이트’를 러닝타임 내내 숨도 제대로 못 쉬고 다 본 후에 누군가의 블로그에서 위 표현을 발견하곤 혼자 피식 웃었다. “아,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다큐멘터리적 위기 상황 재연과 이를 맞닥뜨린 인물들의 심리 묘사로 스틸러를 뛰어넘는 긴장감을 유발하는 캐스린 비글로 감독 작품답게 2시간 내내 그 흔한 충성 한 발 울리지 않는다. 하지만 뉴욕타임스 등 미국 언론들이 “너무 생생해서 무섭다”거나 “공포영화보다 더 겁난다”는 제목을 뽑은 건 다 이유가 있었다. 당장이라도 현실에서 겪을 수 있는 위기 상황을 너무 리얼하게 담고 있어서다. 특히 핵과 관련해 평양이 자주 언급되기에 한국 시청자라면 더 몰입할 수밖에 없다.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영화는 네브래스카 전략사령부가 태평양 어디에선가 발사된 미확인 탄도미사일을 인지한 시점부터 핵탄두가 미국 본토, 정확히는 시카고를 타격하기까지 남은 시간 18분을 각각 다른 앵글로 세 번 반복하며 보여준다. 이 짧은 시간 동안 이날 첫 공식 일정으로 여자 어린이 농구교실 코트에서 평화롭게 숲을 날리던 미국 대통령은 갑자기 전 인류의 운명을 바꿀 위험한 선택을 해야 한다. 미국 3대 도시 권역인 시카고가 불타며 1000만 사상자를 내는 걸 보면서도 적의 추가 도발을 막기 위해 외교적 신뢰를 바탕으로 대응을 자제할지, 아니면 전 세계적인 핵전쟁 확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보복 공격을 감행해야 할지를 식당 메뉴판 같은 메뉴얼을 보며 온전히 혼자 결정해야 한다.

더 기막힌 건, 미사일을 쏜 상대가 본인들 소행이 아니라고 부인하는 러시아인지, 핫라인 연결조차 안 되는 와중에 DMZ 인근에서 평소와 다른 움직임을 보이는 북한인지, 공격 의사 없이 그저 AI 미사일 발사 시스템 오작동을 일으킬 수 있는 중국인지, 정확한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이다. 사소한 도발(실수)로도 얼마든지 지구를 파괴시킬 수 있는 오판 가능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섬뜩하다.

이런 현실과 똑 닮은 상황보다 더 오싹했던 건 역설적으로 극 중 그 누구도 무능하거나 무책임하지도, 그렇다고 우왕좌왕하지도 않았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긴급 경보가 울린 지 3분 만에 백악관 상황실은 관련 고위직 화상회의를 소집하고 테프론 4(평시 전투준비태세)가 시시각각 테프론 2(조비상)에서 테프론 1(전시)로 넘어갈 때마다 이미 수천 번 훈련해 온 프로토콜대로 모든 관계자가 빈틈없이 움직인다. 하지만 재앙을 막을 순 없다. 이런 미친 현실이 닥치기 불과 5분 전만 해도 적의 미사일을 100% 격추할 수 있을 거라 믿었던 500억 달러짜리 요격 시스템은 알고 보니 고작 ‘총알로 총알 맞히기’ 같은 확률로 작동하고 있었다. 또 북한엔 탄도미사일이 없을 거라던 확신은 북한이 최근 잠수함 기술력에 공들이는 걸 보고도 지나치게 낙관적

영화 ‘하우스 오브 다이너마이트’ 낙관적 기대가 불러올 재앙 다뤄 사소한 실수·오판에 취약 불안감

으로 판단한 결과였을 뿐이었다. 별다른 선택지 없이 다가오는 재앙 앞에서 이런 사실을 깨달은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은 망연자실해 한다.

영화를 보는 내내 어쩔 수 없이 자꾸 “한국이라면”이라는 불온한 상상을 했다. 만약 불과 10여 분 뒤 한국 제2의 도시 부산에 정체불명의 핵탄두가 떨어지는 위기 상황을 맞닥뜨린다면 이재명 정부는 어떻게 대응할까. 프로토콜에 따라 수없이 훈련하는 미국도 막기 어렵다면, 우리는 더 취약하지 않을까. 게다가 18분은 커녕 얼마든지 충분한 속의 시간이 있었던 부동산 정책조차 대체 컨트롤타워가 어딘지 불분명하게 보일 만큼 우왕좌왕하는 정부에 뭘 기대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하다. 마침 오늘(29일) 부산에 오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꾸 “북한은 핵 보유 세력”이라며 김정은과의 만남에 목매는 걸 보고 있자니 현실과 영화의 경계가 흐려지는 느낌에 불안해서 하는 말이다.

는설위원

중앙일보

구독신청: 배달 1588-3600 / 080-023-5001 홈페이지 http://jib.joongang.co.kr	광고 접수: 02-751-5555 / FAX 02-751-5806 홈페이지 http://ad.joongang.co.kr	시장·발행인: 홍정도	주필: 이허경
기사제보 및 기사 관련 문의: 불만 처리센터 02-751-9000 / 080-023-5002 / E-메일 sarangbang@joongang.co.kr	03909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산로 48-6 안내전화 02-751-5114, 9114	편집인: 최훈	신문제작총괄: 고현곤
본사 인쇄: (주)중앙일보 THE NEW YORK TIMES, THE WALL STREET JOURNAL, LOS ANGELES TIMES, NEWSWEEK, 영국: FINANCIAL TIMES, 일본: NHK, 한국: 연합뉴스, 구독료 월정 20,000원 1부 1,000원		편집국장: 김중윤	1965년 9월 22일 창간 / 1965년 7월 30일 등록번호: 7100195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저작권(©) 중앙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철민

약력

- 조지타운 법과대학원
- 미국 연방의회 연수 (House of Representative)
- United Nations, Research Fellow (UNU Headquarters, Tokyo, Japan)
- Kotra 해외진출기업 자문변호사
- ICSC (Int'l Council of Shopping Centers) Member
- Redcliff Partners 고문변호사
- 이민, 투자, 상법 전문변호사

합동법률사무소

Potomac Law Group, PLLC

“변호사가 성실하게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을 갖춘 전문가들이 완벽한 Team-Work으로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를 최선을 다해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Immigration

- 영주권/시민권
- 취업/가족초청이민
- 종교비자/이민
- E2 비자/투자이민
- 비자변경 및 연장
- 강제추방문제

Business / Real Estate

- 회사설립/합병
- 국제합작투자
- 대정부계약/입찰구매
- 사업체 매매
- 부동산 매매/임대차
- 부동산 투자 개발

대표 703-973-8700 | 7700 Little River Tnpk., Suite 303, Annandale, VA 22003 예천 앞 빌딩 3층



귀하의 후회없는 선택!! 중앙일보

① 워싱턴 중앙일보

T. 703-281-9660

67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고객만족 100% **중고차 150대 보유** **차량 고가 매입**

중고차 어디에 파는게 가장 유리할까요?

카맥스에 팔까?

가격 너무 싸게 산다고 하고.. 귀국이 얼마남지 않았지만 차팔고 귀국때까지 사용할 차도 문제이고...

인터넷에 판매할까?

타이틀 이전 등 뒷마무리가 불안하고...

개인거래를 할까?

나중에 차에 문제가 생기면 서로 입장이 곤란해 질 것 같고...

한국자동차에 차를 팔면?

워싱턴지역 유일한 한인 중고차 전문 딜러인 한국자동차에 귀하의 자동차를 파시면 최고의 가격은 물론 고객 각각의 상황과 편의를 먼저 생각합니다.

- **최고의 가격에 자동차 매입**
카맥스보다 더 좋은 가격에 드립니다.
견적서를 가지고 오셔도 됩니다.
- 타이틀이전, Tax 문제 등 판매후 세부분제 완벽처리
- 귀국시점과 판매시점이 차이가 있을시 판매후 귀국시까지 차량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994년부터 2025년 현재 **30년 이상**
8천대 이상 판매 실적!!

SPECIAL

귀국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새 차구입시 Trade-In이 걱정되십니까?

중고차를 파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고객의 소중한 차를 **최고의 가격으로!**

www.HANKOOKMOTORS.COM

한국자동차

대표 김태원 **703.352-8949**
703.225.9151
9909 Main St., Fairfax, VA 22031



엘리콧시티 · 락빌

환자분들의 편의를 위해 2 로케이션에서 진료합니다.

편한나라 척추신경 전문병원

편한 위치! 편한 치료! 편한 척추!

편한나라는 지난 20여년간 척추와 척추신경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통증을 치료하고 있으며, 각 분야의 전문 의료인들의 협진으로 빠르고 정확한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와 함께 척추 및 자세교정
- 통증 침 치료(Dry Needling)
- 마사지 치료(LMT 라이센스 소지자)
- 디지털 X-Ray, 디스크 감압치료
- 물리치료기구, 재활 프로그램 완비

■ **Dry Needling 이란?** 침을 근육이나 근막조직의 통증점에 자침하는 치료법으로 근육통의 완화, 근육 및 인대의 긴장 감소에 효과가 있습니다.

진료 과목

- ✓ 자동차 사고 후유증
- ✓ 손, 발 통증 및 저림
- ✓ 척추 디스크 통증
- ✓ 어깨 결림 및 통증
- ✓ 두통, 목, 허리 통증
- ✓ 만성근육통

취급 보험

- Blue Cross Blue Shield
- Anthem
- United Healthcare/GEHA
- Innovation Health
- Blue Choice
- Aetna
- CareFirst



Dr. 민혁기

원장 Dr. 송영성

Dr. 석호선

Dr. 민혁기

- 전 경기대 대체의학 대학원 외래교수
- Body Balance Center Director(압구정)
- MD & VA Board Licensed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Magna CumLaude(우등졸업)
- Life Univ. Doctor of Chiropractic 과정전액 장학생
- 단대부고 졸업

원장 Dr. 송영성

- 동아고, 경희대학교 졸업
- R.O.T.C 28기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Graduated Magna CumLaude from Life Univ.
- Practiced in Choi Chiropractic
- Certified in Cox Technique-Low Back Pain
- Certified Dry Needling

Dr. 석호선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졸업
- 대구 대건고, 경북대학교 졸업
- MD Chiropractic Board Licensed
- Licensed Massage Therapist (LMT) of MD
- Completion of Asian Bodywork Therapy Program
- Member of Associated Bodywork and Massage Professionals

엘리콧시티 (410) 480-2331 락빌 (301) 279-6960

3201 Rogers Ave. #102, Ellicott City, MD 21043

2000A Veirs Mill Rd., #A, Rockville, MD 20851

김철민 변호사
이민법 / 상법
취업이민, 가족초청, NIW, H1B, F1, E2비자
비즈니스, 계약, 리스, 회사설립, 투자자문
703.973.8700 예촌 앞 빌딩
7700 Little River Tnpk., #303, Annandale, VA 22003

건강 & 연예/문화 Sports

빙·난방 제대로 설치해야 반영구적!
오래되고 잦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드립니다.
규모가 큰 신용입니다
LENNOX, Carrier, Lennox 전문딜러
www.LBuniversal.com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JoongAng Ilbo Wednesday, October 29 2025 C

연방파산법이 지정하는 채무구제 기관
법무법인 한미
파산
이혼
상속
임금
소송
임종범 대표 변호사 (VA/MD)
703-333-2005
301-230-3122
4216 Evergreen Ln., #131, Annandale, VA 22003

김용용 변호사
JOY LAW GROUP
이민법
영주권(결혼/취업)
시민권
NIW
간호사(RN)
E2, R 비자
703-246-9100
703-309-1455
joylawgroup@gmail.com

Dental Implant (치과 임플란트) \$1,000
Implant Crown - Extra (임플란트 크라운은 별도 \$750)
40 years of experience in every aspects of Dental Implants, especially in Full Mouth Cases
다양한 종류의 치과 임플란트 특히 Full Mouth Case 40년 경력
Kie D. Lee, DDS, MD
WashingtonImplantCenter.com
6220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703)569-8000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 하십니까?
Hanmi Homehealth (한미 홈헬스)
회사는 1,200여명의 간병사를 교육하여 배출한 평평있는 정직한 회사입니다.
특히, 개인 부담으로 간병사를 구하시는 분은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감당 하실 수 있도록 특별 상담하여 드립니다.
www.Hanmihomehealth.com
t. (703)303-4556 / f. (703)303-0988
f. (703)569-0600
6214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술 안 마셔도 살지면 '지방간' 생겨 식단 조절해야

간 기능 절반 이상 떨어져야 증상 지방간, 간염, 간경변, 간암 순 악화 탄수화물 줄이고 단백질 늘려야

간은 인체에서 가장 크고 가장 묵묵한 장기다. 온종일 쉬 없이 탄수화물·지방·단백질을 분해하고 에너지를 저장하며, 소화를 돕는 담즙을 만들어낸다. 체내에 쌓인 독소와 노폐물도 간이 걸러낸다. 몸의 화학반응을 조율해 균형을 유지하는 '조용한 조력자'이지만, 이상이 생겨도 좀처럼 신호를 보내지 않는다. 기능이 절반 이상 떨어질 때까지 별다른 증상이 없어 '침묵의 장기'로 불린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병은 깊어지고, 회복 시간은 늦어진다. 20일 '간의 날'을 맞아 간 질환의 특징과 생활 속 관리법을 살펴본다.

간 질환은 대부분 '지방간'에서 시작된다. 간 무게의 5% 이상이 지방으로 뒤덮이면 지방간을 진단받는다. 이 상태에서 염증이 생기면 '지방간염'이 되고, 염증이 반복돼 악화하면 간이 딱딱하게 굳는 '간경변증'으로 진행된다. 이때 간이 발생 확률은 급격히 높아진다. 가람비에 옷 젖듯 서서히 손상돼 간경변이나 간암으로 이어지는 수순이 일반적이다. 흔히 술을 주변으로 생각하지만, 최근에는 술을 마시지 않아도 지방간이 생기는 대사 이상 지방간 질환(MASLD)이 늘고 있다. 직장인 배준하(42·가명)씨는 지난해 건강검진에서 뜻밖의 결과를 받았다. 술을 거의 마시지 않는데도 간의 절반 이상이 지방으로 차 있었던 것. 평소 특별한 증상도 없었던 터라 충격은 더 컸다. 비만과 연관이 깊다는 의사 말에 배서는 바로 다이어트를 시작했다.

과체중·대사 이상 때문에 지방 쌓여 대사 이상 지방간은 한마디로 '살이 쌓여 생기는 간 질환'이다. 당분과 지방을 과잉

섭취하고 운동량이 부족할 때 잘 생긴다. 배찌처럼 음주를 즐기지 않아도 과체중이거나 대사 이상이 있으면 지방간이 생길 수 있다. 가천대 길병원 소화기내과 이윤석 교수는 "지방간은 크게 알코올성과 대사 이상 관련(비알코올성)으로 나뉘는데, 후자는 비만·고혈압·당뇨·이상지질혈증 등 대사 이상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며 "이럴 땐 체중을 감량해야 간의 지방과 염증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간 질환이 무서운 이유는 전조 증상이 없어서다. 겉으로는 거의 변화가 없다. 간혹 피곤하고 소화가 잘 안되는 정도다. 기능이 절반 이상 떨어질 때까지 특별한 이상을 느끼기 어렵다. 간이 심하게 손상됐을 때 나타나는 증상은 황달이 대표적이다. 담즙의 구성 성분인 빌리루빈이 체내에 과도하게 쌓여 피부나 눈의 흰자가 누렇게 변한다. 대변과 소변 색도 진해진다. 이 시기엔 손바닥이 붉어지고, 심한 가려움증이나 입 냄새가 동반되기도 한다.

간 수치가 정상이라도 안심은 금물이다. 많은 이들이 혈액검사서에서 간 수치(AST·ALT)가 정상이라 나오면 간이 건강하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오해다. 이윤석 교수는 "AST·ALT는 현재 염증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일 뿐, 간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반영하지 않는다"며 "간경변증 단계에서는 오히려 염증이 사라지면서 간 수치가 정상으로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초기 지방간 환자도 간 수치가 거의 오르지 않는 경우가 많다. 간 초음파나 간 섬유화 검사 등 영상검사를 통해 간의 모양과 구조적 변화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간이 울퉁불퉁해지고 표면이 거칠어졌다면 간경변증으로 진행 중일 가능성이 크다. 만 40세 이상 성인 중 B·C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이거나 간경변증을 진단받은 사람은 6개월마다 정기검진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간 건강 체크리스트 자료=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한간학회

* 3개 이상에 해당하면 간 상태가 정상적이지 않을 수 있음.

-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고 극심한 피로나 권태감이 느껴진다.
- 술 깬 데 걸리는 시간이 길어진다.
- 우측 상복부가 답답하거나 불편감이 있다.
- 여성의 경우 생리불순이 나타나고 남성은 성기능장애나 여성형 유방증이 생긴다.
- 배에 복수가 차고 붓거나 가스가 차거나 방귀가 자주 나온다.
- 몸에 경련이 일어난다.
- 피부가 가렵다.
- 대변이 흰색이고 소변 색이 진한 갈색을 띤다.
- 손톱이 하얗게 변하고 세로 줄무늬가 생긴다.
- 손바닥, 팔, 가슴 등에 붉은 반점이 나타난다.

간은 손상이 누적되면 되돌리기 어렵다. 조기 관리가 최선의 예방법이다. 절주와 체중 조절이 간 건강을 지키는 기본이다. 다행히 지방간은 생활습관만 바뀌어도 없앨 수 있다. 이윤석 교수는 "알코올성 지방간은 술을 2~3개월만 끊으면 대부분 회복된다"며 "대사 이상 지방간일 경우 체중 관리가 핵심인데, 현재 체중의 5~7%를 줄여야 간에 지방이 사라지고 염증이 완화된다"고 말했다.

공인회계사
김서규 CPA
703.914.0085
7535 Little River Tnpk., #310-B
Annandale, 22003

2025
Ebenezer
Year End Single party
한국과 미국 전역의 싱글들을 위한 연말 파티에 200명 초대 합니다.
풍성한 상점 및 1000불 상금, 양공티켓
12월 6일 토요일 6시 Pine Plaza
7 Broad Ave 4th Palisades Park, NJ 07650
상담 및 예약 : 917.359.1578

염증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나투라 치과
구강교육치과
dental implants
bright smile
703-652-4265

내 집보다 편안한
아리랑 건강 복지센터
"사랑과 정, 효를
다하여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443.691.7968

임정국 신경내과

MD, PhD, Neurologist

“ 임정국 신경내과에서는 **치매, 파킨슨병**을 비롯한 **퇴행성 뇌질환**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치료, 관리 및 예방에 관하여 자세히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임정국
MD, PhD, Neurologist

약력

- 대한민국 한의사/의사
- 의학박사, 신경내과 전문의
- 텍사스 주립대 신경과학 (neuroscience) 박사 학위(Ph. D) 취득
- 텍사스 주립의대 신경내과 (neurology) 레지던트 과정 수료

진료과목

- ◆ 치매
- ◆ 뇌졸중(중풍)
- ◆ 파킨슨병
- ◆ 두통
- ◆ 어지럼증
- ◆ 이명
- ◆ 불면증
- ◆ 수면질환
- ◆ 손발 저림
- ◆ 감각이상
- ◆ 보톡스
- ◆ 통증

상담 문의 571-620-7159 7700 Little River Tnpk, Suite 605 Annandale, VA 22003 예촌 앞 7700 건물 6층

드라이브 즐기고 커피향 느끼고... 말기암 환자 삶맛 나게 돕는다

암 환자와 가족 위한 돌봄 가이드

고등학교 자녀를 둔 A씨(47)는 올해 초 갑작스레 4기 암 진단을 받았다. 치료를 포기할 수 없었던 온 가족이 전라남도 나주에서 서울의 대학병원으로 올라왔다. 두 차례 항암을 이어갔으나 병은 나빠졌다. 복수가 차고 몸은 점점 무거워져 누워 있는 시간이 길어졌다. 남편이 힘겹게 호스피스·완화의료이 필요하다는 말을 꺼냈다. 항암이 어렵다는 말을 들은 환자는 극심한 우울감과 무기력을 보였다. 완화의료팀은 정신종양학과 협진을 요청했다. 이후 며칠 뒤 환자가 “처음으로 폭 잤어요”라며 웃었다. 더는 가족 앞에서 괜찮은 척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곧 나를 거야’란 희망은 암 치료의 고통을 버티게 한다. 하지만 완치가 어렵다는 말 이후의 시간은 숙제다. 병은 여전히 내 안에 있는데 삶은 계속된다. 환자와 가족이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헤맬 때 완화의료는 고통을 덜고 사람답게 일상을 살도록 돕는다.

이런 완화의료를 말기 암 환자의 마지막 선택지, 임종을 기다리는 단계로만 오해하는 시선이 적지 않다. 연세암병원 박중철(가정의학과·사진) 교수는 “완화의료의 목표는 남은 하루하루를 안 아프고 살맛 나게 하는 것”이라며 “부정적으로 터부시되던 죽음을 환자와 가족이 함께 받아들이며 삶의 의미를 다시 돌아보는 과정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나는 친절한 죽음을 원한다』의 저자인 박 교수는 말기암 환자와 가족을 돌봐온 완화의료 전문가다. 박 교수와 함께 완화의료 원포인트 레슨 6가지를 소개한다.



이민영 기자

1 일찍 완화의료 접하면 생존율 2배

치료 선택지가 남아 있어도 몸이 버티지 못할 때가 있다. 고령이거나 부작용·통증에 쇠약해진 환자가 그렇다. 진행암 환자의 절반은 임종 직전까지 통증, 호흡곤란, 전신 쇠약 등으로 응급실을 찾는다. 이들 중 상당수는 심폐소생술과 인공호흡기 같은 고강도 연명 치료를 받는다. 서울대병원이 발표한 2편의 연구(2025)에 따르면 완화의료 외래 진료를 한 달 일찍 받을수록 임종 직전 응급실 방문율이 16%씩 감소했다. 조기에 질 높은 완화의료를 받은 진행암 환자는 2년 생존율이 2배 이면서 우울감은 절반 이하였다. 완화의료는 신체 증상뿐 아니라 정신적·영적 고통까지 함께 돌본다. 암 진단 초기부터 삶의 질을 지키도록 돕는 형태로 확대되고 있다.

2 가까운 곳에 새로운 주치의 두기

완화의료는 증상 조절과 약물 조정, 응급 대응이 자주 필요하므로 거리상 가까운 병원과의 연계가 좋다. 통증, 식욕부진, 피로, 불면을 다루는 새로운 주치의의 필요를 따르 두길 권한다. 지역의 완화의료 전문기관에 미리 등록해 두면 주치의와 수시로 연락하며 약물·입원·돌봄을 조정한다. 완화의료 전문가는 환자와 가족에게 앞으로의 일을 지도처럼 펼쳐 보여주고 함께 대비한다. 평온한 여정의 길잡이 역할이다.

3 가족과 함께 임종 다룬 영화 보기

임종 과정이 막상 다가오면 “기적이 일어날 거야” “기도 받으면 나올 거야”라는 말만 한다. 정작 필요한 “지금까지 행복했어, 고마웠어” 같은 작



완화의료는 금기시되던 죽음을 환자·가족이 함께 받아들이며 삶의 의미를 다시 돌아보는 과정이기도 하다.

별의 대화는 거의 없다. 죽음을 부정하고 실패로 여기는 현대사회 분위기가 크다. 그럴 때 영화 같은 시청각 자료는 좋은 교재다. 예컨대 일본 영화 ‘엔딩 노트’는 말기 위암 판정을 받은 아버지가 남은 6개월을 ‘삶의 숙제 10가지’로 채워가는 이야기다. 가족과 여행하고 정치적 신념을 다시 표현하며 노모에게 직접 죽음을 알리는 장면이 이어진다. 딸은 그 과정을 다큐멘터리로 기록한다.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해 남은 이들은 삶을 배운다. 명절이나 가족 모임 때 처음엔 어색해도 같이 영화를 보고 죽음을 주제로 이야기해 보자. 두려움이 줄고 서로의 가치관이 드러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보다 중요한 건 어떻게 살고, 어떻게 떠나고 싶은가에 관한 가치관의 대화다.

4 환자가 터널 지날 땐 기다리기

환자는 자신의 몸 변화를 의사·가족보다 먼저 안다. 주변에서 기적을 말해도 마음 한쪽에서는 받아들일 준비를 한다. 치료가 더는 통하지 않거나 몸이 서서히 멀춰가면 극심한 상실감이 온다. 이때 필요한 건 환자 스스로 터널을 지나오기까지 묵묵히 기다려주는 것이다. ‘조금만 먹어봐, 움직여야 나아져’ 대신 누워 있고 싶어 하면 누워 있게 두고, 아무 말 하기 싫어하면 조용히 함께 있어 주는 것이다. 환자는 떠날 때를 알고 있지만 남은 가족을 두고 쉽게 떠나지 못하는 마음도 있다. 갈팡질팡할수록 동굴에 있는 시간이 길어진다. 이럴수록 가족은 일상을 유지하

며 각자의 자리를 지켜야 한다. 가족이 밥 먹고 일하고 웃는 모습을 볼 때 환자는 비로소 괜찮다는 신호를 받고 암묵적 강박에서 벗어난다. 좀 내려놔도 됨을 느끼면 스스로 자연스럽게 자리를 찾아간다.

5 통증 조절해 일상 즐기도록 도와

통증이 조절되면 암 환자라는 사실도 잠시 잊는다. 걷기 힘들어도 차를 타고 드라이브를 가고, 콧줄을 꺾어도 마스크를 쓰고 카페에 가 커피향을 맡는다. 먹지 못해도 좋아했던 음식의 향이나 꽃향기를 맡으면 여전히 살아 있음을 느낀다. ‘오늘은 털 아파 커피향이 좋았다. 아이 얼굴을 보니 힘이 난다’는 말이 나온다. 마약성 진통제를 쓰면 중독되고 빨리 돌아가신다는 건 오해다. 통증 조절이 안 돼 못 먹고 못 자면 더 약해진다. 장기 통증(내장통)에는 마약성 진통제, 근육·뼈·피부 통증에는 소염진통제의 효과가 좋다. 신경통에는 항경련제나 항우울제를 쓰는 게 낫다.

6 환자 돌봄 기술 가족이 직접 배우야

가정형 호스피스 완화의료는 의료진이 집으로 찾아와 상처 소독, 콧줄 관리, 복수·흉수 배액, 중심정맥관 영양투여 등을 돕는다. 학습지 선생님처럼 ‘오늘은 중심정맥관 관리법을 해볼까요?’ ‘주사기에 공기가 차고 막히면 이렇게 똑똑 쳐야 해요’ 하며 가족이 직접 해보도록 시범과 교육을 병행한다. 환자는 익숙한 냄새와 소리, 온기 속에서 자신의 속도로 하루를 살아가고, 돌봄 기술을 배운 가족에게 임종 과정은 죽음을 지켜보는 시간을 넘어 삶을 함께 완성하는 시간으로 남는다. 슬픔 속에서도 감사와 평화를 경험한다.

권선미 기자의 월요藥담회

영유아 백신 공급 중단 되풀이... ‘백신 주권’ 확립 위한 실질적 지원 필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백신 주권에 대한 관심이 높다. 백신은 각종 질병을 막는 든든한 방패다. BCG부터 B형 간염, 백일해, DTaP 혼합백신, 로타, 폐렴구균 등 국가필수예방접종(NIP)으로 지정된 여러 백신은 질병으로 인한 사망률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특히 신생아는 모든 연령대 중에서 감염 질환에 취약하다. 예방 접종을 통해 내

몸을 방어하는 능력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내에서 접종 가능한 백신의 상당수는 전량 수입한다. 국외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의원실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필수 예방접종 백신 자급화 현황은 2020년 30.6%에서 2024년 28.5%로 하락했다. 전 세계 백신 시장은 GSK(영국)·사노피

“백신 자급화 29%, 4년새 2%p 하락
임상시험 규제 등 유연하게 적용을

“(프랑스)·MSD(미국)·화이자(미국) 등 4개 기업이 전체 시장의 80% 이상을 독

점하고 있다. 글로벌 차원에서 생산량 조정, 포장 불량 등을 이유로 제품 공급이 불안정해지면 공급이 중단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렇게 공급 중단 등이 나타나는 제품 대부분은 영유아 백신이다. 실제 2022년 사노피에서 공급하던 백일해 백신이 국내 공급이 중단됐었고, 올해 7월에도 GSK가 DTaP 혼합백신의 국내

공급 중단을 예고했다. 대체 백신으로 접종이 가능하지만, 현장에서의 혼란은 불가피하다. 적기 접종이 중요한 영유아 국가필수백신이라도 국산화가 필요하다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배경이다.

현재 영유아 백신 국산화를 추진하는 곳은 LG화학이다. 영유아가 필수적으로 접종해야 하는 6가지 백신을 하나로 합친 영유아 6가 혼합백신을 개발 중이다. 국가적으로도 백신 주권 확립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채여혜 한의원

Chai Oriental Medicine Clinic

진료 과목

- 모든 통증치료 (좌골 신경통, 두통, 목디스크통증, 요통, 오십견, 관절통, 손목통증, 무릎통증 등)
- 대사증후군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 비만
- 만성피로
- 소화장애, 순환장애
- 불면증, 어지럼증
- 불임, 생리통, 갱년기 증상
- 교통사고 후유증

침·부황·뜸·한약 (치료제, 보약)



한국 공진단 판매

한방에서 처방되는 명방 중에서도 으뜸인 최고의 보약!

원장 채여혜

- 북경중의약대학 중의과 졸업
- 중국국의대사·연경화 교수님께 사사
- 상해중의약대학 중의약박사
- 임상 25년 경력



채여혜 한의원
Chai Oriental Medicine Clinic

571-587-4679 / 703-828-0056
4208 Evergreen Ln, Ste 221, Annandale, VA 22003
www.chaiorientalmedicine.com

진료 시간

- 평일: 9am-5pm
- 토요일: 9am-1pm
- 야간진료: 예약환자에 한함

의약품 수출 약발 떨어질라... 업계, 미국 '관세 100%' 긴장감

의약품 관세부과 여파

지난해 미국에 의약품 2조 수출 유럽·일본은 상호관세로 15% 적용 한국, 고관세면 경쟁력 약화 불가피 업계, 현지 생산시설 확충 등 속도

국내 의약·바이오 업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미국 정부가 수입산 의약품에 대해 관세 100% 부과를 예고하면서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에 “모든 해외 브랜드 의약품에 대해 10월 1일부터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시행 방안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트럼프의 예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올해 초부터 수입산 의약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지난 7월에는 수입 의약품에 1년 6개월 유예 후 2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구체적인 시기를 발표했다.

100% 관세는 앞서 밝힌 200% 보다 낮아진 수치지만 현실화할 경우 수출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 전망이 우세하다. 미국이 한국의 의약품 수출국 1위 국가라서다. 관세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을 상대로 한 의약품 수출액

은 2조1000억 원으로 2위 수출국인 헝가리(1조7600억 원)보다 3400억 원 많았다.

트럼프 행정부가 행정 명령을 통해 고관세를 부과하면 한국산 의약품의 수출 경쟁력은 낮아진다. 유럽과 일본 등 미국과 상호관세 협의를 다결한 국가는 최혜국 대우 원칙에 따라 의약품에 15% 관세만 부과기 때문이다. 한국 제약바이오협회 관계자는 “고관세 부과 현실이 되면 대미 수출액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 나오지 않아서 트럼프 대통령의 입만 바라보고 있다”고 말했다.

의약·바이오 업계는 고관세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대비하고 있다. 대미 의약품 수출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100%



한국 의약품 수출 상위 5개국 단위: 원 ※2024년 기준

미국	2조1000억
헝가리	1조7600억
독일	8100억
스위스	6100억
일본	6000억

자료: 관세청

트럼프 대통령의 의약품 관세 발인

2025년 4월 9일	“곧 대규모 의약품 관세 발표할 것”
5월 5일	“향후 2주 이내에 의약품 품목별 관세 발표할 것”
7월 8일	“의약품 수입품에 대해 매우 높은 관세, 예컨대 최대 200%까지 부과할 수 있다”
8월 6일	“(의약품 및 반도체 관세) 다음 주 또는 곧 발표”
9월 26일	“브랜드 제약(특히 의약품)에 대해 10월 1일부터 100% 관세. 공장 건설 중인 경우 면제”

바이오 의약품(63.4%) 생산 기업은 올해 초부터 미국 내 재고를 확 늘리고 있다. 한 바이오 의약품 제조사 관계자는 “국내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물량을 평소 대비 2배 이상 늘렸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초부터 수입 의약품에 대한 관세를 수차례 예고한 만큼 행정 명령으

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재고를 늘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별도로 제약·바이오 기업은 미국 내 생산 시설 확충에 속도를 내는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 공장을 둔 경우 고관세 적용에서 예외로 한다”며 현지 투자를 압박하고 있다. 셀트리온이 지난달 23일 미 뉴저지주

브랜치버그 소재 바이오의약품 생산 공장 인수를 전격적으로 발표한 건 높아지는 관세 장벽과 관련이 깊다. 셀트리온은 공장 인수에 3억3000만 달러(4600억 원)를 투자할 계획이다.

롯데바이오로직스는 2년 전 미 뉴욕 주 시러큐스에 소재한 바이오 의약품 생산 공장을 인수했다. SK바이오팜은 미국령 푸에르토리코에 의약품 위탁생산 업체를 확보한 상태다. 미국 내 생산 거점을 마련하지 못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현지 공장 인수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제약·바이오 업계에선 한국 정부가 미국과의 관세 후속 협상에 속도를 내는 게 유일한 해결책이란 목소리가 크다. 제약 업계 관계자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약가 인하와 공급망 안정화에 있어 한국산 바이오 시밀러 의약품이 중요한 만큼 관세 협상에선 무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미 행정부의 수입 의약품에 대한 고관세 정책이 글로벌 의약품 시장을 뒤흔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약값을 세계 최저 수준으로 만들겠다”며 글로벌 제약사를 압박하고 있다. 이에 화이자사는 지난달 30일 미국 내 약값 인하를 발표했다. 다른 글로벌 제약사도 약값 인하 선언에 동참 가능성이 높다.

강기현 기자

냉동 배아, 냉동 난자보다 임신 확률 높아...

실패 대비해 4~5개 정도가 적당 보관 한도 5년 감안해 시술 고려 안심은 금물, 가능성 높이는 목적

1 배우자 있으면 배아 보관이 이익 냉동 배아는 냉동 난자보다 임신 확률을 좀 더 높여준다. 임신 가능성이 확보된 배아를 선별해 보관해서다. 난자를 채취해 정자와 수정시키고 최대 7일까지 배양하는 과정에서 건강하지 않은 배아는 걸러진다. 배우자가 있으면 배아 보관을, 없으면 난자 보관을 권하는 이유다. 일반적으로 냉동한 난자의 절반가량은 해동 단계에서 죽는다. 최 교수는 “잘 자란 배아 한두 개만 골라 얼려 뒤도 다음에 녹여 임신 시도를 해볼 수 있다. 냉동 배아 개수는 시술 당시 남편의 정자 상태와 아내의 자궁, 난소 상태 등을 고려해 결정하는데, 실패에 대비해 4~5개 정도면 적당하다”

고 설명했다.

2 최대 보관 5년, 시술은 만 37세 안 넘게 배아 보관 기간은 법적으로 최대 5년이다. 이후엔 폐기해야 한다. 보관 기간을 고려해 시술 연령을 결정하는 것이 좋다. 연령이 어릴수록 한번에 좋은 배아가 나올 확률이 높지만, 보관 만료 시기 나이도 그만큼 빨라지기 때문이다. 최 교수는 “시술 연령이 고만되면 현실적으로 너무 이르지 않은 만 35세 정도, 늦어도 만 37세는 넘기지 않는 게 좋다”며 “보관의 의미는 좋을 때 얼려 두고 나중에 쓰겠다는 것인데, 만 40세가 넘으면 좋은 배아 비율이 확 떨어지는데다 보관했던 배아로 임신할 확률도 낮아진다”고 했다.

3 둘째 난임, 무자녀 계획 반복 대비 배아 보관은 그간 젊은 암 환자와

자궁내막증 환자들이 주로 했다. 항암 치료와 난소 기능 저하 등으로 자연 임신이 어려워 가임력을 보존하기 위해서다. 최근엔 의학적, 환경적으로 난임 원인이 다양해졌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는 배아 보관의 활용 범위가 확대될 여지가 크다.

난임 병원에서 의외로 많은 환자는 둘째 난임이다. 최 교수는 “과거에는 첫째를 자연 임신으로 잘 낳으면 둘째도 문제없다고 여겨졌는데, 요즘은 둘째 계획 시점이 만 35세를 넘어간다. 둘째 임신에 부부 간의견이 달라 배아를 보관해 두는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30대 부부가 당장 아이를 낳을 형편이 되지 않으면 배아 보관이 대비책의 하나다. 최 교수는 “진료실에서 보면 난임을 생각 못 하다 뒤늦게 후회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적지 않다”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여러 단계의 난임 치료가 필요해 고생하기 쉽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자녀 계획을 막연하게 생각하던 사람들도 만 40세를 넘기면서 확고하게 임신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만약을 대비해 배아를 얼려둘 수 있음을 선택권 차원에서 알고 있으면 좋다”고 조언했다.

4 보관했다고 막연한 안심 말아야 배아 보관을 해줬다고 막연하게 안심하는 건 금물이다. 임신 가능성을 높여줄 뿐 임신, 출산을 보장하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아무리 늦어도 30대 후반 내지 40대 초반엔 자녀 계획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그레아 보관해둔 배

아로 임신, 출산에 실패했을 때 차선책을 시도해볼 여지가 있다. 최 교수는 “배아 등급이 좋을수록 임신율이 올라가기는 하지만 임신, 출산을 보장해주는 건 아니다”며 “배아 보관 역시 나중을 대비하는 정도의 목적으로 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배아 보관 기간(5년)에 따른 임신율은 별 차이 없다. 배아 동결 기술이 진일보했다. 최 교수는 “보관을 오래 해두면 안 좋을까 봐서 두려워 해야 하나 걱정하는 환자가 많은데, 보관 기간에 따른 부담감은 덜어도 된다”며 “잘 키운 배아는 얼렸다 녹였을 때 생존율이 높다.” 이민영 기자



퍼스트 홈케어
홈케어 에이전시

퍼스트 홈케어

www.firsthco.com

퍼스트 홈케어,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과 편의를 위한 종합 간병서비스!

“간병이 필요하신 모든 분들을 퍼스트로 모십니다.”









직 원 모 집

퍼스트 홈케어에서는 어르신을 진심으로 섬기며, 내 가족처럼 대할 수 있는 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간병인:00명 / 코디네이터:00명

퍼스트 홈케어에서 본인 능력을 무한대로 펼치며, 안정적인 삶을 영위해 보세요. 퍼스트 홈케어가 있습니다.

*퍼스트 홈케어 위치: 센터빌 스파월드 건너편 3층 메디컬 빌딩

퍼스트 홈케어, 푸드스텝, 메디케이드 상담 및 신청 도와 드립니다

Main Office 13890 Braddock Road, #304A, Centreville, VA 20121

T. 571-549-6789 / F. 571-300-7005 / E. homecare@firsthco.com

콩 한 줌, 두유 한 잔... 유방암 위험 낮추는 건강 습관

정소연
국립암센터 유방암외과 전문의

일상 속 유방암 예방법

폐경 후 비만, 에스트로겐 수치 높여 암 예방 위해 적절한 체중 유지를 식물성 에스트로겐 함량 높은 콩 등 채소·과일·생선·통곡물 섭취 도움 적색육·가공육·고지방식은 삼가야

유방암은 전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에서도 여성에서 가장 발생이 많은 암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래서 매년 10월 전 세계적으로 '유방암 인식 향상의 달(Breast Cancer Awareness Month)'로 지정돼 있다. 도시 곳곳에 핑크빛 리본도 걸린다.

다행인 건 우리나라의 경우 여러 검진 시스템을 통해 조기발견율이 높고, 치료제의 발전과 암환자를 위한 치료비 지원으로 생존율이 향상되어 5년 생존율이 94% 이상이란 점이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에서도 '유방암 인식 향상'으로 위한 캠페인'을 해야 하고 있다. ①먼저 유방암에 대해, 유방암 환자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하고 ②조기 진단이 중요한 암이기 때문에 조기 진단 할 수 있는 방법을 이해하고 관심을 가지며 ③유방암과 관련한 생활습관 등을 알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취지에서다.

5년 생존율 94%... 2030 환자도 많아

우리나라의 경우 40대 후반, 50대 초반의 여성에서 발생이 많은데, 이러한 양상은 폐경 이후에 고령으로 갈수록 증가하는 서양의 다른 나라와 달리 젊은 연령에 해당한다.

이러한 호발 연령에 유방암으로 진단되어 오는 40~50대 환자들의 상당수가 부모를 모시거나 남편과 학령기의 아이들을 돌봐야 하거나 직장생활을 병행하는 워킹맘인 경우도 많아 진단과 치료받는 중에도 오롯이 본인의 치료에 집중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생기기도 하고, 가정과 직장에도 영향을 주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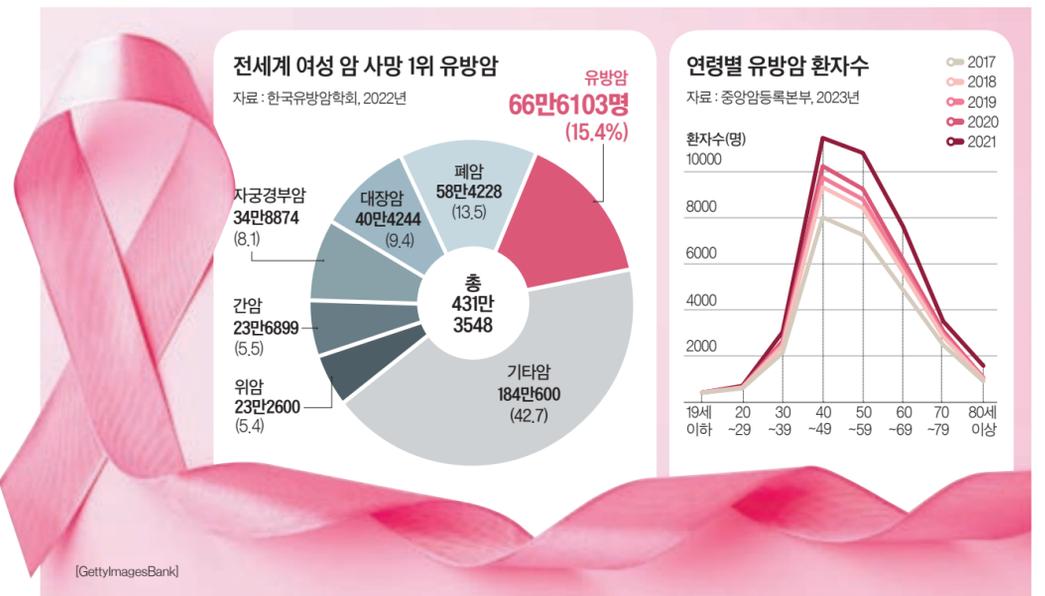
게다가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20~30대의 젊은 유방암 환자들이

의 발생도 상대적으로 높는데 결혼을 앞둔 여성의 경우 과혼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치료 이후 난임·불임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재발·전이될까 봐 출산하기를 주저하거나, 직장에서 업무 배제될까 봐 유방암인 것을 숨기거나, 치료로 인해 변해 버린 외모로 인해 또는 재발에 대한 공포로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리기도 한다.

유방암은 환자가 또는 가족들이 잘못해서 생기는 병이 아니고, 유방암을 진단받고 치료받는 것이 부끄러운 일도 아니다. 다소 다양한 치료, 장기간의 치료(수술·항암·방사선·호르몬·표적치료·면역치료 등)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유방암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긴 치료의 여정을 함께 응원해주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핑크리본 캠페인이 필요한 것이다.

또한 유방암은 자가검진·정기검진을 통해 조기에 진단할 수 있기 때문에 유방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유방암은 다른 암과 달리 자가진단과 정기검진을 통해 스스로 또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암이다. 2015년 국립암센터와 국가암검진 권고안 제·개정위원회에서 제시한 유방암 검진 권고안에서 "40~69세의 여성은 2년마다 국가 검진을 이용한 유방촬영술"을 권장하고 있다.

다만, 이 권고안은 증상이 없을 때



하는 선별검사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만져지는 종괴가 있는 경우, 유두에서 핏물 섞인 분비물이 있는 경우, 유방·유륜의 피부변화나 염증성 변화 등 증상이 있는 경우는 서둘러 유방 전문의를 만나 필요한 검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

유방에 만져지는 혹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폐경 전 여성의 경우 20대부터는 한 달에 한번, 생리 종료 후 3~5일 사이에, 폐경 후 여성의 경우 월 1회 일정한 날을 정해서 거울 앞에서 유방을 관찰하고 만져보는 자가검진이 권고된다. 가족 중 유방암이나 난소암 환자가 있는 경우, 특히 BRCA1/2 유전자 변이가 확인된 고위험 여성의 경우 전문의 상담을 통해 별도의 조기검진 계획을 세워야 한다.

우리나라 여성의 유방암 발생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생활 습관과 관련해서는 서구화된 식사, 저조한 출산, 늦은 연령의 첫출산, 비만, 스트레스 등이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 따라서, 유방암 예방을 위해 생활습관을 돌아보고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체중 조절과 규칙적인 운동**=폐경 후 비만은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을 높여 유방암 위험을 키울 수 있다.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고 비만인 경우 체중 감량을 하도록 하자. 또한 하루 30분 이상, 주 5회 이상 빠르게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등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실천해보자.

◆**건강한 식습관**=붉은 고기, 가공육, 고 지방식은 줄이고, 채소·과일·통곡물을 충분히 섭취하도록 하자. 단백질 섭취를 위해 백색 고기나 생선, 콩제품을 선택하자. 특히, 대두, 두부, 콩제품에 함유된 식물성 에스트로겐(이소플라본)은 유방암 위험을 낮추는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금주하기**=알코올은 체내 에스트로겐 농도를 증가시켜 유방암 위험을 높일 수 있다. 하루 한두 잔이라도 장기간 섭취할 경우 위험도가 올라가므로,

절주 혹은 금주가 바람직하다.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만성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은 면역기능을 떨어뜨려 암 예방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규칙적인 수면과 명상, 취미활동 등을 통해 마음의 건강도 함께 돌보자.

40~69세 여성 2년마다 검진 권장

핑크 리본은 단순한 상징물이 아니라 '유방암에 대해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조기 진단을 위해 자가검진과 정기검진을 챙기고, 유방암 예방을 위한 생활 습관 개선의 중요성을 함께 알리자'는 연대의 표시이다. 유방암은 환자나 가족들이 죄책감을 느끼거나 사회적 낙인으로 남아야 하는 병이 아니다.

10월에는 유방암 환우, 병원, 기업, 공공기관 등이 참여하는 핑크리본 캠페인을 통해 유방암을 제대로 알고 이해함으로써 나와 가족·직장·사회에서 유방암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예방, 조기진단, 적극적 치료를 통해 가정과 사회가 모두 건강해지길 기대한다.

전문의 칼럼 구자남 아인병원장

청소년 미래 좌우할 성교육, 성재생산건강관리 이해 높여야

최근 '딥페이크'(불법합성 영상물) 디지털 성범죄가 학교를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어 청소년 성교육 현장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이에 건전한 성 인식과 올바른 성 문화 조성을 위해 성인지각 수성에 기반한 포괄적 성교육의 중요성이 대두하고 있다.

수십 년간 산부인과에 몸담은 의료진으로서 성교육 강화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는 바다.

성교육은 성재생산건강관리에 대한 인지를 높여 청소년의 성 건강과 미래, 더 나아가 사회의 건강을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한다. 실제로 필자가 진료실에

서 마주하는 환자들의 어려움 중에는 성교육을 통해 대비하거나 예방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가 있어 안타까움을 느끼곤 한다.

대표적인 것이 계획되지 않은 임신이다. 계획되지 않은 임신으로 인공임신중절을 할 경우 죄책감, 우울감 등 정

신적 후유증이나 자궁, 골반 등 질환이 발생하기도 한다. 특히 습관성 유산, 불임 등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어 훗날 가족계획에도 영향을 미친다. 국내 연구에 따르면 인공임신중절 경험 여성의 난임 위험은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4.1배 높다.

계획되지 않은 임신 예방의 첫걸음은 피임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피임에 대한 인지와 실천이 부족한 실정이

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청소년과 19~39세 여성 중 현대적 피임법만을 사용한 비율은 20%대에 그쳤다.

현대적 피임법이란 자연적 피임법인 월경주기법과 질외사정 이외 콘돔, 피임약, 장기 가역적 피임법(LARC) 등을 말한다. 청소년 중 22.9%는 '피임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65.7%는 '임신이 쉽게 될 것 같아서' 피임을 할 생각 없었다고 답했다.

최지호

가정의학 / 노인의학 클리닉

24/7 전화 진료



최지호, MD
가정의학/노인의학 전문의

-1995년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2006년 플로리다 대학교 가정의학 전문의 수료
-2013년 조지워싱턴 대학교 노인학 펠로우 수료

전화/문자/사진/비디오
240-232-5989
Fax: 703-662-6165
frontdesk@immediatehousecalls.com
immediatehousecalls.com

전문 노인의학 / 일반 진료

- 처방전 관리(당뇨, 고혈압, 고지혈, 갑상선, 위장약, 기억력/치매, Pain Patches(Lidoderm, ZTlido, Flector, Pennsaid)
- 통증치료(체외충격파 / 치료 초음파)
- 치매(기억력) / 우울증 검사
- 상·하 기도 감염, 요로 감염
- Xray / CT / MRI 리퍼럴
- 종합 피 / 소변 검사
- 심전도 검사

건강백세+건강 지킴이 주사(수액/정맥주사)

- 기력회복
- 면역력 강화
- 항산화
- 머리카락 & 피부 건강
- 뇌 건강(기억력, 집중력)
- 관절통 완화 & 염증 개선
- 심혈관
- 신경 안정

한방 치료 / 치료 마사지 (MD만 가능)

- 한방 치료
- 치료 마사지

Ace Acupuncture
571-438-4644

Healing Hands Massage
703-314-9461

*** 메디케어 파트 B 받습니다. (ANTHEM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VA

4216 Evergreen Lane, ste 125
Annandale, VA 22003-3256

진료시간 월~수, 9am~3pm
토, 9am~noon

MD

16051 Comprint Circle,
Gaithersburg, MD 20877-1320

진료시간 목~금, 9am~3pm
*메릴랜드에서만 치료 마사지와 한방 치료가 가능합니다.

교통사고 치료 전문



멜시척추신경

여러분 가정의 건강을 지켜드리겠습니다.



25년 임상경험의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 치료 병원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 ▷ 교통사고 · 운동사고 · 직장사고
- ▷ 스포츠 · 노동 후유증
- ▷ 오십견 및 급만성 요통
- ▷ 좌골 신경통

- ▷ 척추측만, 거북목 증후군
- ▷ 관절 클리닉
- ▷ 손발 통증 및 저림

- 최신 물리치료, X-Ray 완비
- 유학생 보험 / 여행자 보험
- 교통사고 보험처리에 필요한 모든 서류작성을 도와드립니다.
- 실력있는 변호사 선임



전문의 박종현

한의학 김경환

전문의 정지현

www.jungmercyclinic.com • Email : jungspinechiropractic@gmail.com



애난데일

703.256.3005

7535 Little River Trpk. #200-B
Annandale, VA 22003
(한국일보 옆 건물 2층)



센터빌

703.830.0993

13880 Braddock Rd., Suite 102
Centreville, VA 20121



엘리콧시티

410.465.3221

9005 Chevrolet Dr. #4
Ellicott City, MD 21042



오바마케어 보조금 중단, 조기 은퇴자 직격탄

공화·민주 의견 차이 못 좁혀 기준 초과면 세액공제 전부 보험료 연소득 30% 될 수도

2200만 명에 이르는 오바마케어(ACA) 가입자 중 92%가 내년엔 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고 비영리 보건정책 연구기관 KFF가 분석했다.

민주당은 연방정부 섰다운 사태를 끝내기 위한 협상에서 이러한 세액공제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공화당은 정부 재개와는 별도로 ACA 보조금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KFF는 오바마케어 보조금이 만료될 경우 ACA 가입자의 평균 보험료가 114%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메디케어 자격 연령에 이르지 못한 50~64세 중산층 조기 은퇴자들의 보험료 인상 폭이 가장 클 것으로 분석했다.

KFF의 린 코터 보건정책연구 책임자는 “이들은 세액공제가 사라질 경우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인구집단”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들이 보험을 유지하려면 연소득의 30%가량을 보험료로 지불해야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직장 제공 보험에 가입한 가정은 2024년 기준 소득의 약 2%만 보험료로 냈다.

만약 보조금이 사라지고 의료비가 그대로라면 부부의 의료 관련 지출은 연소득의 4분의 1을 넘을 수 있다. 이 경우 은퇴 자금을 더 인출하거나 소셜 연금을 조기 청구해 평생 수령액이 줄어드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다. 불필요한 진료를 미루고 여행을 포기하는 등 생활 조정도 불가피해진다.

오바마케어가 시행된 초창기부터 ‘프리미엄 세액공제’는 가구 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100%~400% 범위에 해당하는 가입자에게 적용됐다. 2인 가구 기준으로 2025년 연소득이 2만1150달러~8만4600달러 사이여야 한다.

과거에는 소득이 이 기준을 단 1달러라도 초과하면 세액공제를 전혀 받을 수 없는 보조금 절벽이 존재했다. 이 경우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했다.

그러나 2021년 ‘미국국제계획법(ARP)’은 팬데믹 구호법의 일환으로 세액공제 금액을 확대하고, 소득 상한선을 없앴다. 그 결과 연방빈곤선의 400%를 초과하더라도 일정 비율(8.5%)까지만 보험료를 부담하면 되도록 했다. 2022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은 이 제도를 올해까지 연장했다. KFF에 따르면 ARP 이후 오바마케어 가입자는 1200만 명에서 2400만 명으로 두 배 증가했다.

의회예산국(CBO)은 보조금 연장을 10년간 유지하려면 3500억 달러, 연평



오바마케어 보조금이 사라지면 소득이 연방빈곤선의 400%를 초과할 때 8.5%까지만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한 상한선이 사라져 중산층 조기 은퇴자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오바마케어를 지지하는 시위대들.

균 약 350억 달러가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만약 의회가 보조금을 연장하지 않는다면 일정 소득 이하 가구는 여전히 기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액수는 크게 줄어든다. 소득이 빈곤선의 400%를 넘는 가구는 다시 보조금 절벽으로 인해 혜택이 완전히 사라진다.

KFF 분석에 따르면 빈곤선의 402%에 해당하는 연소득 8만5000달러인 60세 부부는 보조금이 사라질 경우 월 보험료가 약 1900달러 늘어나고 연간 부담은 2만3000달러 가까이 증가한다.

보험사는 고령자에게 더 높은 요금을 적용할 수 있는데 이는 대부분의 주에서 합법이다. 뉴욕주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연령 요율을 허용하고 있으며, 고령자는 일반적으로 질병 위험이 높고 보험 사용 빈도가 많기 때문이다.

오바마케어 보조금의 향방은 단순한 세제 혜택을 넘어 중산층 은퇴자들의 삶의 질과 재정 안정을 좌우할 중대한 분기점이 되고 있다.

안유희 객원기자

“소셜 연금 70세 수령” 10% 그쳐

44%는 “67세 이전 청구 계획”

근로자 10명 중 9명은 70세까지 기다렸다가 신청해야 소셜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가장 흔한 재정 조언을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글로벌 투자사 슈로더스가 지난 21일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1500명 중 10%만 70세까지 기다릴 계획이라고 답했다. 100%를 받을 수 있는 67세 이전에 청구할 것이라고 밝힌 이들은 44%나 됐다.

슈로더스의 데브 보이든 미국 퇴직 연금 부문 대표는 CBS뉴스와 인터뷰

에서 추가 소득을 포기하는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고 분석했다. 보이든 대표는 “이번 조사에 따르면 70%는 ‘늦게 청구할수록 수령액이 늘어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그 때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보이든 대표는 많은 은퇴자들이 개인 은퇴 자금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해 은퇴 즉시 소셜연금 수입이 필요하다고 현실을 강조했다. 이는 최근 많은 가계가 한 달 월급으로 한 달을 생활하는 상황과도 연관성이 있다.

또 다른 이유는 소셜연금의 불확실

성이다. 보이든 대표는 “많은 이들이 기다리면 소셜연금 재원이 고갈돼 못 받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소셜연금은 급속한 고령화로 지출이 수입을 앞지르고 있으며 사회보장위원회는 현행 제도가 유지될 경우 2034년경 신탁기금이 고갈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다만, 신탁기금이 고갈돼도 연금 지급이 완전히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근로자들의 보험료로 여전히 일정 수준의 재원이 확보되기 때문에 수급액이 약 20% 감액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현재 7000만 명 이상의 수령자에게 재정적으로 큰 타격이 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제도 보완으로 소셜시

큐리티 세금 부과 상한선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는 연소득 17만6100달러를 초과하는 부분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과세 상한을 올리면 재정 확보에 숨통이 트일 수 있다.

슈로더스 조사에 따르면 근로자들은 편안한 은퇴 생활에 필요한 소득으로 월 5032달러를 생각했다. 하지만 현재 은퇴자들의 실제 월 평균소득은 3250달러에 불과하다. 보이든 대표는 “이 격차는 근로자들이 훨씬 더 적극적인 은퇴 준비와 재정 설계가 필요함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소셜연금을 잘 모르는 경우도 적지 않다. 얼라이언스 미래은퇴센터가 최근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대다수 미국인들은 소셜시큐리티 제도나 자신

이 받을 연금 액수를 잘 모른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20%는 “소셜연금만으로도 노후 생활이 가능하다”고 믿고 있지만 실제로는 소셜연금은 은퇴 전 소득의 약 40%만을 대체한다.

골드만삭스의 최근 분석에 따르면 젊은층도 은퇴 대비에 어려움을 겪는다. 젊은 세대의 75%는 “은퇴에 대비해 저축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주거비와 생활비 등 기본 지출이 소득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70세까지 기다리면 더 받는다”는 조언은 근로자 대부분에게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선택이다. 많은 이들이 제도의 원리를 알고 있지만 당장의 생활비와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조기 수령을 선택하고 있다.

중앙일보는 워싱턴 한인사회를 위해 새 지평을 열어갑니다.

힘찬출발 중앙일보가 함께합니다.

독자가 행복 해진다

① 워싱턴 중앙일보
T. 703-281-9660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Health Through LoveSpine Chiropractic
Extremity Specialist

척추사랑

“여러분들은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척추를 사랑하십니까?”

<척추사랑> 교통사고/척추신경/손/발 전문 통증병원에서는 정확한 진단후,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 정성껏 집중 치료합니다.”

교통사고 통증 치료전문 / 자세교정

진/료/과/목

- ◆ 교통사고후유증 (Auto Injury)
- ◆ 두통/목/턱관절 (TMJ) 통증
- ◆ 허리/척추디스크/좌골신경통
- ◆ 손목/팔꿈치/어깨 통증
- ◆ 운동상해/직장상해
- ◆ 발/무릎 통증/자주빠는 발목
- ◆ 만성피로/근육통/관절염
- ◆ 재활/물리/운동 치료
- ◆ 자세교정 및 건강유지
- ◆ 청소년 성장클리닉
- ◆ 임신부/산후 및 여성클리닉

교통사고 필요한 모든 절차를 불편함이 없도록 도와드리며, 치료에만 전념하실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각종 보험 및 자동차보험, 여행자, 유학생보험 / 각종 건강상담 환영

교통사고/척추신경/손/발 전문 통증병원
LoveSpine
Chiropractic Clinic 척추사랑

라벨 클리닉
T 301.231.7588 / F 301.231.7587
11820 Parklawn Dr, Suite 202
Rockville, MD 20852
Email : lovespineclinic@yahoo.com
로라코너에서 3분, 샬러츠타운 북대문 건너편 한양대(Harvard)에서 10분 거리

센터빌 / 챔플러 클리닉
T 703.429.4622 / F 703.429.4623
14161 Robert Park Ct, Suite B
Chantilly, VA 20151
Email : lovespineclinic@gmail.com
센터빌 북대문/한양대(Harvard)와 챔플러 북대문에서 각각 5분거리

드라마 '김부장 이야기' 화제
회사서 밀려날까 떠는 50대 끈대
류승룡식 코미디 감각으로 살려
소설 원작보다 가족 이야기 더담아

'내 집 마련'과 '안정적인 직장'. 대다수 한국인이 꿈꾸는 삶의 조건이다. 통신 3사 중 하나인 'ACT'에서 근무하는 영업 1팀 부장 김낙수는 이 꿈을 모두 이뤘다. 서울에 본인의 명의로 된 집이 있고, 25년째 대기업에 근무 중이다. 김낙수 역시 자신을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부장'으로 칭하며 자존감을 채운다.

지난 25일 첫방송된 JTBC 토일드라마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부장 이야기'(이하 '김부장 이야기')는 2021년 출간된 송희구 작가의 동명 베스트셀러 소설을 원작으로 한다. 드라마 '스카이캐슬'(2018~2019), '허어로는 아님니다만'(2024) 등을 연출한 조현탁 PD가 메가폰을 잡았고, 영화 '내 아내의 모든 것'(2012), '극한직업'(2019) 등으로 '믿고 보는 배우'에 등극한 류승룡이 김부장을 연기한다. 주연으로는 '개인의 취향'(2010년) 이후 15년 만의 안방극장 복귀다.

원작 소설은 "페이퍼마다 웃음과 소름이 교차하는 극한의 현실적인 디테일"(배우 류수영의 추천사)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현재까지 40만부 판매를 기록했고, 동명 웹툰으로도 연재 중이다. 드라마 역시 조현탁 감독의 디테일한 인물 묘사와 류승룡 배우의 리얼한



류승룡 배우는 15년 만의 안방극장 복귀작으로 JTBC 드라마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부장 이야기'를 택했다. 그가 연기하는 주인공 김부장은 직장에 헌신하는 기성세대의 사고방식을 답습하고, 사회적 기준에 자신을 맞추려 하는 인물이다. [사진 SLL·드라마하우스·바로엔터테인먼트]

서울 집 가진 대기업 부장 그런데 왜 행복하지 않지?

연기로 호평받고 있다. 1화 시청률은 2.9%에 그쳤지만 2화는 3.5%로 상승하며 화제의 중심에 섰다.

주인공인 6년차 부장 김낙수는 퇴직을 권유받을까 겁을 내면서도 임원을 빨리 달고 싶은 욕망에 가득한 인물이다. 이른 아침 상무 자리에 몰래 앉아 임원 흉내를 내보다가, 입사부터 25년을 함께한 '만년 과장' 동기가 울릉도로 좌천되자 "나는 아니라서 다행이

다" 안도한다. 남 부러울 것 없이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누구보다 경쟁의식이 강하다. 상무가 들고 다니는 가방보다 비싼 가방을 사려고 용을 쓴다.

류승룡은 부동산과 승진에 집착하지만 누구보다 '쿨하게' 보이고 싶어하는 50대 직장인의 모습을 다양한 표정과 말투로 능숙하게 그려낸다. 전형적인 '끈대'의 대사를 내뿜는 김부장이

몹지 않게 보이는 건 배우의 힘이다. 조현탁 PD는 27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류승룡 배우는 현장에서 동물적인 코미디 감각으로 대사마다 미묘한 뉘앙스 차이를 살려 연기했다"고 전했다.

직종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지 않은 소설과 달리, 드라마는 통신사를 주요 배경으로 택했다. 50대 직장인이 느끼는 '시대 변화'를 극대화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제작진은 기술의 변화를 빠

르게 따라가야 하지만, 몸으로 뛰며 통신망을 구축하던 과거의 습관이 남아 있는 업계로 통신사를 택해 취재하고, 드라마로 반영했다.

드라마는 큰 틀에서 원작의 서사를 따르지만, 부동산 이야기를 상당 부분 떨어내고 김부장의 과거 서사와 가족 관계를 풍성하게 담았다. 한국 부동산 시장은 변화가 빠른 만큼, 부동산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갈 경우 방영 시점에 시의성을 잃을 위험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2화부터 아버지 김부장과 아들 김수겸 사이의 갈등이 고개를 든다. 김부장은 아들이 자신처럼 대기업에 취직해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길 바란다. 아들은 스타트업에 들어가 '나만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내고 싶어한다. 둘은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다르다.

원작에서 '서울 자가', '대기업 부장'이라는 사회적 기준을 중요하게 여기던 김부장은 여러 고비를 넘기며 자신을 표현하던 사회적 수식어들을 차츰 떼어낸다. 드라마에서도 당장 2화부터 김부장은 동기 대신 퇴직 권유 대상으로 지목되며 '대기업 부장' 직을 내려놓을 위기에 처한다.

공회정 드라마평론가는 "소위 말하는 '성공한 사무직'으로 살아가는 50대 직장인들이 격하게 공감할 주제"라며 "그(압박) 속에서 살다 보면 나 자신을 잃곤 하는데, 김부장이 나를 찾아가는 모습을 통해 시청자들의 공감을 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혜리 기자

“나의 조국 전곡 연주, 한국청중 더 잘 이해할 것”

오늘 한국 공연 체코필 비치코프
러 체제 비판한 러 출신 지휘자
“민족주의는 정체성 지키려는 것”

영국의 BBC 뮤직 매거진은 지난 4월 체코 필하모닉에 '오케스트라 어워드'를 수여했다. 체코필이 내놓은 스테타나의 '나의 조국(Ma vlast)' 음반에 대한 상이었다. 이 음반의 주인공은 상임지휘자인 세른 비치코프(72)다. '나의 조국'은 총 6곡의 모음곡. 그중 2곡인 '블타바 강(물다우) 강'은 세계 곳곳에서 즐겨 연주되지만, 전체 80분에 달하는 전곡 공연은 드물다. 작곡가가 뜨거운

애국심으로 보헤미아의 전설과 풍경을 그려 넣은 교향시다.

"사실 7년 전 체코필을 맡기 전에는 이 곡을 한 번도 연주해보지 않았다. 심지어 그렇게 유명한 '블타바 강'조차!"

지난달 말 중앙일보와 화상 인터뷰에서 비치코프는 "이 음악은 너는 그들의 것도, 내 것도 아니다. 한국인들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28일 서울 예술의전당에서 체코필과 함께 '나의 조국' 전곡을 연주한다.

-오랜 경력에서 한동안 '블타바 강'도 연주해보지 않았다는 점이 예상 밖이다. "기회가 오지 않았다. 하지만 체코필



러시아 태생의 지휘자 세른 비치코프는 2018년부터 체코 필하모닉을 이끌며 수준을 끌어올렸다. [사진 인아츠프로덕션]

의 상임 제안을 받는 순간 '나의 조국' 없이는 안된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이 곡은 체코인들에게 DNA와 마찬가지로

-스메타나는 체코의 자연과 전설을 음

악으로 그리고 있다. 하지만 한국인들도 거기에서 일종의 애국심을 느낀다. '나의 조국'은 전 세계 청중에게 어떤 의미인가.

"음악은 지금 벌어지는 일들과 여전히 연관돼 있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됐을 때 체코필과 유럽 투어를 준비 중이었다. 침침이 목요일에 시작됐고 우리는 그다음 주 초에 리허설을 했는데 연주곡이 '나의 조국'이었다. 그때 이 곡이 아주 다르게 느껴졌다. 모든 사람의 언어로 '나의 나라'를 표현할 수 있다. 사람과 상황에 따라 조국의 의미는 달라지고, 이 음악 또한 그렇다."

스메타나는 '나의 조국' 완성 4년 후인 1884년 세상을 떠났다. 말년의 그는 청력 상실과 정신적 불안 속에 고통받았다. 하지만 젊은 시절의 뜨거웠던 애

국심은 살아있었다. 24세이던 1848년 그는 오스트리아 제국으로부터 독립하려는 체코의 혁명에 적극 가담했다

가 실패를 맛봤다. 망명 시기를 거쳐 말년에 집중된 작품이 '나의 조국'이다. 비치코프는 러시아 태생으로 20대에 미국으로 이주했으며 1985년 베를린 필하모닉 지휘 데뷔 등을 기점으로 파리-드레스덴-뮌헨에서 오케스트라를 맡았던 지휘자다. 러시아를 떠날 때부터 체제 비판을 서슴지 않았으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도 2023년 성명을 발표해 비판했다.

비치코프는 '나의 조국' 전곡을 한국에서 연주하는 의미를 강조했다. 비치코프와 체코필은 한국에서 28·29일 공연한다

김효정 음악에터

구강교육치과

나투라 치과

dental implants | bright smile

원장 강동호 Don Kang

- ◇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DDS
- ◇ 유펜 (Univ. Of Pennsylvania) 치과대학원 졸업 DMD
- ◇ 뉴욕대 (NYU) 치과대학 임플란트 수술 / 보철 과정 수료
- ◇ 한국, 미국에서의 27년 임상경력

www.naturadent.net

“염증없는 잇몸, 건강한 치아 오래가는 임플란트”

임플란트 • 잇몸치료 • 치아교정
Implant • Periodontal Surgery • Orthodontics Invisalign

응급원자 • 치아성형 • 신경치료
Emergency • Veneer Lumineers • Root Canal Treatment

닥터 강이 구강교육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유튜브에서 나투라 치과를 검색하세요!

natura dent dental implants | bright smile

나투라 치과 페어팩스 T. 703-652-4265

9508 Lee Highway, #A, Fairfax, VA 22031 (구)롯데 쇼핑 근처에 있는 IHOP에서 Lee Hwy 건너편

Lee Koo Acupuncture Pain Control Clinic & Herbs

서울 미극 한방병원

원장 이구 (한의학 박사) 저서

- *서울 중구 회현동 1가 86에서 출생
- *전 메릴랜드 한의과대학 교수
- *임상경력 50년
- *각종 보험 취급 (교통사고 보험 100%)
- *VA, MD, DC 면허 소지
- *신비한 체질의 세계 (사상의학)
- *만성병의 음식치료와 보양법
- *정설침구혈위대전
- *사암침법해설 (사상의학)

** 특진 (사암 오행침과 사상체질의학 전문)
모든 알리지, 피부병, 각종 통증, 목디스크, 갱년기 장애, 콧병, 불임증, 여드름, 기침, 정력감퇴, 통풍, 위산과다, 허리통증, 피곤증, 탈모증, 조루증, 이명, 변비, 복부개스, 설염, 부인과 하혈, 중풍, 이갈이, 코골이, 머리흔드는병, 수전증, 미용침, 치질출혈, 장출혈, 코피, 모든 출혈 치료됨.

703-256-8040 (24시간) 전화예약 바랍니다
11905 New Hampshire Ave., Silver Spring, MD 20904 (White Oak 도서관 옆)

서울 미극 한방병원
New Hampshire Ave. EXIT 28A
29 White Oak 도서관
650 495

크레딧 카드 환영
TV Travel Channel 서울이구한방병원 방영

연장 18회...다저스 '2승 같은 1승'

토론토 꺾고 WS 2승 1패 앞서가
연장 18회말 프리먼 끝내기 홈런
오타니 2홈런 포함 4안타, 9출루
오늘 4차전엔 선발투수로 출격



LAD저스 선수들이 월드시리즈 3차전에서 연장 18회 끝에 승리한 뒤 환호했다. 오타니 쇼헤이(17번)는 9출루 신기록을 세웠다. [연합뉴스]

로스앤젤레스(LA) 다저스가 메이저 리그(MLB) 월드시리즈(WS·7전4승제) 3차전에서 연장 18회 말 끝내기 홈런으로 승리하며 2년 연속 우승에 한 발 더 다가섰다.

다저스는 28일(한국시간) 미국 LA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린 2025 WS 3차전에서 토론토 블루제이스와 연장 18회 대접전 끝에 6-5로 이겼다. 6시간 39분간의 혈투를 승리로 장식한 다저스는 시리즈 2승1패로 앞서게 됐다. 122년 역사(1903년 시작)의 WS에서 연장 18회 경기는 최장 이닝 타이 기록이다. 2018년 WS에서 다저스와 보스턴 레드삭스가 연장 18회 혈투를 치렀다. 그다음은 연장 14회로 모두 세 차례다.

승리한 다저스의 정규 이닝(9회까지) 영웅은 오타니 쇼헤이(31)였다. 홈

런과 2루타를 2개씩, 모두 4개의 장타로 다저스 공격을 이끌었다. 이날 하루 무려 9타석에 나서 4안타·3타점·3득점·5볼넷을 기록했다. 1회 우익 선상 2루타에 이어 3회 솔로포를 터뜨렸다. 다저스가 2-4로 뒤진 5회에는 좌중간 2

루타로 타점을 올렸고, 4-5로 뒤진 7회에는 동점 솔로포로 5-5를 만들었다. 연장전 5타석에선 고의사구 네 차례와 볼넷 한 차례였다.

WS에서 한 선수가 4개의 장타를 친 건 1906년 시카고 화이트삭스 프랭크

이스벨(2루타만 4개) 이후 119년 만이다. 오타니는 신시내티 레즈와의 와일드카드 결정전 1차전, 밀워키 브루어스와의 내셔널리그 챔피언십시리즈(NLCS) 4차전에 이어 이날까지 세 차례 멀티홈런을 기록했는데, 한 포스트

시즌에 3개의 멀티 홈런도 최하다. 또한 경기 9차례 출루 역시 WS의 신기록이다.

연장전 다저스의 영웅은 '월드시리즈의 사나이' 프레디 프리먼(36)이다. 프리먼은 연장 18회 말 토론토 불펜 브랜든리틀로부터 끝내기 솔로포를 뽑아냈다.

프리먼은 지난해 뉴욕 양키스와의 WS 1차전에서 연장 10회 말 끝내기 만루홈런을 쳐 해당 별명을 얻었다. 다저스는 마지막 불펜투수 윌 클라인까지 마운드에 올렸고, 결국 WS 2차전 완투승 투수 야마모토 요시노부가 불펜에서 몸을 푸는 지경에 이르렀다. 프리먼의 드라마 같은 홈런으로 극적인 승리와 함께 마운드의 숨통도 트였다.

이날 3차전에서 타자로서 승리의 주춧돌을 놓은 오타니가 29일 4차전의 다저스 선발투수로 나선다. 지난 2018년 MLB 데뷔 이후 그의 WS 첫 승도적이다. 토론토에서는 오른손 투수 셰인 비버(30)가 출격한다.

송지훈 기자

LG "폰세만 잡으면"...한화 "폰세가 잡으면"

2승의 LG 트윈스, 2패의 한화 이글스. 올해 프로야구 한국시리즈(KS·7전4승제)는 일단 LG의 일방적인 우세다. 두 팀은 29일 대전 한화생명볼파크로 자리를 옮겨 KS 3~5차전을 치른다. 하루라도 빨리 우승을 확정하고 싶은 LG와 홈에서 그 장면을 지켜볼 수 없는 한화가 사흘간 진검승부를 펼친다.

정규시즌 우승팀 LG는 기세가 등등하다. 9명 모두 강한 타선과 물샴 틈 없는 수비의 위력을 1·2차전에서 재확인

오늘 LG·한화 한국시리즈 3차전 한화, 선발 폰세 내세워 반전 노려 LG, 치리노스 대신 손주영 선발로

인했다. 1차전에서는 플레이오프(PO) 최우수선수(MVP)인 한화 선발 문동주(4이닝 4실점 3자책점)를 성공적으로 공략했고, 2차전에서는 메이저리그(MLB) 출신 베테랑 선발 류현진(3이닝 7실점)을 무너뜨렸다. '한화 칼리'로 유명한 2차전 LG 선발 임찬규(3과 3분의 1이닝 5실점 4자책점)가 1회부터 홈런 두 방을 맞고 고전했는데도, 공격에서 무시무시한 응집력으로 한화의 상승세를 꺾어버렸다. '강속구 군단' 한화 마운드를 상대하기 위해 시속 160km짜리 피칭머신까지 동원해 KS를 준비한 효과를 톡톡히 봤다. 김경문 한화 감독은 "투수 쪽에서 실점이 많았다. LG 타자들이 잘 쳤다"며 "KS답게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 팬들께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수세에 몰린 한화는 홈에서 분위기 전환을 노린다. 한화의 3, 4차전 선발은 코디 폰세와 라이언 와이즈. 둘은 올해 한화의 정규시즌 2위를 이끈 '승리 보증수표'다. 폰세는 KBO리그 역대 한 시즌 최다 탈삼진(252개) 신기록을 세우며 다승(17승)-평균자책점(1.89)-탈삼진-승률(0.944) 4관왕에 오른 '슈퍼에이스'다. 와이즈도 16승(5패), 평균자책점 2.87, 207탈삼진으로 폰세와 완벽한 원투펀치를 이뤘다. 둘은 PO 1, 2차전에서 나란히 부진했지만, 5차전에서 각각 5이닝과 4이닝을 1실점으로 막아 한화를 KS 무대에 올려놓았다.

특히 폰세가 출격하는 3차전은 이번 KS의 분수령이다. 이미 2승을 확보한 LG는 3차전 선발로 오히려 치리노스가 아닌 손주영을 내세웠다. LG가 이날 폰세마저 잡고 3연승을 달린다면, 2년만의 KS 우승 문턱에 다가선다. 4차전 선발이 유력한 치리노스가 올해 한화전 3경기 평균자책점 1.40으로 무척 강했기에 더 그렇다.

배영은 기자

패배 잊은 안세영, 이젠 대기록 넘본다

프랑스오픈 우승, 올해 9번째 메달 13개 대회서 63승 4패, 승률 94%

'절대 강자'라는 사실은 일찌감치 인정받았다. 다음은 배드민턴사에 남을 대기록에 도전할 차례다. 배드민턴 여자 단식 세계 1위인 '셔틀콕 여제' 안세영(23·삼성생명·사진)이 2주 연속 정상에 오르며 시즌 9승을 달성했다. 안세영은 지난 26일(한국시간) 프랑스 세송세비네에서 열린 세계 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프랑스 오픈(수퍼750) 결승전에서 왕즈이(25·중국·2위)를 2-0(21-13, 21-7)으로 완파하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안세영은 올해 13개의 국제대회에서 63승4패를 기록했다. 승률은 94%에 이른다. 특히 이번 우승으로 안세영은 올해 열린 6차례의 수퍼750 등급 대회 중 5개를 휩쓸었다. 남녀를 합쳐 최다 신기록이다. 지난 6월 천위페이(27·중국·5위)에 달미를 잡혀 8강전에서 탈락한 싱가포르오픈이 '아픈 손가락'으로 남았다. 아울러 지난 2023년 자신이 작성한 여자 단식 단일시즌 최다 우승(10

회)에도 하나 차로 다가섰다. 당시 안세영은 월드투어 9개 대회와 항저우 아시안게임 등 10개 대회에서 우승했다.

올 시즌 안세영이 남겨둔 대회는 다음 달 18일 개막하는 호주오픈(수퍼500)과 오는 12월 중국 항저우에서 열리는 '왕중왕전' 성격의 월드투어 파이널까지 두 대회다. 안세영은 남은 두 대회에서 또 하나의 대기록에 도전한다.

일본 남자 배드민턴 '전설' 모모타 겐토(31·은퇴)의 단일 시즌 최다 우승 기록(11회)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것이다. 모모타는 지난 2019년 월드투어 파이널과 수퍼1000 등급 2개 대회, 수퍼750 3개 대회, 수퍼500 3개 대회, 수퍼300 1개 대회 및 아시아선수권까지 한 시즌 동안 11개 대회에서 우승했다.

남녀 및 단·복식을 통틀어 단일 시즌 최다 우승 기록이다. 안세영의 올 시즌 행보는 6년 전 모모타의 행보를 꼭 빼닮았다.

송지훈 기자



폰세

DC건물 | NNN | 창고 | 샵핑센터 리스팅 하실 건물주분들 최상의 조건으로 팔어드립니다!

Why US?

- 1 미국 3대 상업용 부동산 회사 Marcus & Millichap 의 업무경험을 통해 차별화된 마케팅전략들이 있습니다.
 - 30,000+바이어 / 브러커 Data Base 보유
 - Offering Memorandum, YouTube 제작
 - CoStar, LoopNet Premium 리스팅 광고
- 2 건물주의 이익과 직결되는 NATIONAL 테넌트를 찾아드립니다.

- 3 상업용 부동산 리스팅 전문업체 CoStar가 선정한 TOP POWER BROKER, 팀 플레이를 통해 비교할 수 없는 능력으로 최상의 결과를 드리겠습니다.
- 4 DC건물 테넌트와 TOPA (Tenant Opportunity to Purchase Act) 거래 전문, 개발업자와의 연계로 최상의조건으로 팔어드립니다.
- 5 현재 리타이어를 준비하시는 사장님들! 프랜차이즈, 도매, 호텔, 카와시, 코인런드리, 리커 비즈니스 / 건물 매매 케빈신과 은퇴를 설계하세요.
- 6 FULL SERVICE FOR REDUCED FEES! 브로커에게 주는 커미션에 대한 부담을 줄여드립니다.

20년 경력의 남보다 2배 더 뛰는 케빈신!!

- CoStar 선정 TOP POWER BROKER
- Broker Licensed DC, VA, MD
- Marcus & Millichap 근무경력 / NNN Investment
- Shopping Center 투자 / Property Management 경력
- ICSC Member International council of shopping centers

703-395-3123





우메켄 연말 감사 대축제,
더블 혜택으로 돌아왔습니다!

▶ 12월 31일까지

우메켄 효소환 모델
강석우/니연신 부부



올 연말 사랑하는 분들께 **우메켄**을 선물하세요

10% 할인 + 무료 선물

\$98이상
제품 구입시
할인+선물



FREE GIFT

100억 유산균
\$39

OR



FREE GIFT

리포포-C
\$68

\$165이상
제품 구입시
할인+선물



FREE GIFT

발효 미네랄
L칼슘
\$69

OR



FREE GIFT

건강 다시
타쿠미 2박스
\$56

할인혜택과 함께 **무료 선물**도 받으세요

SALE + 선물 증정

베타글루칸 세트



~~\$539~~ ▶ **\$485**

리포포 세트



~~\$439~~ ▶ **\$395**

효소환 세트



~~\$439~~ ▶ **\$395**

L&B 화장품 세트



~~\$399~~ ▶ **\$359**



L칼슘 (\$69)
무료증정



FREE GIFT

OR

타쿠미 2박스 (\$56)
무료증정



FREE GIFT



건강을 담은 특별한 선물!

무엇을 선물할지 고민되시나요?
우메켄 기프트카드로 건강을 선물하세요!
사랑하는 이들이 원하는 건강을 직접 선택할 수 있어
특별한 날, 진심을 담은 선물로 마음을 나눌 수 있습니다.



실속있는 연말선물 - 우메켄 기프트카드

888-941-3311 umeken.com

*These statements have not been evaluated by th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This product is not intended to diagnose, treat, cure or prevent any disease.



교통사고/직장사고/운동사고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1996년부터 29년간 원칙있는 진료 근본적인 치료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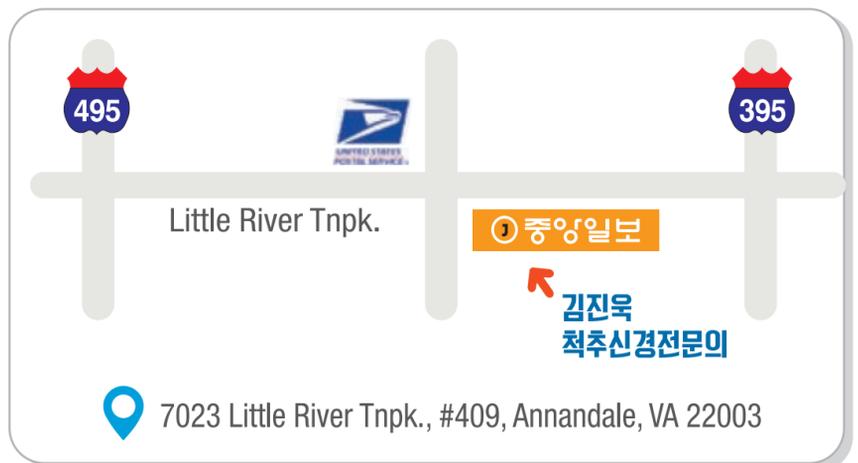
최신형 의료시설 완비 / 최신형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진료과목

- Whiplash 전문치료
- 목 디스크, 목, 통증, 두통
- 목이 뻣뻣한 증상
- 목을 돌리기 어려운 현상
- 목을 들지 못하는 증상
- 어깨가 쑤시고 아픈 증상
- 팔이 저리고 감각이 둔한 증상
- 팔을 올리지 못하는 증상
- 허리 디스크
- 허리 통증
- 다리가 저리고, 당기는 증상
- 좌골신경통 마비

Dr. 김진욱

- UCLA Biology
- Palmer College of Chiropractic (Davenport, Iowa)
- Board Certified in Permanent Impairment Rating
- Fellow of American Back Society
- Member and Board Eligible for Diplomat Status of the American College of Forensic Examiners
- Member of the American Board of Disability Analysts
- Member and Academic Consult of the National Board of Forensic Chiropractors
- Chiropractic Rehabilitation Diplomat Progr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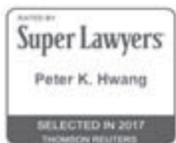
CHIROPRACTIC AND REHABILITATION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Tel. (703) 691-3111

교통사고/직장사고/운동사고 Office Hours by Appointment

교통사고

Sung Hwang & Kim | LLP
합동법률사무소



www.shkfirm.com
Toll Free: 888.772.3001



찰리 성 변호사
CHARLEY C. SUNG, ESQ.



피터 황 변호사
PETER K. HWANG, ESQ.



폴 김 변호사
PAUL W. KIM, JD, MPH.



대니얼 페이 변호사
DANIEL W. PEI, ESQ.

Columbia, MD
Annandale, VA

T. 410.772.2324
T. 703.436.1444

9256 Bendix Rd., Suite 109, Columbia, MD 21045
7353 McWhorter Pl., Unit 202, Annandale, VA 22003

10월 구인 광고

사업의 성공 파트너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① 워싱턴 중앙일보
7023 Little River Trpk., #310, Annandale, VA 22003 T. 703-281-9660

엘리콧시티 편한나라 척추신경

직원 모집

WE ARE HIRING

- ▶ 풀타임 & 파트타임
- ▶ 정규직원 베네핏 제공
- ▶ 이중언어 우대
- ▶ 무경험자 환영

◆ 이력서 보내실 곳 : carefreeland@gmail.com

파리 바게뜨 베데스타
Paris Baguette Bethesda



경험있는 제빵사,
케이크 데코분들
모십니다

301.312.2328
Ackfandb@gmail.com

워싱턴 사계절 걷기 클럽
Washington Four Season Walking Club

- 매주 일요일 아침 8시
- 오솔길, 산길 걷기
- 6마일/2시간
- 운동화, 물 한 통이면 준비 끝

Fairfax 인근 공원과 숲속
Occoquan trail
Billy Goat trail
호수, 강, 바다 등 여러 코스
걷기 좋아하시는 분 항시 환영!

연락처: Ms. Han
(703) 939-5223
(가능하면 text message 주세요)
"아침 운동을 걸으면 건강과 행복이 함께 찾아 옵니다"

구인

Home Improvement
에서 함께 일하실
윈도우·도어
경력자 구함
합법 신분자



703.944.8433

WBS
월드뱅크카드 서비스
직원 모집

WBS Processing과 tech support 부서에서 함께 일하실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인재를 모집합니다.

모바일 앱과 POS 영업에 관심있는 직원도 모집합니다.
업계 최고대우 보장

관련 업무 경험자 우대하며, 체계적인 교육과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제공합니다.

*많은 지원 바랍니다!
문의: 703-225-5500
hr@worldbankcard.net

SD Mechanical
테크니션 직원 모집

대형 슈퍼마켓
냉장·냉동
서비스 & 설치 전문 회사

유경험자 또는 관심 있으신 분

서비스 지역
VA · MD · DC

703.447.4683
sdmechanical.office@gmail.com

황계실 부동산

고객만족 17년!
확실한 부동산 전문가!

매매 / 리스 전문
주택, 건물, 오피스, 창고, 상가

부동산 전문 브로커
GSHwang Realty

571-239-6054

구인

뷰티케어 브랜드 회사
마케팅 세일즈 직원 모집

- 영어/한국어 가능
- 출장 업무 필수
- 운전 경력 풍부하신 분
- 취업에 결격 사유 없으신 분
- 근무지: Rockville, MD / 타주 가능

이력서: RnRniacct@gmail.com
301.468.8949
www.onnaturalusa.com

금매

Korean BBQ & Hot Pot
게이더스버그, MD

최적의 위치
140석 이상, 3,000sf 규모
저렴한 렌트
매매가격 Only
\$280,000

최근에 새로 지어서
리모델링 비용절감

240-988-6868

매매

확실한 수익보장 델리

DC SW 매매가 32만불 (cash only)

- 연간 수익 15만불이상 (주매상 만불)
- 수월한 운영 (키오스크 시스템)
- 저렴한 렌트비 (\$2700/월)
- 오랜 경험의 믿음만한 직원 2명
- 주 5일 (6am ~ 3pm)
- 공실위험 없는 건물

703.300.7207 (텍스트)
관심있는 분만 연락주세요

메디케어

정문기·정선화 보험

건강 보험, 연금,
롱텀 케어까지 안락하고,
건강한 노후 준비를 위한
길잡이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브리지원 보험
(BridgeOne Insurance)

703-598-3316
703-862-5395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L&B

Universal, Inc.
히팅·냉동

리셉션리스트 구함

- Chantilly, VA 지역
- 이중언어 필수
- 근무시간 조정 가능 (풀타임)
- 인터뷰 후 급여 조정 가능

703.622.7737
accounting@lbuniversal.com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① 워싱턴 중앙일보

"하루 준비, 끝"

좋은 신문이 당신의 생활을 바꿉니다. 일등신문 중앙일보 하나 보는 것 만으로도 당신의 삶이 편해집니다. 생활을 유쾌하게 이끄는 풍요로운 콘텐츠, 아침을 기분 좋게 여는 중앙일보로 하루 준비를 편안하게 끝내시고 행복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대표전화 : 703-281-9660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중앙일보 2025년 10월 29일 수요일

구인/구직 광고와 개인 렌트 유료 광고 내용 보내실 곳: kdclass2018@gmail.com (게재 중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C13

메릴랜드지역

구인/사무/직원모집

뷰티케어 브랜드 회사 직원 모집
마케팅 세일즈 분야, 영어/한국어 가능
출장 업무 필수, 운전 경력 풍부하신분
취업에 결격사유 없으신분
근무지: Rockville, MD / 타주 가능
이력서: RnRniacct@gmail.com
문의: 301-468-8949

콜롬비아 복지센터에서 함께 일하실 직원을
모집합니다.
RN 간호사, 운전기사(오토 거주 환영)
주방 보조
▶443-691-7968

BridgeOne Insurance MD
보험 에이전트 구함, 사무실 제공, 유/무 경
험자 가능
▶703-598-3316, 703-862-5395

H-Mart 메릴랜드 직원 모집
모집부서: 인사, 자산, 영업, 물류
근무지: Upper Marlboro MD
베네핏: 401K, 유급 병가/휴가, 보험 등
자격요건: 합법적 근무조건 소유자
지원방법: https://www.hmart.com/
about-us/careers/job-openings
▶문의전화: 201-554-6047

실버스프링에 위치한 종합보험 에이전트에서
함께 일하실 이중언어(영어 또는 스페니
쉬) 가능한 유, 무경력자 구합니다.
albert@wkkinc.com
▶301-526-7000 (Cell) Mr. Kim

메릴랜드 주 로크빌에 있는 병원에서 리셉셔
니스트와 직원을 구합니다.
영주권 스폰 가능 / 월요일-금요일 정규직
& 파트타임/한국어와 영어를 모두 구사해
야 합니다. 이력서를 LaurenKim@gmail.
com으로 보내거나
▶301-275-2357로 전화하세요.

락빌 롯데플라자 마켓에서 함께 일하실 전산
아이템 코디네이터를 구합니다.
▶301-417-8678

H Mart Wheaton RTC 부서 직원모집
업무: 주방 보조 (주방)
Address: 12015 Georgia Ave,
Wheaton-Glenmont, MD 20902
연락처: Customer Service Manager
▶ P: 301-942-5071

임마누엘 어덜트 메디컬 데이케어 센터
직원모집: 운전기사 / 간호사(RN)
-건강보험 - 좋은 조건의 연봉과 베네핏
-유급 휴일과 유급 병가
▶443-828-7777

메릴랜드 베데스다 한방병원에서 바디 마사
지사 약간명, 리셉셔니스트 구함
▶301-787-4842 (문자로만 연락 바람)

세탁소/이미용/기타

PG 카운티 리퀴드 스토어 라러리 스타카할분
2-9pm 일하실분 구함(금,토 포함)
301-336-2500

메릴랜드 라이선스 소지하신 마사지 세라피
스트 구합니다.
240-232-5989

홈 인프루브먼트 회사에서 함께 일하실 원도
우, 도어 경력자 구합니다.
합법적 신분자에 한함
703-944-8433

토요 핸디맨 구합니다. (전기, 목수, 타일, 배
관, 창문, 마루, 페인트)
443-994-3415 (문자 요망)

엘리콧시티 헤반 한국 식당에서 홀 서버 하실
분 구합니다.
▶443-420-3096

영어 가능한 델리 매니저 구합니다.
DCSW (월-금, 6am-3pm)
703-300-7207 (문자)

19개월 남자 아기 돌봐주실분 구합니다.
입주 가능 또는 출퇴근 (풀 & 파트타임)
410-961-3012

파라비게트 베데스다에서 경험있는 제빵사
나 케익 테코분들 모십니다.
301-312-2328
Ackfandb@gmail.com

비속련 영주권 프로그램
변호사가 운영. 낯싱홈, 나이, 학력, 경력, 성
별 무관, 직계 가족도 영주권 혜택
웹사이트: useb3.com
문의 이메일: admin@eb3recruit.com
전화: 571-546-8683

SD MECHANICAL 테크니션 모집
대형슈퍼마켓 냉장냉동 서비스와 설치 전문
회사로 냉장냉동쪽에 경험 있으신분이나 관
심 있으신분 지원 부탁드립니다
서비스 지역 VA, MD, DC
메일: Sdmechanical.office@gmail.com
전화: 703-447-4683

엘리콧시티 세탁소 바느질 유경력자 구함
풀 & 파트타임,
배강만 하실분도 구합니다.
410-926-3200

파사데나 지역 비빔밥 캐리아웃 같이 일
하실분 구합니다. 남녀 모두 환영
443-991-9331

싱글/타운방 렌트

메릴랜드 저먼타운 싱글홈 2층방 렌트
유포, 직장인, 잠만 주무실분 \$700
240-393-3615 (문자요망)

메릴랜드 저먼타운 싱글홈 방 렌트 합니다.
욕실, 주방, 가구, 인터넷 완비
301-533-1438

메릴랜드 저먼타운 타운하우스 전체 렌트
방3, 화3.5, 10월1일부터 입주 가능
301-219-6030 (문자요망)

메릴랜드 하워드 카운티 반지하 전체 렌트
방2, 부엌, 욕실, 세탁실, 출입문 별도, 롯데에
서 15분 거리
443-797-7293

실버스프링 루트 200, 95, 495 근처,
싱글홈 방하나 렌트 합니다.
301-962-0728 / 240-997-3168

메릴랜드 그린벨트 지역, 조용하고 교통편리
타운하우스 방 하나 렌트, 즉시 입주 가능,
방세 저렴
301-379-9660

495와 95번이 만나는 첫번째 EXIT, 메릴랜
드 대학 가까운 싱글홈 이중방 렌트, 즉시 입
주 가능
301-385-3535 (문자 요망)

메릴랜드 실버스프링 싱글홈 1층 전체 렌트,
방 2, 화장실 1, 주방, 세탁기, 건조기, 출입문
별도, 교통 편리, 즉시 입주 가능
301-646-3127

사업체 매매

확실한 순익 보장 델리 매매
DC SW 매매가 32만불 (cash only)
연간 수익 15만불 이상 (주매상 만불)
수월한 운영 (키오스크 시스템), 저렴한 렌트
비, 오랜 경험의 믿을 만한 직원, 공실 위험 없
는 건물, 주 5일 (6am-3pm)
꼭 관심 있는 분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703-300-7207 (문자)

Korean BBQ & Hot Pot 급매
\$280,000 메릴랜드 게이더스버그, 최적의
위치, 1400 이상, 3000 sqft,
저렴한 렌트비, 최근 새로 지은 곳으로 리모
델링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분
연락주세요.
240-988-6868

버지니아 지역

구인/사무/직원모집

애난데일 회계 사무실 직원 모집
매니저/시니어 어카운턴트
회계사 자격증 소지자
문의: 571-389-4415
이력서: hr@yicompany.com

간호사 모집 RN, LPN (풀타임, 파트타임)
재택근무, 처우는 별도 협의
▶703-507-2492 (Mr. Bae)

ANNANDALE, VA 공인회계사 사무실에서
함께 일하실 분을 모십니다.
Full & Part time, 경력자 우대, 무 경력자도
환영

Benefit (보너스, 건강보험, 유급휴가 등등)
있으며, 영주권 스폰서 가능
Email: wikim0111@gmail.com

BridgeOne Insurance 보험 에이전트 구함
사무실 제공, 유/무 경력자 가능, VA & MD
▶703-598-3316, 703-862-5395

WBS Processing과 Tech support 부서에서
함께 일하실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인재를
모집합니다. 관련 업무 경험자 우대하며, 체
계적인 교육과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제공합
니다.

모바일 앱과 POS 영업에 관심있는 직원도
모집합니다. 업계 최고 대우 보장
문의: 703-225-5500
이메일 지원: hr@worldbankcard.net
많은 지원 바랍니다.

애난데일에 위치한 K MARKET에서
어카운트 보실분 구함, 유경력자 우대

703-507-2020

애난데일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보
조원을 구합니다.
Full / Part time 가능, 기본적인 영어와 사무
실에서 일한 경력 환영
이력서를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sjshin.esq@gmail.com

리셉셔니스트 (이중언어 필수)를 모십니다
장소: Chantilly, VA 20151
시간: 조정 가능 (풀타임)
급여: 인터뷰 후 조정 가능
전화문의: 703-622-7737
Email: accounting@lbuniversal.com

하이트론스(Hitrons) 버지니아 센터빌 지점
Full time & Part time 세일 담당 모집
가전제품 및 마사지체어, 매트리스 전문 매
장에서 함께 일하실분을 급구합니다
▶201-417-5350

애난데일 위치, 이민법 사무실, I-140 파일,
패러리걸 (법률보조원) 구합니다.
이력서: Heajinjung@eb3recruit.com

러브핸드 홈헬스에서 직원을 모집
-모집분야: Accounting, 간호사
(RN, LPN), Case Coordinator
-지원자격: 이중언어 가능, 컴퓨터 사용가
능, 자격증 소지자
-근무혜택: 건강보험 / IRA 혜택제공,
유급휴가 제공 / 경력자 우대함
-지원 및 문의: HR 담당
▶703-657-0944 / E-mail: admin1@
lovehandhomehealth.com

센터빌 지역 덴탈랩 CAD/CAM, ZIRCONIA
원스텝 기술자 구합니다.
571-229-0387

홈케어 (센터빌) 업무팀 직원 구함
유경력자 우대 이중언어 구사자
이력서: hr@firsthco.com
▶571-549-6789

김서규 공인 회계사 사무실에서 회계업무 전문
자녀 경력있으신분 구합니다.
이력서 보내주세요.
▶Resume: skim@skimcpa.com

보험회사 사무직 Annandale/Ellicott city
지역 근무시간 8시-5시(월-금)
401(K), 치과보험, 유급휴가 \$25.00/hr
▶이력서 joshuah0123@gmail.com

애난데일에 위치한 K MARKET에서
CUSTOMER SERVICE 직원 구합니다.
-경력자 우대
-오후근무가능하신분
▶연락처 703-712-7089

정관장 애난데일 매장 직원 구함
풀 타임/파트 타임/일요일 판매 경험자 우대
▶문의: 571-348-3723

Fairfax 풀/파트타임 이중언어
사무직 유경력 40k-50k 베네핏 제공
▶571-232-0702
coverworldgr@gmail.com

탐 여행사 버스투어 가이드 구함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제출 할 곳: ceo@toptravelusa.com
▶703-543-2322 (레나 고 실장)

홈케어 에이전시 구인
애난데일 사무 및 리셉션 직원 구함
홈케어 또는 보험등 유경력자 우대
이력서: hr@firsthco.com
전화: 571-549-6789

센터빌, 챔틀리 지역 물리치료 병원에서
한국어/영어 가능한 Receptionist 구함
이력서: coreprehab16gmail.com
▶703-865-6455

나투라치과 어시스턴트 및 리셉셔니스트
월/화/목/금, 영어 가능자
Entry-Level Welcome
▶Resume to: naturadent@gmail.com

급구, 센터빌/챔틀리 지역
임플란트 전문 치과 풀/파트타임
유경력 어씨/리셉션 환영
이력서 첨부 govaepic@gmail.com
▶703-574-0528

치과병원 Front Desk (레스톤/타이슨스)
경력자 우대, Dentrix Plus Full/ Part Time
No exp.require 이중언어,
▶tysondentalcenter@gmail.com

닥터오피스 리셉셔니스트 구함
파트타임, 풀타임 가능
mercy4resume@gmail.com
▶703-256-3005/703-830-0993

식당/식품

관티코 부대에 있는 일식당에서 함께 일하
실 웨이츄리스 구합니다. (신분 확실하시고
영어 가능하신분) 풀/파트타임
443-978-0900

영어 가능한 델리 매니저 구합니다.
DCSW (월-금, 6am-3pm)
703-300-7207 (문자)

Hashi Sushi 일식당에서 서버, 어시스턴트
매니저 구합니다.
영어 필수, 경험자 페이 우대
703-628-9168 (문자)

파라비게트 베데스다에서 경험있는 제빵사
나 케익 테코분들 모십니다.
301-312-2328
Ackfandb@gmail.com

프레데릭스버그 일식당에서 일하실 허바피
쉐프 구합니다.
703-258-4356

애난데일 일본 라면 가게에서 파트타임 홀직원
구함, 유/무 경력자 환영
703-338-3037

애난데일 치맥에서 Server 구합니다.
학생 환영
571-352-4938 (문자) 또는
Chimc.va@gmail.com

엘리콧시티 헤반 한국 식당에서 하기 직원을
모집합니다.
한식 주방, 쿡 (숙소 제공 가능)
▶443-420-3096

애난데일에 새로 오픈하는 분식점에서 주방
헬퍼해 주실분, 파트타임 카운터 케쉬어 구함
703-401-9997

Dumfries 컨비니언스 스토어 RT 1 & 234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교통사고
직장사고
운동사고

• 최신형 의료시설 /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취급

703-691-3111
7023 Little River Tpke #409
Annandale, VA 22003

동부 최대 스크린 골프
NO.1
GOLF LOUNGE

“No.1골프에서
함께할 Staff를
구합니다”

571.591.4455
5938 Centreville Crest Ln
Centreville, VA 20121
https://no1golfounge.com

브래덕
패밀리 치과

진료 과목

- 임플란트
- 충치치료
- 신경치료
- 전체/부분 틀니
- 교정
- 일반치과
- 발치
- 미용치과
- 크라운
- 잇몸치료
- 임플란트 틀니
- 응급환자

진료 시간
월 ~ 금: 8 AM ~ 5 PM
수요일: CLOSED

571-339-3628
571-339-3682

구인

메릴랜드 베데스다
한방병원에서
바디 마사지사 약간명
리셉셔니스트
구합니다!

문자로만 연락 바람
301-787-4842

JJ Watch & Jewelry
www.jjwatchusa.com

페어옥스 몰 안에 있는
JJ Watch & Jewelry Shop에서
파트 타임으로
일하실 분을 모십니다.
캐시어 하시면서
기술 배우실 분
환영합니다.

Fair Oaks Mall내 New Macy's 옆에 위치
JC Penney, Macy's, SUSHI ON, Lord & Taylor, New Macy's 127
CALLETON

703.691.1993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C14

구인/구직광고와 개인 렌트 유료 광고 내용 보내실 곳: kdclass2018@gmail.com (게재 중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0월 29일 수요일 중앙일보

야간근무 가능하신분 (11PM - 7AM)
나이 불문, 남자분 환영
703-291-7174/703-774-7443

H-Mart Herndon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험자 우대
매니저: 임희상 이사
▶ 571-839-1647

H-Mart Falls Church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험자 우대
매니저: 조성수 점장
▶ 703-573-6300

롯데프라자 스틸링점 구인
푸드코트 캐시어, 풀타임, 파트타임 가능
성함과 연락처 남겨주세요.
▶ sijang.sterling@gmail.com

점보 인터내셔널 슈퍼마켓
정육부 매니저 1명, 그로서리 매니저 1명
은퇴연금/건강보험,
내셔널하버 MGM 근처
이력서: jumbo.food@gmail.com
▶ 703-577-2425 (전화문의 Mr. 박)

H Mart 또는 롯데에서 시식 행사 진행하실
분 문자로 연락 주세요. 풀타임, 파트타임
▶ 571-991-4172

이미용

매나사스 파크 바버샵에서 함께 일하실
바버를 모집합니다
일주일에 3, 4일 일하실분
703-473-9771

세탁/얼터레이션

알렉산드리아 테일러 샵에서 바느질 하실분
모십니다. 3일 파트타임 가능하신분
703-328-3064

비엔나 지역 세탁소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카운터 캐시어, 유틸리티 워커
(영어가능자)
7am - 3:30pm (월, 화, 목, 금)
4pm - 7:00pm (월-토)
유경험자 우대, 무경험자 트레이닝
703-499-7050

세탁소 픽업스토어에서 카운터 보실분
경험자우대, DC 전철역 옆
240-644-4190

자동차/정비/바디샵

풀스체치 지역 자동차 정비소에서 메케닉
유 경험자 구합니다.
첫째/셋째 토요일 휴무
571-332-6110

엘라곳시타 자동차 정비소에서 메케닉 기술
자 구함
410-446-9981

기타 구인

홈 인프루브먼트 회사에서 함께 일하실 원도
우, 도어 경력자 구합니다.
합법적 신분자에 한함
703-944-8433

토요 핸디맨 구합니다. (전기, 목수, 타일, 배
관, 창문, 마루, 페인트)
443-994-3415 (문자 요망)

19개월 남자아기 돌봐주실분 구합니다.
입주가능 또는 출퇴근 (풀 & 파트타임)
410-961-3012

No.1골프에서 Staff 모집합니다 (센터빌)
▶ 571-591-4455

싱글/타운홈 렌트

GMU 대학 체육관 뒤 조용한 싱글홈 전체 렌
트합니다. (웃은 하이 학교)
방4, 화2.5, 차고2, 교통 편리 (조지메이슨 1
마일, 페어팩스 마트 1.3마일)
703-350-2278

스프링 필드 싱글홈 (애난데일 부근)
방3, 화2, 즉시 입주 가능 \$3,600
▶ 703-231-5572

우드브릿지 3 Levels Townhouse 렌트
\$2,400, 방3, 화장실3.5, 업그레이드 지붕,
창문, HVAC, 탁트인 넓은 부엌, 2 Master
Suit Bedroom (윗층), 펜스 있는 뒷마당, 감
나무가 있는 앞마당, 교통 편리, 밝은 타운하
우스, 즉시 입주 가능
703-477-3114

페어팩스 타운하우스 \$2,900
로빈슨 하이 스쿨 근처 1,496sqft 전체 렌트
방3, 화3.5, 11/5일부터 입주 가능
703-470-1736 / 703-470-7066

애난데일에서 5분거리 싱글홈 윗층 (아랫층
과 완전 분리) 렌트합니다.
방3, 풀 화장실, 리빙룸, 큰 욕, 큰 창고, 차고2
개, 넓은 뒷마당, 395/495/95 3분 거리
703-508-5405 (Julia Jin)

매쉬번 타운하우스 렌트 \$3,300
전체 마루, 차고2, 욕, 267/607
Briar Woods 하이 스쿨 학군
▶ 571-239-6054

페어팩스 비엔나역 타운하우스 렌트
2100 sqft, 방4, 화3.5, 워크아웃 베이스먼
트 \$3,200
470-485-1875

1. 페어팩스 타운홈 \$3,300
방3, 화2.5, 차고1, End Unit, 편리한 로케이
션, 잘 관리된 집
2. 센터빌 타운홈 \$3,000
방3, 화2.5, 차고1, End Unit, 업그레이드 많
이함, 근로케이션
3. 스프링필드 타운홈 \$3,000
방2, 화2.5, 2 assigned 주차, 밝고 환한집,
업그레이드 많이함, 교통 편리
▶ 703-919-0472

페어팩스 Costco 뒤 타운하우스 렌트
\$3,900 방3/화3/차고2, 최고 학군,
29/50/66/286 최고 로케이션
▶ 571-239-6054

1. 센터빌 Fair Crest 타운홈 렌트 \$3,500
방3, 화3.5, 2car garage, 긴 드라이브
웨이, 주차다수, 풀린 파벨초, route
50/66/28/29
2. Lorton 타운홈 \$3,300
방3, 화3.5, 2car, 전부 마루, 주차다수
South County 하이, RT95/395/286/123

콘도 렌트

센터빌 롯데 근처 콘도 전체 렌트합니다.
방2, 화2.5, 교통 편리, 즉시 입주 가능
\$2,180
301-466-1646

애난데일 콘도 \$1,500
방1, 화장실1, 고급스런 나무 마루, 탁트인
넓은 콘도, 업데이트된 부엌, 계단없는 1층
나무가 보이는 넓은 발코니, 즉시 입주 가능
703-477-3114

알렉산드리아 콘도 \$2,600
방2, 화장실1, 1,105 SF 넓은 콘도,
13층으로 탁트인 조망, 엘리베이터,
\$100,000 가량 수리하고 업데이트한 모델
하우스 같은 콘도, 넓은 새 창문, 최고급스런
부엌, 넓은 리빙룸, 리모델한 화장실, 새 페인
트, 즉시 입주 가능
703-477-3114

매나사스 콘도 \$1,700
방1, 화장실1, 엔드 유닛 880 sf, 넓고 밝은
콘도, 세탁기, 건조기, 새 화장실, 나무 마루
거실, 새 페인트, 넓은 발코니, 코스트코에서
1분 거리, 즉시 입주 가능
703-477-3114

애난데일 H마트 근처 콘도 전체 렌트
방1, 화1, 주차2, 완전 리모델링, 모든 가전
제품 새것, 즉시 입주 가능
703-268-8669 (문자요망)

헌돈 새 콘도 렌트 \$3,000
방2, 화2.5, 차고1, 이노베이션 메트로역도
보, Village Center at Dulles shopping
mall, 자이언트, 1,600sf, RT267/28, 최
고 교통요지
▶ 571-239-6054

1. 옥톤 싱글 \$3,600, 방5, 화2.5, 차고
2, 2.5acre 숲속, 아름답고 조용한
게이트 있는 집
2. 센터빌 stonegate, 콘도 렌트 \$2,100
방2, 화2, 2층 1100sqft, security gate
▶ 571-239-6054

방 렌트

로튼 (애난데일에서 15분 거리) 조용한 주택
가 1층 같은 워크아웃 베이스먼트 전체
방 3개, 주방, 냉장고, 세탁기, 인터넷, 유틸
리티 포함, 출입분 별도, 2500 sqft
571-488-5860

애난데일 원룸 스타일 방 렌트합니다. 방안
에 샤워실, 키친, 냉장고, 침대, 책상 다 갖추
어져 있고 깨끗합니다.
571-232-6052

애난데일 H마트 옆 밝고 조용한 콘도 방 하나
렌트, 남자분 환영
571-326-5605 / 301-266-1858

애난데일 큰 싱글홈 밝고 큰 화장실 딸린 방
렌트합니다. 교통 편리 롯데 1분 한강 식당 1
분 거리, 입구 별도, 주차 넉넉
703-395-4380 / 703-965-2343

스프링필드 지역 조용한 싱글홈 방 렌트,
간단한 취사, 가구완비, 인터넷, 학생 또는 직
장인 여성 환영

571-286-2439
스프링필드 (Backlick & Braddock이 만나
는 곳) 조용한 싱글홈 베이스먼트 방 렌트
워크아웃, 간단 취사 가능, 교통 편리, 주차넉
넉, 남자분 환영
703-750-2795

GMU 근처 조용한 동네 싱글하우스 욕실 딸
린 큰방 하나 렌트합니다.
남자분 환영, 즉시 입주 가능
240-271-1879 (문자요망)

애난데일 예촌 앞 타운하우스 방 렌트합니다.
가구완비, 취사 가능, 직장인, 학생 환영
703-622-2033

애난데일 타운하우스 밝고 조용한 윗층 방 렌
트, 나무 마루, 유포, 교통 편리, 여성분 환영
고양이 괜찮으신분만 문의 바랍니다.
571-345-8879 (문자요망)

애난데일 메시아장로 교회 뒤 타운홈 2층 방
하나 렌트, 남자분 환영
703-887-5173

애난데일에서 5분거리 싱글홈 윗층 (아랫층
과 완전 분리) 렌트합니다.
방3, 풀 화장실, 리빙룸, 큰 욕, 큰 창고, 차고2
개, 넓은 뒷마당, 395/495/95 3분 거리
703-508-5405 (Julia Jin)

센터빌 CVS 근처 깨끗한 싱글홈 2층 방 하나
렌트, 가구/취사/세탁/인터넷 완비, 여자분
환영, 즉시 입주 가능
571-758-7117

페어팩스 방 렌트 또는 하숙하실분 구합니다
GMU, 노바에서 5분거리, 방/화장실/부엌/
세탁기 모두 별도, 편리한 파킹
703-388-8518

페어팩스 웃은 하이 스쿨 건너편 타운 하우스
베이스먼트 전체 렌트
방1, 키친, 욕실, 워크아웃
571-643-8008

애난데일 H마트 근처 싱글홈 1층 렌트
방1, 화1, 주방, 여자분 환영 \$1,200
즉시 입주 가능
571-318-1119

애난데일 순복음 교회 앞 주택 지하 렌트
방2, 화장실, 큰 거실, 부엌, 방 하나 쓰실분
또는 전체 쓰실분
703-244-3453

애난데일 싱글홈 반 지하 방 렌트 놓습니다.
출입문 별도, 취사 가능, 여자분 환영
571-213-9080

센터빌 롯데 근처 타운홈 이층 욕실 딸린 큰
방 하나 렌트합니다.
571-970-8048

센터빌 CVS 근처 타운하우스 마스터 베드
룸/개인욕실/워크아웃/여성분 환영
571-243-7027 (문자요망)

사무실/점포 렌트

애난데일 오피스 전체 렌트
나무 마루, Newer Windows, 계단 없는 1층
위치, 새로 단장한 화장실, 넓은 주차장, 교통
편리 \$2,000 즉시 입주
▶ 703-477-3114

애난데일 (자이언트 근처) 오피스 렌트
룸 4개, 화장실, 주차다수
301-741-6567

센터빌 던킨 뒤 환한 오피스 콘도 렌트
\$1,900, 1,200sqft,
룸3개, 화1, 오픈 스페이스, 파킹다수,
RT29/66/28/286
▶ 571-239-6054

애난데일 지역 오피스 렌트
오피스 전체 4 Room \$1,600 1사무실
\$500 (전기, Wifi 포함)
703-209-5150 (문자요)

부동산 매매

부동산 매매

챠넬리 급매 타운하우스 \$300,000
방2, 화1, 아담한 뒷마당
▶ 703-231-5572

센터빌 벽돌 타운 하우스 \$589,000
방3, 화2.5, 차고 1 H Mart 근처
29/28/66 Braddock
▶ 571-239-6054

우드 브릿지 타운홈 \$410,000
방3, 화3 1/2, 잘 관리된 밝고 환한 집, 펜스
가 있는 뒷마당, 3층 구조, 업그레이드된 지
붕과 창문, 히팅 & 에어컨 시스템
▶ 703-813-8949

도미니언 벨리 컨트리 클럽, 헤이마켓 역서
리 싱글 \$1,699,000
1 에이커 숲속, 6700 sqft, 방5, 화5.5, 3차
고, 야외 리조트 스타일,
선물, 고급 조명, 트레이 천장, 스파 욕실, 드
레스룸, 인로우 스위트, 미디어룸, 게임룸, 바
포함, 최신 HVAC, 정수 시스템
Wolf/Sub Zero 주방, 커스텀 벽난로, 하드
우드 바닥
\$460K 업그레이드 (야외 주방, 벽난로, 연
못, 분소, 욕, 음향 시스템 등) 골프장, 클럽하
우스, 수영장, 테니스, 산책로, 최고 학군
▶ 571-239-6054

1. 메릴랜드 베데스다 싱글홈 \$1,295,000
방4, 화2.5
2. Gwynn Oak 메릴랜드 싱글홈 \$419,000
방4, 화3
▶ 301-318-4242

1. 워싱턴 디씨 듀플렉스 \$950,000
방4, 화장실 4+1, 차고1, 새집, 편리한 교통,
모던하고 예쁜 집
2. 워싱턴 디씨 SE 타운 \$649,000
방5, 화장실 3+1, 새 타운 하우스, 모던하게
지은 예쁜 집
▶ 410-417-7080

1. 메릴랜드 포토택 싱글홈 \$1,075,000
방4, 화장실 2+1, 차고2 포토택에 위치한
잘 꾸며진 집, 좋은 가격
2. Nottingham 타운홈 \$349,900
방4, 화장실 3, 최근에 전부 새로 고쳤으며,
HOA가 없는 집
3. Elkridge 타운홈 \$625,000
방3, 화장실 2+2, 차고2, 아주 넓고 이쁜 집,
마루 바닥, 1층에 안방
4. 실버스프링 타운홈 \$750,000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중앙생활안내 BOX 광고 가격표

(한달기준/흑백)

1 BOX	\$100
2 BOX	\$200
3 BOX	\$300
4 BOX	\$400
5 BOX	\$500

문의: 703-281-9660 / kdclass2018@gmail.com

정크 빨리빨리

이거
어떻게
버리자?

“가정, 사업체에 안쓰는
가구, 가전 등 버려드립니다.”

각종 밀리버리 / 소량 이사 전문
비즈니스 폐업 / 각종 철거 전문

정크 빨리빨리
www.junk28282.com

571-723-0446

독자에게
힘이
되어 드리는
신문

워싱턴 중앙일보
T. 703-281-9660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중앙생활안내광고 Classified

중앙일보 2025년 10월 29일 수요일

구인/구직광고와개인렌트유료광고내용보내실곳: kdclass2018@gmail.com (계재 중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C15

방3, 화장실 3+1, 차고 2
13년된 벽돌로 지어진 고급 타운홈,
5. 엘리베이터 싱글홈 \$820,000
방5, 화장실 3+1, 차고 2, 밝고 이쁘게 잘 꾸며진 집, 넓은 뒷뜰
▶410-417-7080

1. 패어팩스 싱글홈 \$999,000
방5, 화장실 4+1, 차고 2, 넓은 구조와 잘 꾸며진 집, 벽돌, 마루바닥
2. 패어팩스 싱글홈 \$1,050,000
방4, 화장실 3+1, 차고 2, 우순 학군, 편리한 교통, 최근에 업데이트
3. 비엔나 싱글홈 \$1,875,000
방6, 화장실 6, 차고 2, 새집같이 아주 멋지고 고급스러운 집, 편리한 교통
4. 패어팩스 타운홈 \$850,000
방4, 화장실 3+1, 차고 2, 앤드 유닛, 아주 밝고 이쁘게 잘 꾸며진 집
▶703-899-8999

1. 던로링 메트로 앞 콘도 \$460,000
방1, 화1, 1/2층 오픈 LOFT 835 sqft,
전부 리모델링, 나무마루
2. 맥클린 콘도 \$409,000
방2, 화2, 1,050 sqft Mclean High, RT495, 66/26/7
Metro, Tysons Galleria 옆
▶571-239-6054

Alexandria 콘도 \$365,000
방2, 화2, Top Floor 엔드 유닛,
업데이트되고 잘 관리된 콘도, 리모델링한 부엌과 화장실, 나무마루, SS Appliance, Granite Countertops, Deck, 세탁기
▶703-813-8949

1. 센터빌 싱글홈 \$770,000
방3, 화3.5, 차고2, 업그레이드 부엌, 마루, 넓은 뒷뜰
2. 패어팩스 싱글홈 \$1,005,000
방5, 화3.5, 차고2, 최근에 전체적으로 업그레이드한 집, 넓고 고급스러운 집
▶703-899-8999

1. Ashburn 타운하우스 2012년
방3.5, 최고 학군, Dulles Airport RT267/50/28/607
2. Woodbridge 싱글하우스 \$639,000
방3, 화2.5 차고1, 좋은 동네, 좋은 학군, 전부 업그레이드, RT 1/95/234
3. South Riding 타운하우스 2014년
\$645,000, 방3, 화2.5, 차고2, RT50/606 Dulles Airport, RT28
▶571-239-6054

1. 패어팩스 새 빌더홈 우순 학군 싱글홈 \$1,900,000
2. 패어팩스 씨티 타운하우스 새 빌더홈 \$930,000 방3, 화장실3, 차고2
3. 챔틀리 새 빌더홈 콘도 (2025년 완공 예정) \$670,000 방3, 화장실2.5
4. 패어팩스 중심가 타운하우스 (2025년 완공 예정) 방3, 화장실3 \$1,000,000
5. 챔틀리 콘도 새 빌더홈(2025년 완공 예정) \$530,000 방2, 화장실2
▶703-231-5572

1. 알렉산드리아 단독주택 \$619,000
방3, 화2 단층집으로 넓은 백야드 0.3 에이커 프랜코니아 지역으로 교통, 생활시설 편리, 시니어 거주하기에 편리한 단층구조, 지붕, 에어컨등 최근 교체, 계단 없음.
2. 매너서스 콘도 \$330,000
방2, 화2 주차공간 편리한 콘도, 그로서리, 병원, 레스토랑, 도서관등 좋은 생활여건
▶703-483-0505

사업체 매매

확실한 순익 보장 델리 매매
DC SW 매매가 32만불 (cash only)
연간 수익 15만불 이상 (주매상 만불)
수월한 운영 (키오스크 시스템), 저렴한 렌트비, 오랜경험의 믿을 만한 직원, 공실 위험 없는 건물, 주 5일 (6am - 3pm)
703-300-7207(문자)
꼭 관심있는분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Korean BBQ & Hot Pot 급매 \$280,000 메릴랜드 게이더스버그, 최적의 위치, 140척 이상, 3000 sqft, 저렴한 렌트비, 최근 새로 지은 곳으로 리모델링비 절감 효과.
관심 있으신분 연락주세요.
240-988-6868

델리샵 (DC) \$150K
DC내 위치, 장사 잘 되는 곳이나 은퇴예정, 안정된 수입, 투자용
▶703-625-9909

헤어, 네일 & 스파 살롱 사업체 매매 (레스톤 / 헨돈 지역)
-\$100,000
- 현지 경험을 두루 갖춘 잘 정비된 사업체로 수익 좋고 지속 성장 가능
- 월임대료 & 수도세 없음 **
- 6개 헤어 부스 + 2 페디큐어 부스 + 2 네일 테이블 + 1 마사지 룸 + 1 욕실룸
꼭 관심있는분만 연락 바랍니다.
571-315-3533 (영어 가능하신분)

중고 매매 / 기타

비숙련 영주권 프로그램
변호사가 운영. 낯싱홈, 나이, 학력, 경력, 성별 무관, 직계 가족도 영주권 혜택
웹사이트: useb3.com
문의 이메일: admin@eb3recruit.com
전화: 571-546-8683

상태 좋은 남/여 중고 골프 세트 싼 가격에 팝니다.
703-966-9072 (Mr.Kim)

부동산 학교 (5주 속성반)
2025년 9월 16일 (화) 개강
한국식 쪽집게 수업, 온라인 수업 병행, 기본 컴퓨터 교육, 합격후 10주 실전교육, 자체 제작 한글교재와 문제 풀이
수업료 \$350 (교재비 \$100)
703-899-8999/410-417-7080

색소폰, 클라리넷, 호른, 트럼펫, 트럼본, 플루트 - 약기별 개인 맞춤 레슨
757-338-8496

애난데일 H마트 근처 텃밭 공유 하실분
1평, 2평, 3평
517-318-1119

무빙세일 (센터빌)
다이닝 테이블, 쇼케이스 그림, 유로피안 장식품, 골동품, 청동으로 된 인어공주, 자수정수 집품, 강아지 케리어 등등
808-223-4825

1년된 Inokim OX Scooter
공원에서 서너번만 사용해 상태 좋음, 필요하신분께 저렴하게 드립니다.
703-945-2991

전면허 VA-MD 불체자에게 면허정식 발행 필기 요점정리·예상문제/한국-타주면허/Real ID 신청/차량구입등록/기타 교통국 업무
▶571-294-0057 (Jim Dong)

건축/페인트/마루

▶구인-리모델링 건축회사에서 같이 일하실 기술자, 헬퍼 직원을 구합니다.
703-499-4494

▶리모델링 부엌, 화장실, 에디션, 맥, 팬스, 지붕 제너럴 컨트랙터 MR. 박
703-434-2810

JGL 건설 회사
하청없이 25년 이상 숙련된 분사 전문인들이 직접 시공합니다
▶571-213-8678

J/L CONTRATOR INC.
지붕 고민/돈 걱정 그만 하세요
▶703-835-0945

형제 건축 & 지붕
가정용, 상업용, 부엌, 화장실, 지하실
믿고 맡기시면 최상의 결과를 드립니다.
▶703-928-6255

TOP 건축 콜롬비아 MD
- 집수리전문 / 각종 집수리 일체 / 지하실, 주방, 욕실 / 전기설비, 타일 마루 / 루핑, 카펫, 페인트 / 각종 목수일 일체
▶443-980-1167

JL 건축 주방 & 욕실 리모델링
예쁘고 실용적인 주방과 욕실을 디자인하고 만들어 드립니다.
▶703-910-0400

레드문 페인트
하우스 페인팅 (In, Out), 맥 메인テナンス와 클리닝, 샌딩, 파워 워시, 핸디맨 서비스

▶문의: Mr.문 703-965-3011
TK 30년 경력 종합건축
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 건축, 시공 및 건물 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상가 및 빌딩 신축, 리모델링,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체 자체 라이선스 보유, 책임보험 가입
▶703-504-6116

와니 건축 페인트
마루, 타일, 부엌, 화장실, 맥, 그외 모든 공사, 주정부 라이선스 보유, 책임 보험 가입, 카톡 아이디: wani6811
▶571-331-6811

K&J Painting 실내외 페인트 전문 업체
30년 경험과 신용 / 목수, 각종 집수리
▶240-687-5155

보험

지금 언급, 정말 만족하십니까?
한번의 점검이, 내일의 차이를 만듭니다.
703-577-8181

정문기 메디케어 보험
65세 되시는 1960년생 신규 가입 신청 도와드립니다.
▶703-598-3316

옴니화재사업체, 자동차, 집, 의료, 생명 보험
▶1-866-915-6664

정선화 브릿지원 메디케어/메디케이드 보험
▶703-862-5395

조은혜 종합보험
메디케어 & 오바마케어 신청접수/자동차/주택/사업체 보험
▶703-591-0009 / 703-537-9899

용자

로리 문 맞춤형 언급 & 재정관리
▶703-895-7648

제인 최 용자 25년 경력 매입/재용자/특수
▶703-244-3453

마이클 장 용자 주택/사업용자/재정상담
▶410-370-4229

유나이티드 모기지네이션
- 낮은 이자 / Cashout / 명의변경 / Mortgage Insurance Remove
▶703-204-0022 / 703-727-9730

소독/가스검사

JD STAR 소독 (Mr. 은)
Rats/Mice, Insect, Termites
▶410-370-8057

라돈 가스 검사
폐암을 일으키는 라돈 가스는 집에서 발견되는 문제의 가스입니다. NRPP 면허소지
▶202-774-6554

냉동 / 히팅

SD MECHANICAL 테크니션 모집
대형슈퍼마켓 냉장냉동 서비스와 설치 전문 회사로 냉장냉동쪽에 경험 있으신분이나 관심 있으신분 지원 부탁드립니다
서비스 지역 VA, MD, DC
Email: Sdmechanical.office@gmail.com
전화: 703-447-4683

KWK 냉난방 BALTIMORE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 프리저 수리전문
443-540-6922 / 410-292-0001

L&B UNIVERSAL
히팅, 에어컨 가정용/산업용 전문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덕트 클리닝
▶703-678-1749

인테리어 냉난방
에어컨, 히터, 히트펌프, Carrier, Trane 덕트, 드라이버벤트 크린, 가정용/상업용
▶문의: 703-380-2282

JD 냉난방 (Mr. 은)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인 / ELECTRIC CONTROLS SPECIALIST/냉난방 TEACHER
▶410-370-8057

아라냉동
에어컨, 히팅, 냉동, 보일러, 세탁장비, 케리아

웃 장비수리, Ice Maker, 플러밍, 지하수펌프, 정수장치 * 연중 무휴 무료점검
▶443-850-3703 / 410-979-4242

조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쿨러, 워터히터
▶443-280-1873

정스 냉동(가정용/상업용) (Mr. Chung)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전기, 플러밍, 워킹쿨러, 아이스머신, 덕트설치 & 크리닝
▶301-572-2786/403-953-0801

보석

▶JJ VA 시계, 보석 수리
기술 배우면서 일하실분 / 영어 필수 우대
703-691-1993

골든벨보석 (센터빌, VA)
K24, K18, K14, K10, 다이아몬드 고가매입
▶703-988-0033 / 301-792-5615

블라인드/카펫

BBG 블라인드 버지니아
20여년 이상의 전통과 기술, 한국산 블라인드, 친환경 원단, 하이퀄리티, 무료견적, 최상의 서비스, 합리적 가격
▶571-229-4633

TOTAL BLACKOUT LLC
한국산 블라인드 전문, 버지니아 동부 지사 오픈, AS 전담팀 보유, 놀라운 품질, 저렴한 가격, 모든 샘플 가지고 방문
▶703-600-9031

토탈카펫
25년 전통과 신용 최저가격 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주거용/상업용 한번시공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703-909-0988

베스트 카펫
카펫 및 에어 덕트 크리닝, 최상의 트러파워스 팀장부, 살균, 소독, 냄새 및 얼룩제거, 브러쉬, 파워 폴청소. 응급 수해복구 및 타일 플로워 왁스
▶703-967-4155

플러밍

SK 플러밍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온수, 히터 디쉬워셔, Disposals, 상하수도 수리교체
▶703-989-0103

제임스 플러밍
수도꼭지, 변기, 하수도 뚫음, 상하수도 수리교체, 배수 펌프, 온수, 히터교체, GAS공사, 히팅, 에어컨, 냉동, 집안밖 물세는 것
▶703-499-5984

이삿짐

Movers LLC (GOOD HAND)
- 이사 / 배송 서비스 전문
- 쓰레기 / 폐기물 처리
571-982-9871 / 202-802-2858
▶ sales@moversdmv.com

MI 이사짐 (24/7)
빠른/책임/값이싼/포장이사/서비스/자체
▶571-364-4185
Email: mimovingllc@gmail.com

정크 8282 각종 딜리버리
소방 이사 전문, 비즈니스 폐업, 각종 철거전문 가정/사업체에 안쓰시는 가구, 가전품 등 처리해드립니다.
▶571-723-0446

범양 해운
정확한 선택, 확실한 만족, 귀국 이삿짐 포장이사, 타주 이사(차량운송) 무료견적
▶703-298-1919

HD 현대 통운
미동부 최대 운송회사, 귀국, 해외, 타주, 시내 이사, 고품격 포장, 자체창고보관 서비스 한국 화물 배송 서비스
▶703-339-8844

고려 통운
세계 어느 곳, 어디든지 가능
ICC 인가업체, 100% 자체보험 확실한 세관처리 및 서류작성 한국에서 지불 가능
▶703-550-2424

조양 운송
신속, 안전, 신용, 저렴, 20년 전문 귀국이사, 포장이사, 타주, 시내이사, 자체 창고 보관
▶703-550-5550

리모델링/핸디맨/전기

Mechanical, LLC
전기/플러밍/가스/히팅/에어컨/역류장치/MD fire 스프링클러/주방화재방지/복구작업(수해, 화재, 가구, 곰팡이) 보험 처리 가능/용접(철, 스텐, 알루미늄)/제작및설치(키친후드, 덕트)
301-222-3277

▶▶HBS Energy Inc에서 VA 지역 LED 프로그램 세일즈 및 전기 헬퍼하실분 구합니다.
담당자: 301-704-2482
회사: 443-864-5193
Email: hbsenergysolution@gmail.com

▶▶리모델링/부엌/화장실/실내/실외 30년 경력/정직/확실한 시공과 마감! 파인애플홈 Mr. 박
703-434-2810

Repair, Remodeling
VA Class, Insured, Since 1999~
▶ 571-239-8525

H.P.C 집수리 센터
집안밖의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집안-리페어, 핸디맨서비스
집밖-창문, 사이딩, 가터, 루핑, 테크 등
▶571-594-4080

집수리/가게수리 LLC
핸드레일, 계단, 계단 손잡이 전문
703-340-5858 (VA)
443-980-5858 (MD)

▶▶미국회사 Electric Co.
전기 기술자, 영어 소통 필수
973-997-5805 (엘렌)

JJP Electrician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가능.
라이선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
무료견적, 철저한 AS
▶703-929-9601

전기공사, 페인트 리모델링
각종 전기, 카메라, DATA 24시간 출장가능,
▶703-582-7757

유리

JK유리 & Window/상점, 가정용 유리, 거울 Frameless 샤워도어 Aluminum, Door 설치, MD/VA/DC 지역
▶703-346-5962

샤워도어, 자동문, 식탁유리, 거울장식, 특수 유리교체 및 특별 주문제작
▶703-894-7200

임업/멀칭

Alliance Land Management
토지개간 / 자란 들판 잔디 깎기/울타리 라인/산책로 및 목초지 관리
▶540-905-2849

HD Plus Construction
밀역삽에서 함께 일할 경험자를 찾습니다.
- 피니셔 (페인트, 스텐)
- 카펜터 (캐비닛, 코리안 카운터탑 제작)
- 프록젝 매니저 (이중언어)
높은 페이와 근무시간 보장
(571)420-5492 / (703)256-5486

생활안내 줄광고 게재요청
703-281-9660 (text)
kdclass2018@gmail.com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보험

메디케어 신청 및 보험가입 61년생 무료상담!

서플리먼트 · C 플랜 · 약보험 · 치과 · 안경 · OTC

자동차 · 주택 · 사업체 보험

“보험료”를 확실히 내려 드립니다!

조은혜 종합보험 10560 Main St., Ste 201
Fairfax, VA 22030
☎ 703-591-0009 / 703-537-9899



냉·난방

“냉·난방은 제대로 설치해야 영구적”

오래되고 낡은 고장이 기계 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설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드립니다.

히팅·에어컨 가정용/산업용 전문

규모가 큰 신용입니다

큰 규모의 미국 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못 믿으시죠?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VA · MD · 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L&B UNIVERSAL Heating Air Conditioning Maintenance
Office: 703-618-4822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Cell : 703-678-1749 www.LBuniversal.com
신속한 A/S·기술력과 서비스·경쟁력있는 가격 www.facebook.com/LandBUiversal

건축 / 페인트

TK 종합건축

30년 경력 종합건축·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 ▶ 건축 · 시공 및 건물 · 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 ▶ 상가 및 빌딩 신축 · 리모델링 ▶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체
- ▶ 건물 및 시설 유지보수 · 관리 대행

무료견적
설계/허가/디자인
시공/유지보수관리

자체 라이센스 보유 및 건축공사 책임보험 가입

Tel : 703-504-6116 / Cell : 703-675-7401

와니건축

Repair Doctor

페인트, 마루, 타일, 부엌, 화장실, 욕,
그외 모든 공사

책임시공/신속처리

-주정부 라이센스/책임보험가입-

Call 24시간가능

(사진보내주시면 즉시 무료견적)

카톡 ID : wani6811

571-331-6811

레드문 페인트

욕실, 주방, 지하실, 리모델링,
페인트 전문

목수, 타일, 마루, 욕, 캐비닛
샌딩 보수

핸디맨, 플로링, 전기, HOA
지적 수리

703.965.3011

유리 / 이삿짐 / 재테크 / 건축 / 전기 / 헬스케어

JK 유리 & Window

C.703-346-5962

상점/가정집 유리 · 거울
Frameless 샤워도어/Aluminum/Door 설치

MD · VA · DC 지역, 신속시공

귀국 이삿짐/차량운송



포장이사 및 단주이사 / 주재원 귀국이사 전문
범양해운이 책임지겠습니다.

- 자동차 운송
- 수출입 화물(선박, 항공)
- 소량화물 / 유학생 우대
- 분실 / 파손 보험커버
- 쓰레기 처리가능
- 무료견적
- Door to Door Service
- 창고 보관 및 유통관리
- VA/DC/MD ↔ NY 정기운행
- 타주이사

범양해운 USA Tel.703-298-1919
7000 Newington Rd. #H, Lorton, VA 22079

www.vapumyang.com / va@pumyang.com / vapumyang@gmail.com

KOREA(SEOUL) 02-2093-2093 KOREA(BUSAN) 051-469-4191 USA(LOS ANGELES) 310-767-5699 USA(SAN FRANCISCO) 510-887-2424

USA(SAN DIEGO) USA(NEW JERSEY) USA(TEXAS) USA(ATLANTA)

HD 현대 통운

- 귀국, 해외 이사
- 타주, 시내 이사
- 귀국, 타주 차량운송
- 한국 소량 화물 배송 서비스
- 고품격 포장이사 서비스
- 자재 창고 보관 서비스

미동부 최대의 운송회사

703.339.8844

www.HDmovingusa.com

고려통운

- 세계 어느곳이나! 세계 어디든지!
- ICC인가업체
- ◆ 세계 84개국 체인 유통망 확보
- ◆ 100% 자체보험으로
- 고객의 추가 보험료 불필요
- ◆ 확실한 세관처리 및 서류작성
- ◆ 한국에서 지불가능 (후불)

Tel.703-550-2424 Fax.703-550-2426

GORYOEXPUS@hotmail.com

7350-E Lockport Pl., Lorton, VA 22079

조양운송

- 신속
- 안전
- 신용
- 저렴
- 20년 전문!!
- ▶ 귀국 이사 전문
- ▶ 자체 창고 보관
- ▶ 타주, 시내 이사
- ▶ 전문 포장 이사

(703)550-5550

choyangusa@hotmail.com

JJL Contractor Inc.

야곱의 사닥다리

지붕 고민 / 돈 걱정

이제 그만하세요

Tel. 703.835.0945

MD 업소 안내

냉난방

JD 냉난방

Mr. 은

410-370-8057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크인, 아이스 머신



소독

소독 JD Star Pest Control



Mr. 은

Owner / Certified Applicator

410-370-8057

410-370-8484

Rats/Mice, Insects, and Termites

JIP Electronic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Master Electrician
Class - A 라이선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무료견적/철저한 AS

대표 : 박을구

703.929.9601

보석

Golden Dew Jewelry 기쁨과 행복을 드리는
골든 듀 보석

- ◆ 백금 (Platinum)
- ◆ K14, K18, Setting 전문
- ◆ G.I.A. E.G.L. 다이아몬드 판매
- ◆ 결혼 예물 셋팅 전문
- ◆ 순금 아기들 반지 팔찌
- ◆ 남양진주 각종 보석 취급
- ◆ 각종 결혼식, 약혼식 예물용 로렉스시계 전문 판매
- ◆ 각종 보석 감정 수리 상담

410-480-2477 8801 Baltimore Nat'l Pike
엘리컷시티 롯데플라자 내 Ellicott City, MD 21043

건축

Top 건축 MD

집수리 전문

- 각종 집수리 일체
- 지하실/주방/욕실/전기설비
- 타일 마루/루핑/카펫/페인트
- 각종 목수일 일체

443-980-1167

용자

United Mortgage Nation

소중한 주택 용자는 신뢰 받는 파트너,
United Mortgage Nation과
함께 하세요!

(NMLS #: 2425871)

703-204-0022

703-268-3954

WWW.UMNLOAN.COM

에어컨&히팅 / 핸디맨 / 건축 / 플러밍 / 카펫&크리닝 / 블라인드 / 마루 / 페인팅 / 이사 / 웨딩 / 부동산 / 데이케어

웨딩스토리

토탈 결혼 준비

- 웨딩 플래너
- 웨딩드레스 & 턱시도 대여
- 웨딩플라워 데코
- 결혼식 장소 및 비용예산 선정

703-642-2247
9502-A Lee Hwy., Fairfax VA 22031

LOVE HAND

Home Health & Adult Daycare

러브핸드 홈헬스 & 시니어 데이센터

“간병은 단순한 서비스 제공이 아닙니다. 간병은 사랑입니다.”

703-657-0944
14101 Parke Long Ct., Suite H, Chantilly, VA 20151

토탈카펫

30년의 전통과 신용으로
최저가격 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주거용 **703.909.0988**
상업용 한번 시공한 것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현대부동산

성실을 실천하는 부동산!
행복 가득하고 편안한 집을 소개해 드립니다.

내 집 마련의 꿈!
현대부동산이 함께 합니다.

*상담 환영 (집 파실 분, 사실 분, 경매)

Hyundai Realty Incorporation
703-813-8949
703-813-8150~5

Master Licensed & Insured Contractor

인터테크 냉난방

에어컨 / 히터 / 히트펌프

미국회사 10년 경력
Carrier, Trane 딜러
덕트, 드라이어 벤트 크린

가정용 상업용
www.intertechvac.com
703.380.2282

궁금한 기사
중앙 일보안에
있습니다

© 위싱턴 중앙일보
7023 Little River Trpk., #310, Annandale, VA 22003 T. 703-281-9660

JGL Construction Inc.

Jglconstruction.com

JGL 건설회사

“하청없이 저희 25년 이상
숙련된 자랑스러운 시공 전문인들이
직접 시공합니다”

8001 Forbes Place, Suite 207
Springfield, VA 22151
Office: **571-213-8678**

MI 이사짐

첫번째 10% 할인
두번째 20% 할인

빠른·책임·값이 싼 **24/7**
포장이사·서비스·자재

571-364-4185
mimovingllc@gmail.com

조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클러 워터히터
플러밍 전기

Master HVAC Contractor
Master Plumber/Gas Fitter
443.280.1873 Lee
joytechvac.com

저렴한 가격! 최고의 만족!

SK 플러밍

- ▶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 ▶ 싱크, 욕실, 화장실, 부엌
- ▶ 수도꼭지 / 변기 / 하수도 뚫음
- ▶ 온수, 히터 (가스/전기)
- ▶ Dishwashers, Disposals
- ▶ 상하수도 수리교체 / 배수 펌프
- ▶ 철 핸드레일 리페어 및 각종 용접

MD·VA
24 hours
7 days
Service

703-989-0103

골든 벨라 보석상

- 결혼 예물 전문
- G.I.A 다이아몬드
- 보석, 금 고가 매입
- 순금 아기 돌반지 팔찌
- 보석 세공, 시계 수리

703.988.0033 센터빌
301.792.5615 H-Mart 내

EVERSHINE Construction

KITCHEN & BATH BASEMENT REMODELING

HOME REMODELING
Patio / Fence / Deck / 기타 각종 집수리

• 15년 이상의 경험 • 보험가입

VA Class A License / DC / MHIC
evershine-construction.com
info@evershine-construction.com

703.994.2943
Ray Kim

BBG 블라인드 전문업체

- 한국산 콤비, 롤스크린 블라인드
- 한국산 전동 블라인드
- 한국산 Triple Shade 블라인드
- 한국산 나비주름, 형상 기억 커튼
- 한국산 Cordless 블라인드
- 한국산 Smart Curtain
- 상업용 블라인드 전문제작
- Interior의 완성 블라인드

VA-MD-D.C
무료견적

571.229.4633
www.bbgbllinds.com / bbgbllinds@gmail.com

H.P.C 집수리센터

집안밖에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 집안-리페어, 핸디맨 서비스
- 집밖-창문, 사이딩, 거터, 루핑, 데크 등 일체

“일단 전화주세요!”
상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VA Class A 라이선스 보유 * 라이어블리티, 워커스컴 보험 보유

571-594-4080

형제건축·지붕

H BROTHERS CONSTRUCTION, INC.

가정용 상업용

믿고 맡기시면 최상의 결과를드립니다.

부엌 화장실 지하실

703-928-6255
14516 Flag Staff Ct, Centreville, VA 20121

제임스 플러밍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만족을!

- 수도꼭지, 변기, 하수도 뚫음
- 온수, 히터 (가스, 전기)
- 상하수도 수리교체, 배수 펌프
- Gas 공사, 히팅, 에어컨, 냉동
- 집 안밖 물새는것

24Hr
703.499.5984

홈스 플러밍 센터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만족을!

플러밍

- ◆ 수도꼭지 교체
- ◆ 싱크 / 디스포저
- ◆ 워터히터 / 물새는것
- ◆ 하수막힘 / 변기교체
- ◆ 씽펌프 교체

24 hours
7 days
Service

571.594.4080
VA A 라이선스/보험 13908 Green Trails Ct, Centreville, VA 20121

우주 Mechanical, LLC

- 전기/플러밍/가스/히팅/에어컨
- 역류장치(Backflow)
- MD Fire 스프링클러
- 주방 화재 방지
- 용접(철, 스텐, 알루미늄)
- 제작 및 설치 (키친후드, 덕트)
- 복구작업 (수해, 화재, 가구, 곰팡이) 보험처리가능

DC, MD, WV 라이선스 소지
301-222-3277

블라인드 / 틈트

“명품 블라인드”

블라인드 하나로 여러분의 집이 확 바뀝니다.

한국 명품 블라인드 드디어 미국 상륙!
LA 지역 10,000 스퀘어피트 자체 공장과 쇼룸 보유
메릴랜드, 워싱턴DC, 필라델피아, 노스캐롤라이나 전 지역
버지니아 동부지사 오픈 !!

“놀라운 품질
저렴한 가격”

- 한국산 지브라셰이드, 전동블라인드, 롤스크린, 허니콤, 스마트커튼
- 최상의 품질, 다채로운 색상과 디자인 및 A/S Team 보유
- 최고급 공기정화, 향균 원단, 방염 기능
- 가정/상업/교회용 등 다양한 맞춤 제작

Total Blackout LLC
Young Lee
무료 방문
상담 및 견적 **703.600.9031**



Jim & Roger's 본바닥 영어

해설:스티브 박(CIU교수)

California International University
www.ciula.edu (213)381-3710

pull yourself together; 정신차리다

(Miriam a teenager is talking to her aunt Sally ~)

(10대인 미리엄이 이모 샬리와 이야기를 한다...)

Miriam: What time do you usually get up?
미리엄: 보통 몇 시에 일어나세요?

Sally: I get up at seven.
샬리: 난 7시에 일어나지.

Miriam: How do you wake up?
미리엄: 어떻게 깨세요?

Sally: It's usually when the alarm goes off.
샬리: 보통 자명종이 울리면 일어나.

Miriam: What time do you set the alarm for?
미리엄: 자명종은 몇 시에 맞춰놓는데요?

Sally: Seven o'clock every day of the week.
샬리: 매일 7시에 맞춰놓지.

Miriam: Do you get up immediately?
미리엄: 금방 일어나세요?

Sally: No, I lie there for a few minutes until I can pull myself together.

샬리: 아니. 몇 분 누워 있어야 정신을 차리지.

Miriam: Is this your normal routine?

미리엄: 항상 그렇게 하세요?

Sally: Oh yes ~ holidays weekends and even when I'm sick.....

샬리: 아 그렇지 ~ 휴일이나 주말이나 아플 때도 항상 그래.

기억할만한 표현

▶ get up: (보통 아침에) 일어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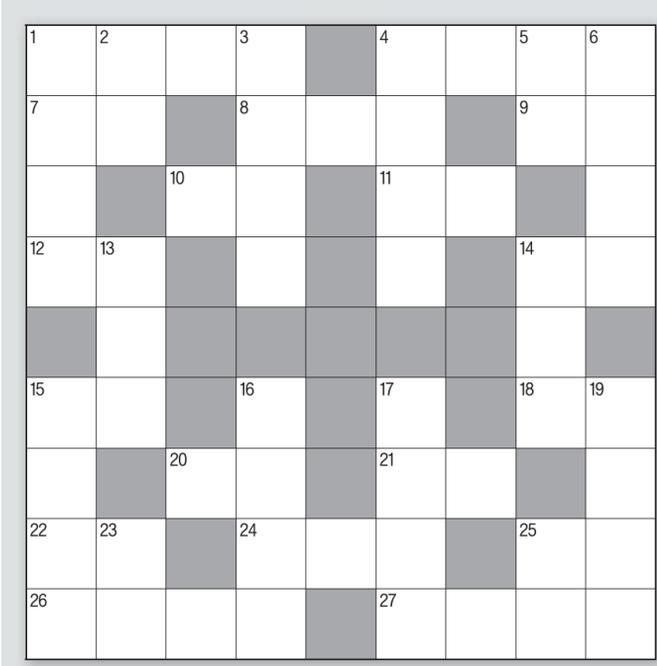
"I've been getting up at 6 o'clock for twenty years."
(난 20년째 아침 6시에 일어나.)

▶ wake up: 잠을 깨다.

"If the baby wakes up you should take care of her."
(아기가 깨면 잘 봐줘야 돼.)

▶ go off: 울리다.

날말퀴즈



가로열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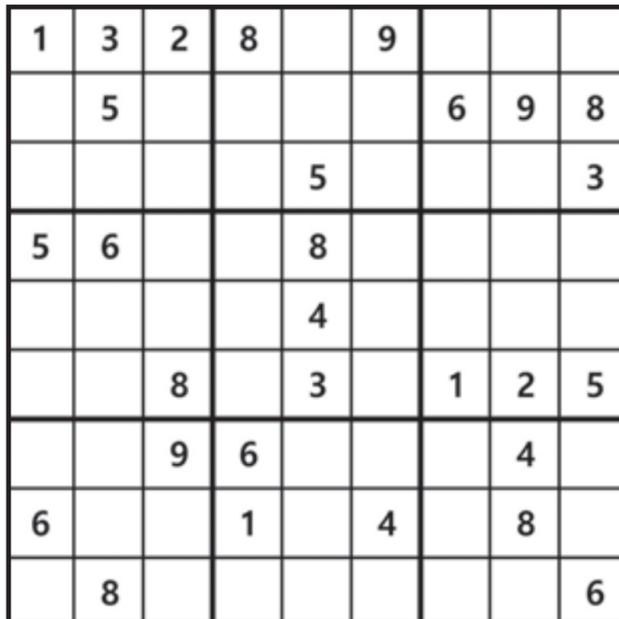
(1)세 칸밖에 안 되는, 짙으로 지방을 인 집. 아주 작은 집 (4)못마땅하거나 풀이 죽어 잔뜩 찌푸린 얼굴 모양. 그 아저씨, 오늘 장사 꺾박쳤다고 상통이 ~일 텐데 이를 어찌나. □거□□ (7)부지런히 일하며 힘쓰 (8)먼저 와 닿는 차례 (9)물건의 출납이나 돈의 수지(收支) 계산을 적어 두는 책 (10)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이고 한 면은 육지에 이어진 땅. 태안 ~ (11)처마 끝에 다는 작은 종. 속에는 봉어 모양의 쇠조각이 바람에 흔들리면서 소리가 난다 (12)민사 소송에서, 소송을 당한 측의 당사자 (14)나무로 물건을 만들. 함평 고막천 석교는 우리나라에서 보기 드문, ~형식의 돌다리이다 (15)물고기의 뱃속에 있는 공기주머니 (18)정한 시각보다 늦게 옴 (20)나라에 병란이나 사변이 있을 때 신호로 울리던 불 (21)지방에서 서울로 감 (22)천둥이 칠 때 나는 소리. ~벽력 (24)상자 앞면에 확대경을 달고 그 안에서 여러 그림을 넣어서 들여다보게 한 장치. 그 잘살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망하다니 세상은 정말 ~속이야 (25)수염을 깎음 (26)겨울에는 곤충의 몸에 있다가 여름에는 풀처럼 나타난다는 데서

이름 지어진 버섯. □□□□ (27)거의 죽을 뻔하다가 도로 살아남

세로열쇠

(1)풀뿌리와 나무껍질. 맛이나 영양 가치가 없는 거친 음식 (2)탈 (3)도시의 주요지점을 연결하는 주요한 도로 (4)비가 때맞추어 알맞게 내리고 바람이 고르게 불. □□□조 (5)일하는 데 거처지거리거나 방해가 되는 장애. 공사장 소음 때문에 수업에 ~을 받고 있다 (6)서로서로 도움 (13)들이나 산에서 음식을 먹을 때나 귀신에게 먼저 바친다는 뜻으로 음식을 조금씩 떼어 단질 때 하는 말 (14)가축의 사료가 되는 풀이 자라고 있는 곳 (15)아무런 주관이 없이 남의 의견을 맹목적으로 좇아 함께 어울림. □화□□ (16)옥같이 고운 풀에 핀, 구슬같이 아름다운 꽃. 정자 아래로는 ~가 만발했고 못에는 연꽃 피고 잉어가 뛰놀고 있다. 기□□□ (17)달리기, 뛰기, 던지기를 기본으로 하는 땅 위에서의 운동 경기 (19)제각기 살아 나갈 방도를 꾀함 (23)성장하여 생식 능력을 지닌 곤충 (25)출입이 제한된 기관이나 장소에 있는 사람을 직접 얼굴을 대하여 만나 봄. 아들이 있는 군부대에 ~를 갔어요

스도쿠



자료제공 = 올드독 (www.gobook2.com)

스도쿠

문제풀이 스토리는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게임입니다. 가로-세로는 물론 사각형 3X3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적어 넣어야 합니다.



워싱턴 한인 커뮤니티 제일의 종합일간지!

① 워싱턴 중앙일보

1년 정기 구독료 \$150

“ 중앙일보 1년 정기 구독료가 \$150(선납)으로 2024년 7월 1일 부터 조정된 것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한인 마켓과 식당 등 80여개의 기존 가판대에서는 무료로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중앙 생활안내 구인/구직 줄 광고는 월 \$20로 계속해서 지역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게재됩니다. ”

워싱턴중앙일보는 애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끊임 없이 노력하는 신문사가 되기를 약속드립니다.

정기구독 신청 및 문의: 703-281-9660,1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① 워싱턴 중앙일보 구독신청서

성명 (Name)	영문 (Eng)	한글 (Kor)
주소 (Address)		
연락처 (Phone #)	Home	Cell
구독료 (Subscription Fee)	1년 선납 \$150	지불 방법 Check <input type="checkbox"/> Bill <input type="checkbox"/> Credit Card <input type="checkbox"/>
Card Info	카드 종류 VISA <input type="checkbox"/> Master <input type="checkbox"/> Amex <input type="checkbox"/> Discovery <input type="checkbox"/>	카드 번호 EXP. DATE: / month year CVS: month year
신청서 보내실 곳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20 년 월 일 서명 (sign):		

* 신청하신 신문은 신청일(구독료 완납기준) 2일 후부터 배달되며 2일이 지나도 신문이 배달되지 않을 경우 구독부(703-281-9660,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Nation Wide 미전지역 안내광고 동시게재

LA · 뉴욕 · 시카고 · 애틀랜타 · 워싱턴 DC

광고문의
213-368-2525

사장님의 꿈: 최신형 기계 교체 + 수수료 절약 + 최고 서비스

30주년 프로모션으로 리버티뱅크카드와 월드페이 사장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대표: 사라 류 박사
https://wikia.com/wiki/Dr._Sarah_Sun_Liew
30년 프로그래밍 경력, 경영학 박사 (전자상거래 & 금융), 영업학, 교육학, 설교학 박사 하버드 경영·교육·정치 대학원 Alumni MIT, Wharton, Chicago Booth 경영대학원 수학 하버드, 아브라함(J.D.), 퍼시픽(J.S.D.) 법대원 수학
부사장: 아브라함 이 (경영학 학사, 석사)

▶ **최신형 기계 교체** (WiFi · Wireless · Touch Screen 지원)
▶ **수수료 매달 \$50 ~ \$500 절약!**
▶ **세계 1위 회사 Worldpay + 30년 경력 Liberty Bankcard 전화주세요!**

www.worldpay.com 424-332-3779
Info@meridianwish.com

WORLDPAY는 전세계 175 개국 2 M 고객서비스, 연간 550억건 거래 Liberty Bankcard (MPS) is a registered independent Sales Organization of Worldpay ISO and Ecommerce, LLC, a registered ISO of Fifth Third Bank, N.A., Cincinnati, OH, USA

koreadailyus.com



한인사회의 든든한 대변인

미주 중앙일보는 한인사회의 뉴스와 목소리를 주류사회와 한인 2~3세들에게 전달하고자 영어뉴스 사이트 (Koreadailyus.com)를 출범시켰습니다.

Koreadailyus.com은 주류사회에 한인사회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든든한 대변인이 되겠습니다

9월 햇산삼 세일

5파운드 이상 구입시 출세일 가격 판매

- 30년 1파운드 \$750 → \$550
- 40년 1파운드 \$1,500 → \$950
- 50년 1파운드 \$2,350 → \$1,500

Kim's Acupuncture Clinic (Dealer #90-447305)
3003 W. Olympic Bl, #201 LA, CA 90006
(213)800-3662 (213)407-4524

치질·출혈 수술 안하고 OK

항문폴립·변비·요실금 출출 직장과 대장암 예방효과 새끼 손가락 크기 항문삽입형, 사용 간편합니다.

동배·뱃살 요요없이 빠져요

기적의 티타늄벨트로 허리통증·냉증도 탈출

실제사례 www.miracletouchusa.com 검색
미라클 터치 (213)675-6877

차별화된 한국제품이 많은~

미주 최대 한인 온라인 쇼핑몰

Hotdeal.Koreadaily.com

법무사가 되세요

"라이선스를 받으시고 고소득을 평생 올리세요"

학교 웹사이트 interpacU.com 에 들러서 한국어 Sample 강의를 들어보시고 법무사반을 등록하시면 됩니다.

International Pacific University
(213)674-7000 (213)505-7703

총장 법학박사 허위르레

Leisure World Seal Beach, CA

고품격 은퇴마을

주택 구매자 조건

1. 연령: 만 55세 이상 (부부일 경우 한분만도 가능)
2. 지난 2년동안 세금보고서 사본 (첫째와 둘째 페이지 필요)
3. 401K, 은퇴연금, \$2.5만 or \$5만 (6개월 이상 은행예치 증명서 사본)
4. 집구매는 일시불로 지불 (Monthly Association Due와 Property Tax를 합한 액수의 4배 이상 월수입이 있어야 됨)

"황혼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알고 계십니까? 유토피아 라고도 불리는 완벽한 시설 바닷가 인근에 시니어를 위한 실버타운 "레저월드"

레저월드에서 거주하고 있는 전문 Agent
Philip Y. Bak (박윤택) Bre#01895031
Direct: (213)550-9991
Office: (562)235-3760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립니다.

Berkshire Hathaway baksusa@yahoo.com

지긋 지긋한 통증과 중풍 치료로 기적을 경험!

"중풍과 통증을 치료하는 한방의 신비!"

중풍으로 마비됐던 델취노 고메즈(51) 씨는 LA 한인타운 성민 산삼 한방병원에서 두 달간 치료를 받고 놀랍게 회복했다. 2022년 12월 중풍 발병 이후 지팡이에 의지해야 했던 그는, 침과 뜸, 약물 등으로 이루어진 6단계 한방 치료 덕분에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게 되었다.

서영수 한의학 박사는 "중풍은 불치병이 아니다. 기혈 순환과 혈전 제거가 핵심이며, 심혈관 치료에 좋은 금옥단과 위장 강화에 효과적인 도인벽사단을 병행 처방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손발 저림, 어지러움 등 초기 증상이 있다면 철저한 건강 관리가 필수"라고 당부했다.

문의: (213) 503-3304
주소: 809 S. Hobart Blvd, LA

잠 못 이룰 정도로 지긋지긋한 모든통증

요통, 척추간 협착증, 오십견 [수술·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중풍·류마티스 관절염은 불치병이 아니다!

10여일 만에 뼈아픈 류마티스 관절염 통증에서 벗어난 실제 치료 사례

성민산삼 한방병원 명약 산삼금옥단 도인벽사단 50% 특별할인가

Tel. 213.385.3304 Cell. 213.503.3304

깨끗하게 손질된 민물장어 판매 바로 구워드시세요

\$100 이상 무료 배송

장어판매할 식당 적극 환영

LW FISH MARKET 문의 (832) 605-4890 · (281) 501-2623

1249 Blalock Rd #201, Houston, TX 77055

어르신들을 위한 연말연시 최적의 선물!!
건대추 판매 11월부터

좋은 건대추를 농장에서 직주문 하세요!

전화주문 714.833.4988 (Mrs. Han You)

건대추 미주 전지역 운송비 포함 가격

\$180/10LBS·1BOX \$15/lb 대추	\$150/10LBS·1BOX \$12/lb 대추	\$100/10LBS·1BOX \$7/lb 대추
--------------------------------	--------------------------------	-------------------------------

* \$12/lb 대추는 \$15/lb 대추보다 품질은 같으나 사이즈가 조금 작습니다. Pay by Zelle or check. No credit card. 하와이 알라스카 추가요금

속성된 퇴비를 듬뿍 사용하여 재배한 양질의 대추를 100% 천연광으로 정성껏 건조시켜 맛과 영양 보존 상태가 최고인 고급 건강 햇 대추입니다

신선농원 2060 Darby St, San Bernardino, CA 92407



김우기 통증 재활 물리치료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한국과 미국에서 풍부한 임상경험과 실력을 갖춘

통증 재활의 최고 전문가가 집중 케어해 드립니다!

메디케어 교통사고

■ 각종 의료보험, 메디케이드, 캐쉬플랜

진료내용

근골격계 치료

레드코드 치료, 사선근육안정화 치료
척추측만증 치료, 맥켄지 치료
메이틀랜드 치료

진료과목

-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좌골신경통)
- 스포츠 손상/직장상해
- 교통사고 손상/뇌졸중
- 척수손상 후 재활치료
- 주요 근육 관절 통증
- 산전/산후 통증
- 관절수술, 척추수술 후 재활/물리치료
- 자세교정 운동 (측만증, 후만증)

중추신경계 손상치료

신경발달치료
보봐스치료

통증치료

근육 통증침치료
관절 / 근육이완치료
전기치료



김민정 DPT 연세대학교 재활학과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건강관리학전공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College in New York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College in New York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원장 김우기 DPT
연세대학교 재활학전공
고려대학교 대학원 질병역학전공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 예약환자 에 의해 주말에도 진료합니다

김우기 통증 재활 물리치료

T. 703-865-6455
F. 703-649-6455
14153 Robert Paris Ct. Ste. A
Chantilly, VA 20151